

에스겔 1 장

1. 여호야긴 왕이 누구며 누구에게 사로잡혔는가?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마지막 왕(그 후에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가 있고 하지만),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한다. 아마 에스겔도 이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 왔을 것이다.

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날을 기준으로 하면 5년(BC 597, 왕하 24장) 그 달(4월) 5일이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삼십년 4월 5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 분명한 답은 알 수 없으므로 짐작해볼 수밖에 없다!

자기 나이 아닐까? 아마 그럴 것이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학자들에게 맡겨두자.

3. 하늘이 열린다고? 구름이 걷히는 것은 아닐 테고, 하늘 뒤에 무엇이 있길래?

영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마 3:16, 요 1:51, 행 7:56, 계 4:1).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스테반은 돌에 맞는 아픔도 잊어버렸다.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할 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4.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에스겔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알 수 있었을 뿐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하나님의 묘사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그냥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5. 갈대아 땅(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시날) 그발강 가에서 제사장이 무얼 하고 있었지?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가면 제사장인들 별 수 있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가가 성도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틀로서, 말려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서라도 성도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6. 이스라엘의 회복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오랫동안 총리로 지낸 다니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 왕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말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

종교적 회복: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3).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다니엘이 말하는 정치적 회복과 통한다.

7.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인가? 폭풍과 구름? 불? 단 쇠? 네 생물?

하나님의 형상: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배경인 셈이다.

8. 에스겔이 본 것은 폭풍과 구름, 불, 단 쇠, 네 생물이다. 그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본체는 없다: 주변부만 보여줌으로써 본체는 짐작만 하도록 하는 셈이다. 에스겔이 본 것들은 배경(주변부)인 셈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더라(26)는 표현뿐이다!

9. 생물이면 생물이고 사람이면 사람이니 네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라니(5)?

사람의 형상 같은 생물의 형상: 사람보다는 생물의 형상에 더 중심이 실려 있는 표현이다. 마치 사람의 역할을 하는 동물캐릭터와 같은 셈이다. 그러니까 외모는 생물인데 하는 행동은 사람 같은 경우로 이해하면 되겠다.

10. 에스겔이 본 생물의 얼굴은 전부 몇인가?

16: 네 생물의 형상이란 네 마리의 생물이란 뜻이고(5), 각각 네 얼굴을 가졌으니(6) 사면에 얼굴이 있는 셈이다.

11. 에스겔이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 같다. 하나님의 모습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격을 한 화면에 비유적으로 나타내려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엽적인 의문, 예컨대 날개가 넷이 있으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는 핵심만 이해하는 것이 상징이나 비유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패망한 나라의 신은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으니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 통치자라고 선포하는 셈이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암담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위엄에 가득찬 모습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은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인이었던단다. 제멋대로다.

12. 임금이 행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준비물이 등장하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만 홀로 나타나실 리가 없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복방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출 19:9, 욥 37:22, 사 14:13). 렘 1:13-14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번쩍이는 불, 단 쇠: 우리말 단 쇠는 불에 달겨진 쇠라는 말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빛이 나는(번쩍이는) 금속이란 뜻이다. 잘 닦아 광을 낸 구리와도 비슷한 표현이다.

생물의 형상들: 9:3과 10:1-3에 나오는 그룹과 동일한 존재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

13.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는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해야 한다. 이 생물들이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곧은 다리, 송아지 발바닥, 마광한 구리=정결하고 올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 '곧다'는 것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즉 바른.' 송아지는 제사에 쓰인 정결한 짐승이며 마광한 구리는 흠과 티가 없이 빛나는 것을 말한다.

몸을 가린 날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정결함의 일종이다.

14.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하는 표현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날개 밑의 손: 말씀을 수행할 준비 자세를 가리키는 것

편 날개: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출동하기 위하여 시동 걸고 대기하는 차와 같다.

생물의 빠른 움직임: 신속하고 민첩함

15.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함을 보여주는 표현들은?

서로 연한 날개: 동역함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게 행함:

생물들의 움직이는 방향: 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제히, 곧게

사방으로 향하되 돌이키지 아니함: 분산되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임

생물의 곁에서 행하는 바퀴: 일사분란하게 움직임

※ 다음의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자(12~40).

16. 넷이란 숫자 (생물의 형상의 수, 얼굴, 날개):

여기서는 하나님을 수종 드는 천사의 온전함을 의미한다. 얼굴이 넷이면 사방을 살필 수 있고(온전한 준비 자세), 날개가 넷이면 언제든지 즉각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여섯 날개보다는 못한가? 사 6:2).

17.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각 영역의 우두머리다. 지혜, 용맹, 성실, 민첩함 등을 상징하는 셈이다.

18. 숫불과 헛불 같은 모양, 움직이며 광채가 나고 번개가 나는 불:

생물의 모양이 숫불이나 헛불 같다는 말이나 생물들과 움직임이 불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들이 불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불은 모세의 떨기나무 불처럼 태우는 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입고 있는 셈이다.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이다.

19. 땅 위의 바퀴:

날개가 있는 생물에게 바퀴는 쓸모없다. 설마 착륙용? 생물의 뜻을 잘 받들어 효과적으로 돕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20. 얼굴에 딸린 바퀴, 한결 같은 바퀴(황옥):

수종, 순종

21. 바퀴 안의 바퀴:

복잡함에 대한 상징, 아마도 인간세상과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

22. 높고 무서운 돌레, 눈이 가득한 돌레: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눈

23. 바퀴 가운데 있는 생물의 신(함께 움직이는 이유):

바퀴는 스스로 구르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신에 의해서 구르는 것

24. 두려움을 주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수정이란 맑고 투명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곳이다. 궁창이란 평평하고 넓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늘이란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평평한 '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25. 행할 때 큰 소리 나는 날개:

장엄과 웅장함(좋은 차는 소리가 안 나는데?)

26. 드리운 날개:

행동을 멈추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

27. 궁창에서 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28.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함, 통치자의 모습

29. 보좌 위의 사람 모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 아닐까? 사람의 형상이란 지혜로운 존재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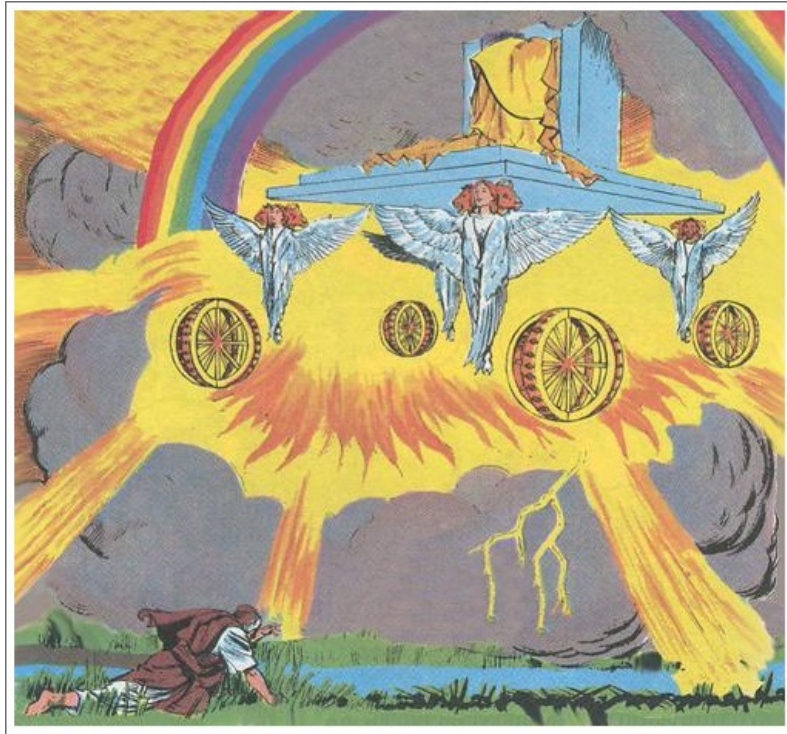
30. 단 쇠, 불같은 모양:

하나님의 위엄

31. 비오는 날의 무지개 같은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움, 언약의 신실성

32. 다음 그림은 아이들을 위한 만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인데(재미있는 만화성경, 생명의 말씀사) 조금 수정한 것이다.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로 하자.



에스겔 2 장

1.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사람아!' 하면 되지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참고로 히브리 발음은 '벤아담'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연약한 인생을 의미함: 연약한 인생을 불러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훗날 이 말이 전능하신 자리에서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다.

2. '일어서라'고 해놓고 일으켜 세우시면 이상하잖아?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발령자의 의무라고 하던가? 공부하라고 시킨 부모는 공부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챙겨주는 법이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신 8:18).

3. 하나님의 말씀을 엮으려서(1:28) 들으면 안 되나?

엮으린 자세는 경배하는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일어서라는 것은 경배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자세다.

4.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거듭되는 침공을 이기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다(아직은 3차 포로가 오기 전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인가보다(3): 이스라엘은 여전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하단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또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부자간의 아픔보다 훨씬 더 해 보인다.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화근(?)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사랑에 눈먼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참고.

5.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참고로 1:1절의 여호야긴 왕은 유다 왕이다. 그러므로 사로잡힌 자들은 유다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자손(3):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보다 적어도 130여년이나 먼저(BC 722 ↔ BC 605, 597) 망해서 흩어져 버렸다. 그들과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과 아직 포로로 잡히지 않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다. 징계로 흩어진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6.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닌 모양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게 하는 것(5): 경고도 않고 징계를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일종의 공갈(?)이다. 에스겔이 선지자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다(신 18:22). 정말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럴 리가 없으니 더 두고 봐야겠지...

7. 어떤 전도자들이 흔히 잘 애용하는 말씀이 '들든지 아니 들든지...'이다(5, 7). 이 말씀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전하기만 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다. 이것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경고다: 이 말씀은 전도의 문맥이 아니다. 전도는 초청이다. 지혜롭게 초청해야지 억지로 끌어다 앉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마 28:20).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것(행 19:9)이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처럼(눅 24:27)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8. 두려워말라고 한다고 안 두렵나?

말씀을 먹는 것(8)이 유일한 해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스스로 낸 용기는 얼마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9.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말이 많았던 사람이 아마 모세, 그 다음이 기드온 아닐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한 마디 할 수 있었는데 에스겔은?

한 마디 대꾸할 겨를도 없이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급한 탓일 것이다.

10. 임금의 사신으로 적국을 향하는 신하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가시, 찔레, 전갈(6):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 증거란다. 목사가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가 되는 것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런 아픔을 각오하고서라도 목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많아진다면 그야말로 교회의 전성기가 될 텐데...

11.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선지자가 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말(27) =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말을 해

서는 안 된다.

12.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글을 쓰는 법인데 왜 안팎으로 써졌을까? 두루마리를 아끼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의미: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까?

에스겔 3 장

1.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먹는 것이 아니다. 먹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상징적인 의미라는 말이다. 성경에서 먹는 것이 아닌데 먹으라고 하는 게 또 뭐가 있는가?

예수님의 삶과 피: 믿으라는 말이다. 깨닫거나 믿는 것을 먹으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아마도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음식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사역할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자신의 탁월한 열심과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말씀에 통달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말씀은 주시지 않는가?

계시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1-3절 말씀은 단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하는 일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3. 말씀을 시급하게 전해야 한다고 안타하는 열심 있는 전도자가 적지 않다.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순서가 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먹는 일: 가기 전에 먹어야 한다! 무조건 가면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모세, 바울, 다윗... 일을 맡기시기 전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사역을 맡기신 경우는 없다.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면 무엇 하느냐고? 학자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고 오직 전도자만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다.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는 열심은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다. 전쟁에는 전방에서 총을 들고 몸소 뛰어야 하는 전투병 못지않게 후방에서 병참을 담당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아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도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다. 전쟁이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라.

4. 두루마리가 어떻게 달아? 두루마리의 내용이 희망에 넘치는 것이어서?

두루마리를 음식에 비유했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주로 경고와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달지? 어떤 내용이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단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날이 곧 희년이요, 안식의 완성이다(사 55장).

5.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두 번인데(5, 6) 각각의 의도가 어떻게 다른가?

5절은 에스겔이 맡은 사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6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완악함을 설명하려는 의도: 말을 알아듣는 놈들은 회개치 않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할 것이다(사 11:21-23). 비싼 돈 주고 과외 시켜줬더니 정작 하란 녀석은 제대로 못 하고 어깨 넘어 보턴 녀석이 제대로 하더라? 기특하다고? 다행이다. 하지만 제대로 못하는 큰 녀석을 어이 할꼬?

6.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보냈더라면 이방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 지 굳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회개하라는 것보다는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길게 보면 한 번 정한 뜻을 끝내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고집)이다. 아무리 듣지 않아도 끝내 듣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내심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심판이 더 강조되어 있다.

7. 히브리인들의 이름에 잘 쓰이는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를 뜻한다. 에스겔도 '에숙 + 엘'이다. 무슨 뜻인지 8-9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화석은 化石이 아니고 火石, 즉 부싯돌이다. 돌이 단단해서 부싯돌이나 칼로 사용했던 돌이다. 이마와 얼굴을 그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다.

8.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주셨는가? 1장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세 가지로 정돈해 보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케 하셨고(1장, 3:12-13), 말씀을 먹게 하시고(2장), 얼굴과 이마에 첩판을 파셨다(3장) 준비 중의 준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체험이다. 이것이 사역의 토대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과 감격 없이 교회에서 충성한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큰 업적을 이룬다 해도 자신의 욕심을 채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 전도하는 자는 얼굴에 첩판을 팔아야 하나? 들든지 말든지, 싫어하든 말든 밀어붙여?

에스겔의 상황은 심판을 선포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다급한 자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전도자의 인내, 지혜,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긴 세월, 고락을 함께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물론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다.

10. 겹이 나서 아플까, 아프기 때문에 겹이 나는 걸까? 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이 있을까, 맛이 있었기 때문에 맛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이런 풍만지같은 질문이 10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귀로 풀어야 한다: 말을 들어보고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때로는 반대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

짜 지은 두 질문은 서로 상관이 있다: 한두 번의 경험이 생각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생각이 다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향은 물질분야보다 영적인 분야에서 더 강하다. 말을 들어보고 수용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먼저 열어야 귀가 열리기도 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들어보고 마음을 정하겠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마 15:8). 때로는 사람이 싫으면 그가 하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조건 싫어지기도 한다.

11. 여호와와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하시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다니(14)?

하나님의 근심과 분노를 자신이 느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경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참고, 빌 1:8).

12. 생물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들이었는데(1장) 찬송도 하네? 뭘로 찬송을 하는가?

날개와 바퀴로: 곤충이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낸다더니? 바퀴를 돌려서 내는 소리는 사이렌과 같은 소리다. 이것을 크게 울리는 소리면서 동시에 음성처럼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12)라고 묘사했는데 우리가 알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소리인 셈이다.

13. 1:4절부터 시작된 환상이 어디서 끝이 나는가?

3:14절

14. 에스겔이 '텔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단다(15).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1:1): 그러니까 '텔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다'는 표현이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서 현실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15. 환상을 보고난 후 칠일을 민답히(열떨떨하게) 지냈단다.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일주일일을 보냈다는 말이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을까?

아마 그럴 것, 그러나 진짜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2:1-7) 때문 아니었을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들에게 들든지 아니 들든지 전하라(2:4-5)는 말씀이 그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것이다.

16. 텔아빔이란 지명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관계가 있을까?

단어상으로 같은 말이다. 텔아빔은 바벨론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거주지였던 모양이다. 현재의 텔아비브는 1909년, 구 옴바의 유대인 60가족(약 250인)이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 곳이다. 유대인의 미래국가를 그린 헤르츨(T. Herzl 1860.05.02 ~ 1904.07.03.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의 소설 <Altneuland, 1902>의 히브리어 제명에 따라, 텔 아비브라 이름했단다. '텔'은 언덕, '아비브'는 '이삭'을 의미한다.

17.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17)은 에스겔처럼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자만의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파수대를 돌고 다니는 사람만이 파수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다.

18.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악인마저 깨우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 악인은 선택한 자기 백성 중의 악인인가? 선택했으면 어떻게 악인이 되는가? 아이고, 머리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신비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믿은 내가 만세 전에 선택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신비의 영역이다. 그걸 알아내려니 머리가 아프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딤펢 2: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뿐이다.

19. 일반적인 경우에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100번 정도 권유를 받는단다. 수많은 사람이 믿으라고 권면을 한 끝에 회심을 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한 상급은 최후에 한번 초청한 사람인가? 도중에 수십 번 권유한 사람의 공인가? 18-19에서 이런 질문의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를 따지겠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회심하기까지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에게 상급이 분배(?)되는 것이 옳겠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의무다.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다(고전 9:16).

20. 의인이 돌이켜 악인이 되기도 한다(20)?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지켜서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교리(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7장)와는 다른 얘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구약적인 의미의 의인)라는 의미다. 자신의 공로로 의를 이루는 자라는 의미다. 자신의 공로로 이룬 것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의인(신약적인 의미의 의인)이야말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자신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21.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는 말씀(20)에 따르면 소위 노망이 들거나 정신이 혼미하여, 죽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평생 헌신한 것은 헛일인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은 효력이 없다. 연세가 많아 자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

더라.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분의 말은 효력이 없는 것이 정상 아닌가?

22. 들로 가랬다가 또 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22-24)? 왜 그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그만큼 어려운 사역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 시며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훗날 그런 일이 있을 것(25)에 대한 훈련이다.

23. 선지자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면(26) 무엇하러 보내나?

그런 때도 올 것이라는 의미다: 미리 훈련시키시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다. 아마도 집에 들어가 나오지 못 하게 하시면 당연히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것이다. 할 말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 속이 터진 다.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할 때에는 주 여호와의 말 씀이 이러하시다 해야 한다(27). 그러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아직도 선지자로서 나설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사역에 나서야 한다.

에스겔 4 장

1. 모델 하우스는 아직 짓지 않아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지어질 집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세 가지 행위(1-3, 4-8, 9-11) 중에 어느 것이 일종의 모델인가?

모로 누워서 지내면서(4-8)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는 일(9-11):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건축자는 모델 하우스와 똑같은 집을 지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에스겔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모델도 모델 나름이지 이런 모델은?

2. 상징은 꼭 같지는 않지만 닮은 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문의 어느 행위가 상징에 해당하는가?

에스겔이 만든 진지(1-3): 일종의 모형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외침을 당할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모델이 둘, 상징이 다음 장에 나올 것(5:1-4)까지 둘, 합이 넷이다.

3.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는 짓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의 전쟁놀이로 만들기: 흙벽돌(=박석, 礮石,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려서 세우고 돌레에 그 성을 공격하는 진을 세우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런 꼴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사역을 하던 때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이다.

4. 다른 역본에 보면 그렇게 포위된 예루살렘을 지켜보라는 말이 있다(*NKJV, Set your face against it*). 개역은 이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일까?

3절의 '성을 향하여': 얼굴을 성에 고정시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복 아닌가? 복을 주시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징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무서운 일이다.

5. 선지자가 애들 장난처럼 진지를 만들고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뭣 하는 짓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계신다, 징계하시려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특정한 곳으로 향하게 하시면 복이 아니면 심판이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6. 왜 좌편으로 누워 삼백 구십일, 우편으로 누워 사십일을 지내라고 할까? 반반씩 아니고?

좌편은 이스라엘, 우편은 유다를 상징하기 때문: 좌편으로 누우면 이스라엘이 있던 북쪽이 보인다. 기준이 해가 뜨는 동쪽이기 때문이다.

7. 에스겔이 죄를 담당하는 것은 대신 죄를 지는 것(대속)일까, 아니면 모델일까?

모델: 에스겔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예시이다.

8. 북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은 390년이고 유다가 겪어야 할 고난은 40년이다. 다음 연대를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왕국의 분열 BC 930, 북이스라엘 멸망 BC 723, 유다 멸망 BC 586, 이스라엘의 귀환 BC 538>

북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유다의 귀환까지 약 390년,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귀환하기까지 40년이다. 그렇게 본다면 왕국이 분리되어 떨어져나간 이스라엘의 전역사가 징계인 셈이다. 하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악했다는 점에서 전체가 징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9. 자신이 모형처럼 만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의 말씀을 퍼붓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것도 모로 누워, 줄로 자신을 묶어 마음대로 몸을 돌리지도 못한 채!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선지자가 왜 그러는지 알기는 알 것: 어떤 목사님께서 젊은 날에 아무도 없는 새벽기도 시간에 수천 명이 모인 것처럼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새벽기도가 부흥했더라. 목사가 불쌍해서 봐준 사람들 때문에.

10. 밀가루에 보릿가루를 섞으면 더 나을까, 못할까?

따로 먹는 게 낫다. 밀이나 콩, 팥은 고급 음식이고 보리, 조, 귀리는 거친 음식이라. 섞으면 오히려 못하다. 어쩌면 빈부귀천의 구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예시 아닐까?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판국에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 있겠는가!

11. 이십 세겔중은 228g이다(20×11.4g). 한 끼 식사가 76g이면 어떻게 되나? 마른 라면 한 개가 125g이다. 끓이면 600g 정도 되겠네! 물 한 힉은 367cc다. 6분의 1힉은 61cc다. 야쿠르트 한 개가 50cc인데?

그야말로 최소한의 음식과 물이다: 1년 넘게 이렇게 지내야 한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가? 최소한의 음식으로,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휴우, 도저히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

12. 델감이 부족하면 동물의 마른 배설물로 대신하기도 했지만 초식동물의 그것과 달리 인분은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 23:12-14에 따르면 부정한 일이다. 왜 이런 부정한 짓을 하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13, 열국으로 쫓겨 흩어질 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일의 예표다. 부정한 떡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여 인분대신 쇠똥으로 대치시켰을까? 알레르기 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전식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약을 먹어야 한다면? 마카비 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부정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짐작이 조금이나마 되려나?

13.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기로서니 자기 백성을 '열국으로 쫓아 흩을' 수 있나?

수없이 경고했던 일이다(레 26:33, 신 28:36, 37, 64-65, 68).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들의 죄악이다(17,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14.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인분으로 떡을 굽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는 선지자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보를 하시는가?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라고 하셨다(15).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야 할 고통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선지자의 아픔을 조금 덜어 주었을 뿐이다.

15.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에스겔 외에도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고(사 20:1-2)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맸다(호 3:1-5) 예레미야는 종합선물세트처럼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달고 살았다.

선지자들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은 이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아픔을 이길 힘을 주었다. 특히 에스겔에게는 이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이 부럽다고? 그 뒤에 그가 꺾어야 할 고난은 생각도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보고 안 할래?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고난은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이상한 욕심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다! 헌신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이런 유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쉬시지 않는다.

박석礪石(토판)
운제雲梯(사다리)
토둔土屯(흙 언덕)
공성퇴攻城鎚(추)
전철煎鐵(철판)
철성鐵城(철벽)
경겁驚怯(근심)
민답悶沓(두려워 떨며)
쇠패衰敗

에스겔 5 장

1. 제사장들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금지된 일이다(렘 21:5, 참고, 삼하 10:4).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선지자에게 시키시는가? 말씀에 충성스런 선지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소문을 내려고: 좋은 일은 사람들의 입에 잘 오르내리지 않지만 이런 일은 빠르게 퍼진다. 선지자들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빠르게 전하려는 의도이다.

2. '그 성음을 에워싸는 날'이란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되는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에스겔이 행하는 이 행위가 상징이란 점을 감안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자.

4:5-6: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위해서 390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도합 430일이 지나면이란 뜻이다.

3. 삼분해서 불과 칼과 바람으로 처리하는 이 터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징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12): 삼분지 일은 성안에서 온역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지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지 일은 간신히 도망을 치거나(렘 42:1-44:30, 왕하 25:1-7)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사방에 홀고) 그들도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한 상징이다. 3중적인 처벌이다. 머리칼락을 나누는데 무슨 저울? 대충 나누면 되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터럭을 따라 칼을 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치시는가?

어렵고 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삼분의 일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한다고 해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5. 삼분지 일씩 세 번이면 끝났는데 또 조금 가지라고? 옷자락에 싼 이 터럭은 심판 당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남은 자(사 10:21-22, 사 6:13, 렘 23:3, 겔 11:13, 미 2:12, 습 3:13): 온 세상을 휩쓰는 홍수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듯, 하나님은 항상 일부를 남겨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온 유다가 심판을 당해도 여전히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들 중 불에 던져 살라진 일부는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6.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다? 세상 중앙에 두었다는 뜻이다(38:12).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상의 중앙이 되는지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

지리적으로는 유럽(헬라, 로마)과 아시아(앗수르, 바벨론, 바사)와 아프리카(이집트)를 잇는 통로에 있으며 영적으로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거꾸로 호랑이 굴에 던져진 양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조련사(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뿐이다.

7. 아무리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행치 않았다는 것은 억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다니지 않던 사람보다 더 교회에 비판적이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배신하면 더 악할하다.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래도 일부는 흉내라도 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탓 아닐까?

8.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노래했다(시 23:5).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

동일하게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신다(8): 원수의 목전에 베푸신 상은 얼마나 맛이 있을까? 반면에 인간도 아니라고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벌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9.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하지만(9-10) 일부(=아비가 아들을 먹으리라)는 미리 경고하셨던 말씀이다(레 26:29, 신 28:53).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힌 것(11절):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하기까지 했다(8:3-18). 이런 일을 가장 잘 한 유다왕이 므낫세다(왕하 21:5).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를 먹으리라'는 것이다.

10. 온 백성의 삼분지 일은 온역이나 기근으로 죽고 삼분지 일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며 삼분지 일은 사방에 흩어져서 칼에 죽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

외적의 침입: 이미 1차, 2차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으나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할 침입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들지 않다가 결국은 3차 침입을 초래했으니... 고집인지 소신인지 꼭 당해봐야 굴복하는 무리들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인생이 그런 존재인가보다. 옛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아냐?'

11. 선지자들은 한결 같이 징계를 말한 다음 회복을 말한다. 13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인가? 참고로 '열심으로'란 말은 '질투 때문에'란 뜻이기도 하다.

아니다: 심판을 철저하게 시행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시원할 때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는다

는 뜻이다. 회복을 말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12.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황무(=폐허)가 된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어떻게 비치는가(14-15)?

능욕거리, 수욕과 조롱거리, 경계(=교훈)와 괴이한 것(=놀람).

13.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것들이 덮쳐오는가(16-17)?

기근, 온역과 살육(=칼) 악한 짐승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내용상 결과적인 측면이 강하다. 백성이 기근이나 온역으로 죽으면 그 땅에 악한 짐승만 번창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14:15, 사 13:20-22).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동원하여 땅을 황무케 하신다.

14. 이렇게 참혹한 결말을 예고해도 듣지 않으니 어떡하지? 결국 유다는 이 말씀대로 깨끗이 망하고 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포로에서 풀이키시고 명맥을 잇게 하셨다가(33장 이후)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게 됨(롬 3:20-21)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훗날 그렇게 되긴 하지만 멸망만을 선포해야 하는 에스겔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스겔 6 장

1. 이스라엘에 끔찍한 재난이 닥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이라고 대답해도 좋으나 본문에서 반복해서(7, 10, 13, 14)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답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아는 것(비슷한 표현까지 포함하면 에스겔서에만 70번이 넘는다)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데...

2.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십니까(2)?

직접 말하기가 싫다는 뜻: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선언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은근슬쩍 알아듣도록 끼워 넣은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드세요' 하기가 싫을 때 애꿎은 그릇이나 식탁을 요란스럽게 건드려 소리를 낸다. 아니면 아이들에게 고향을 지른다. 눈치껏 찾아 먹으라는 것이다. 그러는데 안 먹고 그냥 나가면?

3. 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상: 산당, 제단은 우상의 부속물이고, 태양상은 우상의 한 종류일 뿐이다.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 성읍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이다(지리 시간이라면 이것이 정답이었지만).

4. 이스라엘이 살육을 당하게 하되 하필이면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까(4)?

우상의 무능력을 조롱하는 것: 살육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지만 하필,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은 무능한 우상에 대한 조롱이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땅이 사막이 되고 황무하게 된다(6)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더라?

가장 가까운 것이 5:11, 6:14: 무수히 많다.

(황무케) 레 26:32, 33, 34, 35, 사 1:7, 3:26, 5:6, 13:9, 24:1, 3, 42:15, 49:8, 렘 2:15, 4:26, 6:8, 12:10, 22:5, 25:9...

(사막으로) 렘 50:12, 51:43,

(황폐케) 레 26:31, 렘 44:6.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 주셨던 땅(겔 20:6)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다.

6. 이스라엘이 살육을 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증거는 무엇인가?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하는 것(8):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될 자를 남겨두겠다는 것은 끝장을 내겠다는 뜻이 아니란 증거다. 노아, 롯,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창 19:17-18)이 그런 예다.

7.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도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함께 징계를 받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 간다. 그런 징계에서 풀려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요인이 이들에게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9), 과거의 죄를 한탄하는 것(회개, 9):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이런 징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사람이 회복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믿음을 고백하기(9) 전에 이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8)을 깨달아야 한다.

8.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손님을 불러 모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에스겔의 이 행동은 장사꾼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슬퍼함(오호라~): 사람의 주목을 끄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비극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을 것이다.

9. 이스라엘 족속의 시체가 즐비한 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그곳이 바로 너의 시체가 던져질 곳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꼭 해야 할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사야(므낫세의 악정 때), 예레미야(요시야의 통치시절)를 보냈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었으니 독하다, 독해!

에스겔 7 장

1. 4-5장의 대상은 예루살렘, 6장은 이스라엘 산(산과 작은 산, 시내와 골짜기)이 대상이었는데 7장은 무엇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땅(2): 가나안 땅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주변 산악지대를 거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

2.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것이었고(창 3:19), 온 인류가 범죄했을 때(= 노아의 때)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창 6:3),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셨다(출 32:10). 이제 같은 뜻으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네 번의 경우에서 범죄한 것 외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말났다(2, 3, 6): 그러면서도 완전하게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를 남기든지, 불러내든지, 뜻을 풀이키시든지 어떻게든 끝장을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고 하신다(요 19:30, 계 21:6)

3. ‘말났다’고 해놓고(2) ‘죽문하고 보응하리라’고 하실까(3)?

히브리말의 특성이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났다’는 말은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뜻이다.

4. 하나님도 이제는 단호하다. 절대로 눈 감아 주거나 봐주지도 않을 것이란 점을 어떤 말로 강조하는가?

행위대로(4, 8, 9): 지금까지는 참고 용서해주었지만 이제는 값아보겠다(가르다)는 말이다. 순한 선생님이 매를 들면 무서운 선생님보다 더 무섭다.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출 34:6)이시지만 그런 분일수록 화를 내면 더 무섭다. (참고) 있을 때 잘 해! (말조 속의 참고는 參考가 아니라, 인내란 뜻이다)

5. 참고 참았던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어떤 재앙이 내릴까?

비상한 재앙(5): 다른 역본에는 ‘유일한 재앙’, ‘들어본 적이 없는 재앙’으로 번역되었다. 유일무이한 재앙,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재앙이니 오죽하겠는가! 끝장을 내고 말 재앙이다(6)

6.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요란한 날이 될 것이라고 하니(9) 어떤 자들은 착각을 하기도 한다. 무슨 착각?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9): 산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날은 요란한 날이 될 거라니까 신이 나서 뛰노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니까!

7.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연만물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기에 가장 나쁜(?) 방법은 무엇일까?

심판을 통해서(8-9): 행위대로 심판하거나 벌하여 그것이 여호와께서 치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꼭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느냐 말이다.

8. 몽둥이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되나? 몽둥이가 변하여 꽃나무가 되나? 좋겠네!

몽둥이가 제철을 만났다는 뜻: 바로 뒤의 ‘교만이 싹 났도다’와 같은 뜻이다(병행 대구법: 같은 의미를 반복함). 꽃이 핀다는 것은 한창 좋은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은가? 문제는 교만이 싹이 나서 멋진 몽둥이가 되었다. 이제 맞아 죽을 일만 남았다(11)

9. 집을 사거나 밭을 사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다. 반대로 땅이나 집을 파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그런데 사고팔아도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기뻐할 겨를도, 슬퍼할 겨를도 없다: 곧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경고다. 이스라엘은 재산을 축적하거나 투기용으로 사고파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참고해야 한다.

10.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만 있으면 50년 후에는 팔아먹은 것도 돌아온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기 때문(13):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회년이 돌아와도 도리가 없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회년이 아무리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죄 때문에(=악한 생활로) 스스로의 힘도 없고, 회년도 힘이 없고... 최악이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린, 버림받은 불쌍한 모습이다.

11.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나팔을 불고 온갖 것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 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14): 나팔을 분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경고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사람이 있어야지!

12.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온갖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여기서의 무엇이 심판의 도구인가?

칼(외적), 온역과 기근(자연재해):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폭탄을 비가 오듯이 퍼부어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수가 있다. 그러니 바벨론의 칼이 아무리 잔혹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버리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 간신히 재난을 피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손에는 힘이 없고 무릎은 물처럼 힘이 없다(어떤 번역은 물이 흐른다). 최악이다.

14.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다: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 관습으로 성경이 금하는 짓이다(레 21:5, 신 14:1). 아직도 정신을 털 차렸다. 아니, 은과 금을 더럽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혐오하게 된 것이지만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메고 운반해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혼이 나는 것처럼!

오예(汚穢): 지저분하고 더러움

15.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걸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다. 무엇까지(어디까지) 내어버리시는가?

내 은밀한 처소(22, 24): 지성소를 가리킨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나아갈 수 있었던 곳마저 이방인의 손에 더럽히도록 얼굴을 돌리셨다.

16. 쇠사슬을 만드는 것 역시 상징이다. 어디다 쓰려고?

포로로 잡혀갈 때 쓰일 것: 특별히 용도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죄와 강포가 가득하여(23) 이방인이 이끈다면(24) 달리 무슨 다른 용도가 있겠는가! 쇠사슬에 매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강이 없는 것(25)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셈이다.

17. 양피(소) 없는 찢빵은 밀가루 떡이라도 있다. 이스라엘에 있기는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을 찾아보자.

묵시가 없는 선지자, 율법이 없는 제사장, 모략이 없는 장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무얼 가르칠까? 백성을 지도해야 할 장로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백성은 어떻게 되나?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다(사 3:4). 애통하는 왕, 놀라기만 하는 방백, 떨기만 하는 손도 있으나마나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모든 것이 있으나마나가 된다.

에스겔 8 장

1. 계시를 받은 날이 6년 6월 5일이라는데 기준이 뭘까?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힘(1:2, 바벨론의 2차 침공): 5년 4월 5일에 첫 환상을 보았으니 1년 2개월 만이다. 바벨론의 3차 침공,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5년 전이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의 손에 죽고, 뒤를 여호야하스는 석 달 만에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바로의 꼭두각시가 된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항복한 다음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서자 다시 침공을 받게 된다. 백성들이 다급하게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세운 여호야킨도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다. 얼마 후 시드기야도 친애굽으로 기울었다가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 완전히 멸망되고 만다.

2. 하나님의 영광스런 모습을 표현할 때 흔히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같은(2, 3)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장 비슷한 것으로 비유하다보니 이런 표현을 자주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은 1장의 환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온다.

3. 이미 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얼까?

또 견디기 어려운 일을 시키시려고? 이런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장에서 환상을 본 후 소명을 받고(1-3장), 네 가지 징조를 행동으로 보여 주고(4-5장), 심판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6-7장). 8장부터 11장까지 연속된 심판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된다.

4.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떤 모습으로 이동시키셨는가?

머리털을 잡고 옮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들어 옮기셨다. 아무리 환상이라도 해도 좀 근사한 방법으로 옮기시면 안 되나?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걸 따질 형편이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모습: 한 줌 안에 드는 가늘고 긴 물건의 수량

5. 안뜰이 어떤 곳이기에 여기에 우상이 있는가?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운 것은 모략이다(왕하 21:7). 요시야가 철어버렸으나(왕하 23:6) 곧 다시 세워진 모양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인데(출 25:8, 22) 이제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 이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것이다.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 아무리 인내심이 크신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

6. 북향한 문, 북편, 제단문 어귀 북편(3-5)은 대체로 같은 곳을 가리키는 듯하다.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하던 곳인가(레 1:11)?

제물을 잡던 곳: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장소가 번제단의 북편이다. 여기에 우상을 세우고 섬겼다. 쳐다보기조차 역겹겠지만 선지자는 그 장소에 이르러 그것들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기 위함이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 상처받기 쉽다고 적당히 하라고 충고하는 지혜로운 선배도 있더라! 멀리 떨어져 있어 야 편하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셈이다.

7.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나,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다(6): 백성들이 그렇게 힘이 있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것 아닌가?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사랑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시로 만들어주신 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사랑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으셨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8. 문이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지 왜 구멍이 있는 답을 열고 들어가는가?

아마도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9):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너머에 비밀스런 부분이 있다는 상징일 것이다. 벽면에 그려진 우상(10)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다. 이런 비밀스럽고 내밀한 곳에서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12). 하나님께서 모를 줄 알고?

9. 각양 곤충이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들'이다(레 11:43). 바로 뒤의 가증한 짐승이나 우상과 같은 종류다.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지 다음 상황을 참고해서 짐작해 보자. 선지자들(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쳤다.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싸우다가 유다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애굽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나 침입을 받고 망해버렸다.

아마도 애굽의 우상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 애굽에서는 기어다니는 것들조차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무렵의 왕들 중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친애굽으로 기울었다.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진다(출 24:9, 민 11:16, 24-25).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던 사람이다(왕하 22 장). 그 아들들은 아히감(왕하 22:12), 엘라사(렘 29:3), 그마랴(렘 36:10-12)로 다 유명한 자들이었으니 야아사냐도 그랬을 것이다.

10.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는 말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이유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6).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징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11. 에스겔이 성전에서 본 우상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가?

1) 투기의 우상(5) 2) 벽에 그려진 우상(10) 3) 담무스(바벨론의 신) 4) 태양신(애굽의 신) 이만하면 있어야 할 우상은 거의 다 있는 셈 아닐까?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었을까? 출애굽 때 조상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2).

12. 양심은 있네! 여호와와 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다니!

성전이 동향이니(출 38:13-15) 태양을 경배하려면 여호와와 전을 등질 수밖에 없다!

13. 나뭇가지를 코 앞에 두는 것이 무슨 행위일까?

태양을 숭배하는 자세겠지! 정확수 떠놓고 비는 것, 명태를 걸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

14.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가증한(13, 15) 이유가 무엇일까?

우상을 숭배하는 위치가 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16) 우상이야 그 놈이 그 놈이지 다를 바가 있을까? 문제는 성전 뜰에 우상을 세운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는 여호와와 성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였다.

15. 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것: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든가?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은 그래도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상태는 무관심한 상태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에스겔 9 장

1.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란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천사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인간세상을 돌보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마 18:10, 히 1:14, 계 7:1-4).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출 12:23, 삼하 24:10-17, 왕하 19:35-37). 그 천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해하는 일을 맡았다(마 13:40-42).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 꼭 굶아야 되나? 그냥 버리는 일은 없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게 중관지대는 없다.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든지.

2.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얘기하듯이 자근자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감정이 격하신 탓(?)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웃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장난이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매를 조금 드는 시늉만 하더라도 표정은 엄해야 한다.

3. 2절의 '그 중에'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다. 따라서 심판을 행하는 천사의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도 몇 명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계시록을 고려해서 7명: 6명이니 7명이니 해서 싸울 일은 절대로 아니다. 단지 이런 저런 가능성이 있을 때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속 4:10, 계 15:6) 생각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더구나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하니(창 2:2, 3, 출 12:15...) 하니까(창 2:2, 3, 출 12:15...)

4. 성전에 다른 문은 없나? 왜 선지자도 북문으로 들어가고(8:14) 심판하는 여섯 사람도 북향한 외문 길로 올라가까?

그곳이 우상을 세운 곳,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곳이니 심판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예레미야의 계시에 따르면 북방에서 외적이 쳐들어오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우상을 세운 위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5. 잉크를 다루면 손이나 옷에 온통 잉크를 묻히기 마련이다. 가는 베옷(=세마포)을 입고 먹 그릇을 차는 것은 옷을 버리기 쉬운데?

세마포는 순결,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사장들이나 계시록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

6. 심판을 행할 천사들이 하필이면 돛 제단 곁에 모였을까?

제단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던 곳이다. 길을 열어 두었음에도 그 길로 오지 않으면 제단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된다.

7.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도 없다. 볼 수도 알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보았다고 말해야 하나,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하나?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8.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4):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이런 자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말이다.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갈 때 한 쪽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고통스러워하던 성도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9. '먹으로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의 원조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행위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유월절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출 12:23): 동일한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계 7:1-8). 먹이든, 인이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케 하신 것(창 4:15)은 외견상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일시적이다, 즉 영원한 죽음을 면케 하는 것(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벗어나지 못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10.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은 지성소이다. 그런데 왜 문지방(=아마도 성소의 입구)으로 납시었는가?

일단은 천사들로 하여금 명을 내리시기 위함이지만 굳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다. 아마도 안방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떠나시기 위함인 것 같다(8:6, 10:18).

11.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하는 천사들의 눈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 (남자와 여자),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무엇만 구분이 되는가?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애굽을 치던 천사의 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만 구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행 4:12).

12.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던데(벧후 3:7, 12, 계 18:8) 혹시 성도들도 그 불에 타죽는 일은 없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다 하신 후에 이루어진다(5절, 그 뒤를 쫓아): 성도들을 보

호하는 먹 그릇을 든 천사보다 심판하는 천사가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

13.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성전 앞 늪은이(6):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8:16)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로들과 제사장을 포함하는 말이다. 심판이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데서,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을 자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목사, 장로라고? 큰 복이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라면 제일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된다(벧전 4:17).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망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먼저 망한 것처럼!

14.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민 19:11). 그런데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다: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에도 가까이 말라고 하셨는데(레 21:11),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떠났을 뿐 아니라 뒤도 돌아보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5.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나누어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애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애통함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노릇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 롯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창 18:23-33),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출 32:11-14, 31-35), 다니엘의 기도(단 9:3-19), 그리스도의 기도(롬 8:34),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롬 1:9, 엡 1:16-19).

16. 이스라엘과 유다 쪽속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단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애굽이 그렇게 철저히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참 불행이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에스겔 10 장

1.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에 있는 '납보석 깔기도 하고 보좌 형상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1, 1:26)?

하나님: 보좌 형상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친히 계시를 주셨다는 뜻이다.

2. 가는 벼웃 입은 사람의 말은 일이 9장에서는 무엇이었는데(9:2-3, 11)? 그런데 지금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의 이마에 표하는 일, 여기서는 솥불로 사르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구원도 행하고 심판도 행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다.

3. 바퀴 속에 웬 솥불이? 안 뜨겁나? 손으로 가득히 움켜잡아도 괜찮게? 뜨겁지 않은 불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태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은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임한다는 점이다: 굳이 대답을 해야 한다면 '바퀴 속의 솥불'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솥불이란 뜻이고, '안 뜨거운 솥불'이야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모세의 불(출 3:2)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천사의 손을 태우지는 않으나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솥불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불태운 하나님의 불(레 10:2, 5)이다.

4. 불이 다른 곳에는 없나? 그룹과 바퀴 사이에 있는 불이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심판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판의 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

5. 왕이 행차하면 혼자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차는 어떠한가?

풀에 가득한 구름, 영화로운 광채(=무지개 형상 1:28), 그룹들의 날개 소리: 곧 성전을 떠나실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에 임하셔서 심판을 명하시는 모습은 여전히 영광스런 모습이다. 우상과 대조적으로 위엄에 가득한 모습으로 심판을 명하신다.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으니...

6.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데 이들을 심판하시는 명령에 천사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한다. 가는 벼웃 입은 자, 불을 내주는 그룹, 날개 밑의 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천사보다 더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7. 9-10절은 1:15-16과 같은 내용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어떤 모습에 가장 눈이 끌리는가?

차이: 생물 ↔ 그룹(에루빔), 결 땅 위 ↔ 결: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넷이 한결 같은데: 독립된 개체로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한결 같은 모습은 온 몸의 지체가 한 머리에 속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빌 4:2)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텐데, 분란이 일어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8. 네 그룹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보자. 각자 따로 따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움직이는가(11)?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기 방향으로 똑바로: 한 그룹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면 다른 세 그룹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다. 일을 맡은 사람이 앞장서면 다른 이는 그대로 따라주는 형국이다. 뜻이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일은 없다!

9. 머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이 그룹들에게 없을가?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12)은 온 몸과 지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을 의미한다: 12절을 참고하면 그룹과 바퀴는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머리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다.

10. 바퀴를 가리키는 두 종류의 말이 사용되었다. 6절의 '바퀴들'은 '라갈갈'이고 '바퀴'는 '오판'(복수형은 오펀)이다. 13절에서 '바퀴들'은 '오펀'('오판'의 복수형)이고, '도는 것'은 '하갈갈'이다(←어원은 가탈). '라갈갈'이나 '오펀'이 구분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려면 떠오르는 지명이 있는가?

길갈: 광야의 40년 방향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곳이다. 전쟁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쳐 주셨다. 거기서 그들이 행한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뜻이다(수 5:9). 굴러가다 '가탈'에서 나온 지명이다.

11. 그룹(에루빔)은 사방의 얼굴이 다르다. 14절은 1:10의 반복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소의 얼굴을 그룹의 첫 면이라고 한 점과 바라보는 방향과 소개하는 순서가 다르다: 그룹의 얼굴이 소라는 것은 그룹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봉사한다고 해도 사람만큼 귀한 존재는 아니라는 뜻이다. 얼굴의 순서가 다른 것은 에스겔이 위치를 옮겨서 본 것과 소개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앞우좌뒤(동남북서), 2, 앞은 사람,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뒤는 독수리) 순서였는데 여기서는 회전(남동북서), U, 첫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 세째는 사자, 네째는 독수리)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생물은 각 영역의 우두머리로 지혜, 용맹, 성실, 민첩함 등을 상징하는 셈이다.

12. 그룹들이 왜 올라가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뜻이다(18):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하나님 곁에서 수종 드는 그룹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다.

13. 그룹과 바퀴의 움직임은 1:19-21에 묘사된 대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혼연일체, 일사불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닐까?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14. 드디어 여호와와 영광이 떠나신다. 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다시 동문으로! 이걸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아무런 내색도 못하지 않았을까? 다만, 천천히 떠나시는 것이 그래도 위안이 된다. 돌아오시겠지(43:1-9)!

15. 하나님의 영광과 그룹들의 모습을 1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놓고 왜 여기서 또 반복할까?

장소가 바뀌었잖아!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분이냐 같은 분이더라는 생각 때문 아닐까? 성전에서 떠나신 그 분이 하늘나라 먼 곳으로 영영 가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 계시더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선포이다.

에스겔 11 장

1. 주의 신이 갈대아 땅에 있는 선지자를 들어 올려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으로 데려간 것이 8:3이다. 이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8장에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단락의 끝이 어디일까?

24절: 본 단락은 갈대아 땅(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본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다.

2. 여기 25인은 8:16절의 25인과 다른 사람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다르다: 우선 이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전자는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예컨대 현관) 우상을 섬겼으니 제사장 계열이고, 후자는 '여호와의 전 동문'에(예컨대 대문간) 서 있는 방백들이니 행정관료다. 종교지도자나 사회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다 불의하고 악한 것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최종 원인이다.

(8: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오 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 (11:1)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이십오 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3.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2절 =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 정작 심판의 대상인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문맥상으로 본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3) 문맥상으로는(4절도 참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뜻을 지녔으니 '평안하다, 심판이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그런 뜻이 되지?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거든 '집을 지으라'고 말했다(렘 29:5) 거기서 오래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의미로 '집 지을 때가 멀었다'고 했을 것이다. 자신들을 가마 안에 든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익어서 꺼낼 때까지 누가 함부로 손 댈 수 없다는 뜻 아닐까? 유대의 멸망을 꿰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으로 묘사한 것(렘 1:13)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기울어지는 가마가 아니라 똑바로 앉아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마라는 것이다.

4. 여호와의 신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한다(5). 부러운가?

특별한 사정, 정말 다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특히, 아브라함이나 야곱, 사사들, 엘리야) 나타나신 경우는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한 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경우도 거의 그렇다. 특별한 은혜를 주어야만 해결이 될 만큼 사정이 급한 경우에 처해있는 것이 부러운가? 평온한 때에 평소에 주신 은혜를 누리며 최선을 다할 것인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는 것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형편도 살펴볼 일이다.

5. 이스라엘이 살육을 했다고(6절)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살육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실제적인 살육을 뜻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살인을 말함 같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압제한 것에 대한 비유로 보는 것이 좋은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보자.

5절을 보면 마음의 악함을 책망하고, 7절의 언급도 상징적인 의미임이 분명하다. 반면에 지도자들의 그릇된 자신감으로 전쟁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6. 가마 속의 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백성들의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가마 속의 고기가 아니라'고 하신다. 그럼 어떤 고기?

고집어 낸 고기: 가마 속의 고기나 미리 고집어 낸 고기나 그게 그것이지 싶은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래 가마 속에 있으면 안전하지'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 본래 예루살렘은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별 수 없다.

7.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추방, 땅이 저주받는 것, 물, 언어의 혼란, 질병, 뱀, 이방인의 침입, 버려두는 것...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칼'이 임하게 하시겠단다.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침입(=9절의 '타국인의 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텐데 엉뚱하게 칼을 두려워하다니? 변경에서 국문하시겠다는 말은 적국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뜻이다(예 26:27-39, 신 28:63-65). 변경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이는 적국의 왕이다(렘 39:5). 이방인이 침입하고, 이방의 왕이 심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10), 아니 이런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8.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12)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다.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분을 아는 것이다.

9.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8:3-11:24)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 것을 보았다. 백성의 방백으로서 불의한 일에 앞장 선 사람이다(1).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선지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시작되었기 때문: 남은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당연한 의무이 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하나님께 그러시지 말라고 매어달리는 모세처럼(출 32:11-13)!

10. 15-21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자.

예루살렘 거민과 열방에 흩어진 자: 15절의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16절의 '열방에 흩어진 자'를 가리킨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이다.

11.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되게 하신 것이라(15)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라는 뜻이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느껴야 했었다.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찌 이럴까? 그만큼 두들겨 맞으면 정신이 풀만도 한데...

12.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16-20)?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20)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였던 말씀이다(출 20:2). 배신하고 징계를 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였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포로로 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역사의 새로운 해석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은 자는 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간 자는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13.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성소가 된다고 하실까?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거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구약 시대를 반영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할 수 있다(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다)는 뜻이다. 성소는 곧 하나님을 뜻한다.

14.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면 영원해야지 왜 잠깐이라고 하실까(16)?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잠깐 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70년이라고 하셨지만(렘 29:10, 대하 36:2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잠깐일 뿐이다.

15. 이스라엘 땅은 결국 누가 차지하는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점령할 이방인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백성들: 일단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다. 그들은 돌이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18), 하나님의 율례를 좇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20).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의 점령했다고 해도 결코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16.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돌이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일치한 마음과 새 신, 부드러운 마음(19): 예전에는(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에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여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롬 8:3).

17.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끝까지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은혜를 누릴 때에도 여전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거하게 된 것이 자신들이 잘 나서 그런 줄로 아는 인간들이다.

18.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 것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셈이다. 성소에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시는가?

성전 동문에서 성읍 동편 산(감람산)을 거쳐 갈대아로: 선지자가 갈대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갈대아에 오셨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시게 만든 고약한 자식들아!

에스겔 12 장

1. 문맥에 따르면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라는 말은 '너'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주어를 뒷 문장과 일치하도록 바꾸어 보자.

너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패역한 족속이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믿지 않고 경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다.

2.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

패역: 인류에 어긋나는 것이 패역인데 이것이 커지면 반역이 된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도 패역이라고 하면 될까? 반역보다 더 큰 죄인데? 패역이란 단어로는 아무래도 약하지만 그 이상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패역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다.

3. 에스겔이 이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까?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참고, 여기서 '이사하다'고 번역한 단어는 '달려가다'는 뜻이고, '성벽'은 일반적으로 집이나 침실의 '벽'을 가리킨다.)

질문: 왜 이사하는데? 왜 밤에 이사를 해? 아니, 왜 벽을 뚫고 포로처럼 나가?

대답: 장차 이스라엘이 이렇게 옮겨지게(달려가게) 될 것이다(10-15).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밤에 이사하는 것은 아마도 몰래 도망치는 것에 대한 상징일 것이다(참고, 왕하 25:1-4). 3절 앞부분 '인자야 ...이사하라'는 4-6절 a의 요약이고, 4절의 뒷부분 '저물 때에는... 같이 하라'는 것은 5-6a의 요약이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체를 간략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라서 중복처럼 보인다.

4.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으면(6) 어떻게 이동할 수 있나?

아마 넘어지고 엎어지겠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이동하라는 말이다. 자발적이거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셨다. 행구를 메고 가다가 넘어지면? 끌려가는 포로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5.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상인가?

비정상: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다. 선지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 선지자에게 자신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도 그래야 하는가? 모든 성도는 그럴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6. 환상을 보여주고 친히 해설까지 다 하는 것(10-15)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친절하실까?

이렇게 명백한 비유마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준다.

7. 예루살렘 왕(시드기야)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당할 일을 바벨론에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집을 짓고 살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일과 관련지어 보자(렘 29:1-23).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하는 셈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전히 패역한 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험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8. 이사를 밤중에 하는 이유를 12-14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몰래 도망치는 행위를 상징함: 훗날 시드기야가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도망치다가 추격해오는 바벨론 군사에게 사로잡힌다(왕하 25:1-6).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군사가 그를 추격하지만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고 칼을 빼들고 따라오는 이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군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9. 12절의 땅과 13절의 땅은 다른가?

같다: 안 보려던 땅을 결국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후일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두 눈을 뽀뽀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다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10.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15):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아야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이런 비극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비극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11. 왕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도 편찮을까?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의 예언이니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겠는가?

12. 하나님은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일부를 남겨서 약속을 완수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셨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말한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가 바로 그런 예이다. 에스겔이 말하는 남은 자는 역할이 좀 다르네?

자신들이 얼마나 가증한 짓을 했는지 이방인에게 증언하게 함(16): 단순하게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정당함을 증거해야 한다.

13.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게 어떤 모습인가?

일종의 연기를 해야 하는 셈: 떨떨 떨며 음식을 먹으면서 흘리기도 하고, 쏟기도 해야 한다.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온갖 연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참 힘들겠다!

14. 이스라엘이 떨면서 식물(食物)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땅이 황무하게 됨(19):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양식이 떨어짐을 의미하기보다는 외적의 침입을 가리킨다. 쟁과 쟁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황무해진 것은 이스라엘의 패역 때문이다. 꼭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나?

15.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고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22).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고 오늘날에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렘 5:12, 17:15)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롬 2:4-5, 벰후 3:8-9, 렘 15:15)이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한다. 지금도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은 쉽게, 즉시 답변을 준다. 이것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다(24).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았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아들, 땅)이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한 평생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자.

16.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거듭 거듭(1, 8, 17, 21, 26) 묵시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속히 응할 것이라(28)고 하실까?

답답한 탓에 체면 불구하고 말씀하신다: 점잖은 분이 일마다 친히 나서서 간섭할 때는 많이 다급해진 셈이다. 이제는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도 없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행하겠다는 선언이다.

에스겔 13 장

1.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2)도 선지자인가?

그렇다: 구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도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가?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더러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속 13:2에 한 번 나온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지자가 거짓을 말한다'는 식이다(왕상 22:22, 사 9:15, 렘 14:14).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직분보다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닐까?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자, 선지자도 아닌 자를 굳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벌을 받을 때는 더 엄중한 벌을 받게 된다는 뜻도 된다. 자칭 목사나, 영터리 목사도 심판 날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2. 오늘날에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3)가 있을까?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과는 상관없는 설교라기보다는 연설이나 강연을 하는 목사가 그런 경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때로는 고약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3. 여우는 교활하고 음험하게 잔꾀만 부리는 인간을 가리킨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아 2:15)이나, 예수께서 해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것(눅 13:31-32)도 그런 의미이다. 13장 전체를 요약해서 본다면 도대체 선지자들이 무얼 어떻게 했길래 여우라고 부르는 걸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노렸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4. 선지자가 왜 전쟁을 방비하고 성을 수축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전쟁을 방비하고 성을 수축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여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사탄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기에 전쟁을 방비해야(5) 하는가?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얼하고 있느냐 말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겠지만 배역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의 날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날은 대부분 심판의 날이다.

6. 거짓 선지자들도 뭔가 본 것이 있으니 예언을 한 것 아니겠는가! 무엇을 보았을까?

허탄한(거짓된) 묵시와 거짓된 점괘: 요는 그들이 본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보겠다고 하다가 허탄한 것(2-3,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 생각대로)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며 열심을 낸 결과 백성을 오도했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7.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다. 실제로 이런 자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점쟁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7)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무슨 사업을 해야 하고, 무슨 학교에 원서를 내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어떤 대학에는 합격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는 식으로 응답을 주실까? 성경에는 그런 식의 응답이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응답이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유럽으로 향할 때에도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라는 지시는 없었다. 바나바와 싸우다가 행로가 바뀌기도 했고, 성령이 막아서 가려던 곳으로 가지 못하기도 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며 한발씩 내디뎠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전해졌다.

8.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외국에 가서 살면 되잖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망명이나 이민 같은 방법이 전혀 없는 중세의 '파문'과 같은 의미이다: 말하자면 천국에서 내어쫓기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는 끔찍한 욕이 되고 '암미(=내 백성이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이름이다.

9.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알아보는가?

징계후(9, 14, 21, 23): 그 때에는 알아도 대부분의 경우에 소용이 없을 때다. 후회만 막심한 때일 가능성이 크다. 느밋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더라(대하 33:10-13). 그나마 다행이다.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았으니...

10. 선지자들이 행한 거짓말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렘 25:8-11)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는데도(렘 29:10) 곧 돌아올 것이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렘 28:1-4)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만행이다.

11. 선지자가 성벽을 수축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더니(5) 이제는 백성들이 담을 쌓는 일을 도우는 것(10)을 책망하시는가?

선지자가 수축해야 할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흑이(=백성들이) 담을 쌓는 것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짓된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백성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를 때 선지자는 회칠을 하면서 돕고 있다. 곧 무너져버릴 것인데도...

12. 올해(2008년)는 기상대 수난의 해이다. 오죽하면 기상청장이 다시는 '인력이나 재원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언했을까! 그래도 별 수 없을 텐데...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이 쏟아지는 호우에 기상대가 쪼려패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스라엘과 선지자들이 애써 노력한 것도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폭풍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11). 이 말씀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는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연의 위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 앞에 담을 쌓고 하얗게 칠이나 하고 있다니...!

13. 담이 무너지면 거기에 칠한 회는 어떻게 되는가?

본전도 못 고지지: 선지자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냐는 책망이다. 차라리 그런 열심은 없느니 못하다. 거짓말하기에 바쁜 지도자보다는 게으른 지도자가 낫다.

14. 오늘 죽을 것을 모르고 여러 해 쓸 양식을 쌓는 것은(눅 12:19-21)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무너질 담에 회칠하는 것(12)도 마찬가지다. 오늘 죽을 지, 내일 담이 무너질 지 미리 알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14):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눅 12:21).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의 어떤 노력도 무의미한 것이다. 양식을 쌓는 일이 잘못이 아니고 담에 회칠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마 7:26)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걱정이 없다.

15.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진(15)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목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16)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

바벨론 포로들에게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렘 29:9, 15): 현 상태는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는 상태, 즉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이전의 거짓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없어진 상태이니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상태라고 해야겠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16.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었네! 구약시대에 여자들도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

될 수 있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출 15:20), 사사 드보라(삿 4:4), 홀다(왕하 22:14-20)가 있었다. 여자는 잠잠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아직도 강한 편이다. 바울의 그 말이 반드시 그런 뜻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여기서도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16. 여선지자들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었는데 무슨 도구를 사용하였는가?

방석(일종의 부적, 20절 참고)과 수권(18):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모양이다. 방석은 자신이 사용했고 수권은 손님들에게 쓰게 한 모양인데 한 때 코미디에 등장했던 부채도사처럼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모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런 인위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런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여 뭔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알맹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외양에 신경을 쓰는 법이다. 교회의 외형이 점점 화려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17.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요즈음 말로 하면 뭘까?

복채: 어떤 점쟁이는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 붙여놨단다. 복채를 내지 않아도 된단다. 대신, 감사헌금을 한 다냐? 정신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으려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것은 단 돈 몇 천원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생계 수단으로 목사 노릇하는 것은 어떨까?

18. 새가 울무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멸절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와 같다. 어떻게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을까? 꼼짝 않고 등지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될까?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한 구절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그물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그물에 걸리는 법이다.

19. 방석이 떨어져 나가고 수권이 찢어지면 점쟁이는 어떻게 되나? 부채도사가 부채를 다 잃어버리면?

손님도 떨어지겠지: 도구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거짓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으니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점쟁이의 불행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이다.

20. 22절을 근거로 거짓을 예언하는 부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돈해 보자.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자를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행하는 것이다. 멸절한 성도를 불안케 하는 것이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부추기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에스겔 14 장

1. 에스겔이 보기에겐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 선지자를 찾아 왔는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는 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에게나 갈 것이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오는가?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여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아무 신이든지 부지런히 믿어 두면 그 중에 혹시 제대로 된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생활비만 노리고 함께 하는 아내인 셈이다. 4절의 '죄악의 거치는 것'은 곧 우상이다.

2.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응답하신다(4, 7) 직접 응답하시는 않지만(3)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신다. 다만 그들에게는 응답이 복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점이 다르다(그런 의미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답을 해도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대적이 되며 놀라움과 감계(=sign, 경고의 표시, 鑑戒: 거울 감, 계울 계)와 속담거리(바보짓을 해서 속담거리가 된다, 예, 刻舟求劍)가 되게 하신다(8).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응답(?)을 받는다(4절의 '우상의 많은 대로').

3.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5절의 후반절이 그 대답이 되겠는데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아무래도 개역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어지는 6절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아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4. 6절을 인용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행동까지 변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6절의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지, 별개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행동까지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굳이 6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5. 선지자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선지자(실상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믿어선 안 된다: 자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9).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7)도 위험하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범죄자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 선지자가 유혹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9) 선지자의 죄악을 묻는 것(10)은 곤란하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유혹을 받도록 버려두셨다는 뜻이다(참고, 롬 1:24, 26, 28).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유혹을 받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선지자를 버려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자체가 엄청난 징계다.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복되다.

7. 심판을 초래하는 말씀을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11): 부모가 아무리 징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버리기 위험은 아니다. 자식을 괴롭히기 위험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8. 왜 하필이면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시는 걸까?

악한 시대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본다면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현재 이스라엘의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들이 온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다. 그들의 자녀도 혜택이 없으니(16, 18, 20)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랴?

9.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여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13절의 '어느 나라...' 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네?

가정해서 말하는 어느 나라에는 이런 재앙이 한 가지만 내려도 대책이 없는데 예루살렘에는 네 가지 중한 벌을 한꺼번에 쏟는다는 말이다(21).

10.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나운 짐승을 보내면 땅이 황무케 되는가(15-16)?

짐승을 보내면 적막해진다(15): 땅이 황무케 되는 것은 별도의 조치다: 짐승 때문에 땅이 황무케 되는 것이 아니다.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곳에 짐승이 번성하는 것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셈이다.

11. '알아 이 땅에 통행하라? 칼을 보고 돌아다니란다(17).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짐승이고 사람이고 걸리면 죽는 거지: 칼을 의인화시킨 표현인데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22절의 '그 가운데 면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끌려오는 걸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온 사람들이다(1, 2차 포로). 아직도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후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에서 죽지 않고 소위 3차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곧 포로에서 놓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꿈 깨라'는 말이다.

13.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파괴되도록 버려두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

진 사람은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끌려온 자들의 행동과 소위에서(22)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14. 본 장에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왜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가?

여섯 번(11, 14, 16, 18, 20, 23)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떨어져서 안 되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자칫하면 뒷감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에스겔 15 장

1.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인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창 49:22, 신 32:32, 시 80:8-16, 사 5:1-7, 렘 2:21, 호 10:1, 요 15:1-7) 복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에 가장 좋다. 포도를 과일의 왕이라고 한다. 주식으로 삼아도 되는 아마도 유일한 과일이 아닐까 싶다. 밥을 먹지 않고 포도만 먹어도 지장이 없단다. 열매만 잘 맺으면 어떤 나무보다 더 낫다.

열매만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눅 13:6-7, 요 15:6) 꽃도 나무도 별 소용이 없다. 징계 받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없다.

2. 포도나무 중에서도 더 더욱 무가치한 포도나무는 어떤 것일까?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2) 삼림에서 쪽죽 뻗어 올라가는 나무와 비교할 때 열매도 없는 것이 이리 저리 엉켜 있다면 그게 무슨 팔이냐는 것이다. 포도원에서 기르는 포도나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가치한데 하물며 수풀 속에 제 멋대로 자란 들포도나무는 어떻겠느냐(사 5:4)?

3. 아예 열매 얘기는 하지도 않네?

얘기할 권덕지/권더기/도 없다는 모양이다.

4. 목재로서 포도나무는 무엇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가?

그릇을 걸 못: 못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고하게 박는 못이 아니라 겨우 그릇 아니면 옷이나 걸어 둘 걸이(hanger)도 못 만든단다. 단단하기만 하면 조그마한 못을 만들 수 있으면만 그것도 안 된다. 아무리 쓸모가 없어도 잘 살펴보면 뭔가 쓰임새를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못하다. 겨우 화목에라도 쓸려고 했더니 이미 양쪽과 가운데가 타버렸다. 이제는 화목으로도 가치가 없다.

5.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열매가 없어서 불에 던져져서) 양 끝과 가운데가 타버린 가지(4) 불에 타지 않아도 소용이 없는 가지가 이 모양이니 어디에 쓰겠는가(5)?

6.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버림을 의미한다(신 31:18, 대하 29:6). '얼굴을 그들에게 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 본문에서는 이 말이 의역되었다.

축복이기도 하고(민 6:26, 시 13:1) 심판이기도(렘 21:10, 뱀전 3:12) 하다. 7절의 '대적하면'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면'이란 말의 의역이다.

에스겔 16 장

1. 근본을 따지는 것은 근본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별 수 없고 근본이 좋다면 아무리 못 해도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금 잘하면 '역시 양반 출신은 달라', 좀 잘 못하면 '양반도 그럴 수 있지' 이른다. 그래서 출신이 중요하단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이란 무슨 의미일까?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원주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고른 땅이다(20:6).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에 젖은 가나안 땅은 마땅히 멸해야 하는 땅이다(창 15:16, 신 20:16, 민 33:52).

2.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모리 사람, 혹은 헷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3)? 국제결혼을 했을까?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7 족속(원주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은 멸망 받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다.

3. 출생 때의 이스라엘(4-5)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돌에 버려진 짐승이나 다름없음: 짐승은 태어난 채로 버려두어도 스스로 일어나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 누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녀를 주워서 곱게 키웠더니...

고대 근동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식으로 버려두기도 했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보여준다.

4.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갓 태어난 피투성이를 발견했는데 울며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제발 살아다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제발 살어나거라'는 뜻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주위다가 멋진 처녀로 키웠더니...

5. '내가 너로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다'는 것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잘 자라게 하였다는 말이다. 그렇게 키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벌거벗음(7): 여자 타잔이 되었나보다. 신체적으로는 잘 자라났지만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유방이 뚜렷하다'는 표현은 좀 노골적이다. 이럴 때 우리 조상들은 완곡하게 '말(馬)만 하다'고 말했다. 결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6. 무슨 맹세와 언약일까(8)?

사랑의 맹세와 언약: '사랑스러운 때'라는 말은 사랑을 해야 할 때, 즉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너와 혼인 언약을 했다는 말이다.

7. 천지를 모르고 날뛰던 야생마와 다를 바 없던 처녀를 완전하게 왕후로 만들었다(9-13).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를 염두에 둔 표현일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다(다윗과 솔로몬 시대): 알몸둥이 처녀에게, 입히고 장식한 모든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베풀어진 모든 이적을 상징하는 셈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8.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져나갈 때(14)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옳은가?

지난날의 고난(4-6, 22) 혹은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준 그 분: 변화된 자기 모습에 심취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영 죽을 인생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사람을 좀 골라가면서 하면 덜 추할 텐데 이스라엘은 어떤가?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냐(15):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겔레'라고 한다. 왕후의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쁜 짓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마무신이면 어때?' 과연 그럴까?

10. 공부하라고 돈을 보냈더니 방탕한 짓을 하느라고 다 써버렸다.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고생하며 아끼고 아끼던 돈이라면 배신감은 더 크다. 16-19절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실 배신감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숭배함: 화려한 의복으로 산당을 꾸미고, 금, 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수놓은 옷은 우상에게 입히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향을 우상 앞에 베풀었다.

11. 음행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인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우상이길래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어떤 우상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녀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암몬 족속의 신, 밀곰(몰렉)을 섬겼다는 뜻이다. 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참고> 몰렉은 소아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이방신인데 성경에는 두 가지 실례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해를 받는 위기에 부딪치게 되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왕하 16:3), 또 유다와 므낫세도 앗수르의 위협을 받은 때(역대하 33:11 이하)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왕하 21:6). 소아 희생의 이교적 관습은 예언자와(렘 19:5 32:35, 겔 16:21, 20:31, 23:37), 신명기 기자에 의하여 신랄한 배격을 받았고(신 18:10), 또 요시야는 신명기의 정신에 따라 이것을 일시 종식시켰다(왕하 23:10).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 신을 숭배하는 암몬 족속을 가까이 하기 전에 거기 아이를 바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율법이 정해져 있었다(레 18:21, 20:15).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만년에 사랑하는 암몬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이 우상신을 받아들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힌놈의 아를 골짜기 도벳 산당에서 계속하여 어린 이 희생이 행해졌다(시 106:38, 렘 7:31, 19:4,5, 겔 16:21, 23:37, 39, 사 30:33).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가증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왕하 17:17, 겔 23:37).

12.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에는 말도 우아하고 정중하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은 완전히 노골적이다(23-26). 그런 표현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다리를 벌려(25) 하체가 큰(26): 둘 다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자가 다리를 벌린다? 남자의 물건이 크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아?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멸시당할 짓을 왜 하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떨어뜨렸는가! 왕후의 위치에서 창기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것도 질이 아주 낮은 창기로!

13. 이스라엘이 한 때는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블레셋의 세력에 눌러 지냈다(27). 그 정도 고난을 받을 때 정신 차려야 했는데 어떻게 블레셋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가?

앗수르를 의지하고(28) 갈대아(바벨론)의 도움을 구했다(29):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온갖 주변의 강대국에게 손을 내밀던 것을 비난하는 말이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앗수르의 우상을 모방해 숭배하기도 했다(왕하 16:10-16, 대하 28:22-25). 히스기야 시대에는 친바벨론 정책(왕하 20:12-19, 사 39:1-8)을 택하기도 했다.

14.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약하다고(30)?

잘못을 깨닫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이 약한 것이다. 열심히 정욕대로 사는 것은 마음이 약한 탓이다. 도독질 열심히 하는 것은 도망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쁜 짓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로 용감한 게 아니다.

15. 누를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는 것은 거리 곳곳마다 신전이나 사당을 짓는 행위에 대한 비유다. 그 곳은 창녀가 음행을 저지르는 장소다. 돈을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창녀는 돈이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음욕이 목적이었더라: 그야말로 창녀 생활을 즐기는 것 아니냐? 정말 나쁜 년이네!

16. 정상적인 창기는 화대나 선물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화대나 선물을 주면서 음행을 행한다. 왜 그러냐?

손님이 없기 때문이다(34): 아무리 창녀라도 여자로 보여야 손님이 찾아오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이런 여자는 싫단다.

17. 36절의 '누추한 것'은 '과소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데(우상을 숭배하는데) 온갖 재산을 과하다 싶을 만큼 갖다 바쳤다는 말이다. 심지어 무엇까지?

자녀의 목숨까지: 재산 털어먹은 것도 보통 죄가 아닌데 자식까지 죽였으니... 애초에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한 게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창조한 것이 모든 화의 근원인 셈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18.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할 때가 되면 누가 그것을 보게 되는가(37-41)?

모든 자: 사랑하던 자나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네 치부를 보게 될 것인데 특히 다른 여인들도(경고용?)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41). 온 동네 망신이다! 일을 저지를 때에는 몰래 저질렀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빼앗은 다윗이 자기 아내를 10명이나 빼앗길 때는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빼앗겼다!

19. 정든 자나 사랑하던 자나 미워하던 자(37)란 이스라엘과 관계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비유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든, 우호조약을 체결했든, 서로 대적했든 간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가?

파괴 혹은 파멸(38-41):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42). 동맹을 맺은 나라도 때가 되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심지어 사랑을 나누던 곳(39)마저 허물어버릴 것이다. 애초 그 사랑이란 게 믿을 게 못 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달려들어도 돈 떨어지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법이다. 믿을 곳은 아버지 집뿐이더라(돌아온 탕자 9).

20. 어렸을 때를 기억치 아니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은혜를 잊은 것을 의미함: 어릴 때란 민족이 시작되었던 때 곧, 출애굽 때를 가리킨다. 낳고 기르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것처럼 귀하게 길렀더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녀가 돼버렸다. 여자는 생리적인 욕구보다는 대체로 마음이 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단다. 그래서 바람이 나면 남편도, 자녀도 버리고 떠난단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상태인 셈이다.

21.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는 말을 우리 속담식으로 고치면 '그 어미에 그 딸'이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도 우리말식으로 쉽게 고쳐보자(45).

엄마(어니)가 그러더니 너도 그러는구나!

22.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소돔과 사마리아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다: 소돔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 타서 사라졌고 사마리아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민족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유다는 그보다 더 부패하였단다(47-48, 51). 설마? 아무리 유다가 부패했기로서니 소돔보다?

23. 사마리아가(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함) 왜 좌편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 보세요.

동쪽: 동쪽을 바라보면 좌편이 사마리가, 우편(동남쪽)이 소돔이다.

24. 유다가 형과 아우, 즉 소돔과 사마리아를 어떻게 의롭게 하였는가?

더욱 악하여(51-52): 악의 대명사로 불리던 소돔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질 만큼 유다가 악했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 절반밖에 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과 섞여버렸는데 더 악한 유다는 결국 살아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5. 악을 행할 때 소돔과 사마리아를 덜 부끄럽게 만들어준 유다가 이들이 회복될 때에도 도움이 된다. 유다가 어떻게 위로가 될까?

회복이 더딤으로(55): 회복의 순서를 보면 유다가 맨 나중이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골짜기로 들어와서 부끄러워 하는데 뒤를 보니까 따라오는 선수가 아직 하나 더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 잘 나가던 시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56) 이렇게 처지가 역전된 것은 음란과 가증한 일 때문이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26.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을 또 용서하신단다. 왜 용서하시는가?

자신의 언약 때문에(60):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세운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상들(아담, 아브라함과 족장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말한다.

에스겔 17 장

1. 무슨 수수께끼가 이렇게 복잡한가? 간단한 질문으로 정리해 보자.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가져갔는데 그게 제대로 자라겠냐?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제대로 나무가 자라겠냐?
2.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온다. 특징을 참고로 해서 당시의 누구를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술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12) 가지를 장사하는 땅 즉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하니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 다만 포도나무가 그를 향하여 뿌리와 가지를 뻗었다. 유다가 도움을 얻으려고 손을 내민 애굽을 가리킨다(15).
3. 독수리가 백향목 연한 가지를 자기 땅에 심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 땅의 종자를 큰 물 가에 심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포로로 잡아간 뒤에 남은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운 것(13) 실제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킨다.
4. 독수리가 심은 포도나무 가지는 마음껏 자라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자라는가?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6, 14) 독수리를 향하기는 하지만 그 독수리 아래에 있다. 주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정권을 가리킨다.
5. 독수리가 심은 나무는 결코 뿌리를 깊이 내려 튼튼하게 서지 못한다. 어느 정도로 허약한가?
뿌리를 뿜는데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필요하지 않다. 아이라도 능히 뿜을 수 있는 허약한 나무다. 독수리가 뿜을 수도 있고, 동풍에 마를 수도 있다.
6.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제사장의 신분으로 포로되어 갔다(12). 그 때 왕족 중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가 시드기야다.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강력히 권고했지만(렘 27:17, 사 30:1-7)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고 반역했다가(15, 렘 37:5)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자신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고 만다. 심지어 본문에서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17, 렘 37:5)고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시드기야는 왜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인생이 그런가봐: 사리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지 분간할 능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런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정말 드문 모양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7.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판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나 애굽을 섬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 형통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망한다고(15)?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렘 27:11)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는 뜻이다.
8.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행한 맹세와 언약을 어겼다(18).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나의 맹세,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실까(19)?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일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을 리가 없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지내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맹세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옳아 보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끼리 맹세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다. 아이들끼리 노는 일에 어른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대체로 옳지 않은 것처럼!
9. 선지자가 아무리 끔찍한 심판을 선언해도 결국에는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독수리가 심은 가지나 포도나무는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지만 주 여호와께서 심은 가지는 높이 자라서 무성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
다윗 = 백향목 꼭대기, 다윗의 후손 = 높은 새 가지, 십자가의 죽음(언약, 겸손, 낮음) = 연한 가지, 온 세상을 다스림 = 높고 빼어난 산위의 무성함(22-23)
10.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24절에서 찾는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사 11:9, 합 2:14) 바로가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것도, 이스라엘이 끝내 이런 징계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인 줄 알리다'.

에스겔 18 장

1.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출 20:5절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 하긴 오늘날에도 그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으니... 드나세 왕의 죄로 인해 그 후손들이 심판을 당한 일이나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갈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때문이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심판을 받을 뿐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4)

2. 속담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다. 강조하는 점만 옳지 한 발짝이라도 그 의도에서 벗어나면 틀리는 말이 되거나 해롭기도 하다. 연습삼아 해 보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좋지 못한 영향이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말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자포자기 하도록 만드는 점: 많은 아이들이 자신은 될성부른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노력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포기하게 하는 점에서 나쁜 속담이다. 우리 아버지가 저 모양인데 내게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3. 아버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쓸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기 때문'이란단. 이게 무슨 뜻인가?

연좌제는 능력 없는 사람이 쓰는 못된 장치다. 벌을 받지 않고 도망치는 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훗날이 두려워 싹을 자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시이저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도 항복하면 죽이지 않았다. 심지어 다시 대적에게 합류해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가 두려워 아버의 죄를 아들에게 물겠는가?

4. 5-9절의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 피의 유출은 종교의식상 부정하게 여겼다. 의식적인 규례뿐 아니라 제사에 관한 규례나 유대인들의 특유의 규례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신명기의 규례를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유대교, 안식교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 즉 의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살려서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5. 예수님은 십계명도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하셨다. 전체 율법도 요약하면 그렇다. 본문에서 율법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6-9, 10-13, 14-18)도 그렇게 분류해 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6a):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지 아니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6b-8):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빚진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는 것.

6.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인데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다 무너지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이다.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마, 다른 용도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

7. 여러 가지 규례를 말하고 있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율법도 다 포함되는 말이다.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준다는 것도 율법에 있는 것이다(출 22:26-27, 신 24:10-13, 17). 무슨 뜻인가? 도로 줄 양이면 전당 잡기는 왜 잡야?

여기서 전당물이란 겉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이불이다. 밤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다. 속뜻은 아무래도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뜻 같다(신 24:17).

8.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하면서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아버는 자기 죄로 죽을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않은 아들은 죽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라가 망해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남을 탓하지 말고 부디 자기 탓을 하라는 말이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이다. 흔히 한국 무속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표현,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가 중요하다.'

9. 그러니까 본 장의 핵심은 아버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 법은 없다는 말인가?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리라(23): 아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다.

10.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괴팍해서 성질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해버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멸하지 않으려고 애쓴 노력, 그렇더라도 다 멸하지 않고 끈을 이어가시는 이유, 멸하신 다음에 편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23, 32). 어쩔 수 없어서 맴을 드는 부모의 아픔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11. 평생을 악하게 산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한 경우와 평생 선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잠시 악을 행했다면 누가 더 선한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면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할 바 아니란다(24)! 반대로 죄인이 회개하면 지난 행위는 깨끗이 지워져 버린다(22).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평균을 내고, 비교하는 수학과 전혀 다르다. '나도 옛날에는...' 이런 소리 할 일이 아니다.

12. 부모에게 야단맞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왜 야단을 맞았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맞았다는 것만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어떤가?

자기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다고 말한다. 문제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다. 아담이 범죄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에스겔 19 장

1. 애가는 슬픈 노래다. 방백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것은 방백들이 이런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본문의 방백은 실제로는 당시의 왕을 가리킨다. 가령, 멸절한(?) 사람을 앉혀 놓고 조사를 읊으면 어떻게 되나?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셈이니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잘 나가는(?) 방백들을 향해서 그들의 슬픈 앞날을 노래하는 것은 부디 일이 터지기 전에 돌이키라는 경고다. 그래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완악했다는 증거다.

2.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으뜸이어 새끼를 돌보는 암사자는 그야말로 호강하는 셈이다. 이 암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유다: 주위에 많은 나라들(젊은 사자들)이 있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좋은 시절의 유다를 가리킨다. 하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위의 열강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레 26:6-8, 신 28:7, 10).

3. 암사자가 기른 사자새끼 한 마리가 사람을 삼켰단다. 이 사자새끼가 유다의 왕을 가리킨다면 사람을 삼킨 유다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다 말기에 애굽 땅으로 끌려간 왕이 누구더라?

여호아하스: 앗수르를 도우려고 출전하는 애굽의 바로노고를 막다가 전사한 요시야(왕하 23:29)의 아들이다. 요시야를 죽이고 앗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다가 패하고 귀환하면서 유다를 침공해서 왕이 된 지 석 달 밖에 안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갔다(왕하 23:33). 겨우 석 달을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니(왕하 23:32) '사람을 삼켰다'는 표현이 실제로 그가 행한 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말일 것이다.

4. 암 사자가 길러낸 새끼 한 마리는 애굽에 잡혀가고 다른 한 마리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잡혀 간 새끼는 어느 왕일까?

여호야킨: 유다 말기의 세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지만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암사자의 새끼 두 마리 중의 한 마리라고 보기에는 촌수가 조금 이상하지만(첫 새끼의 새끼라는 점에서), 어차피 암사자가 유다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보면 달리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호야김은 반역으로 죽었고, 여호야킨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놓여났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했다는 것은 다른 이방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것인데 여호야킨도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사로잡혔으니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패권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탓이리라(왕하 24:1-2).

5. 암 사자가 길러낸 두 마리의 사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처참한 말로를 맞았는가?

사람을 삼켰다(3, 6): 식물을 움킨다는 것은 짐승을 잡는 법을 배웠다는 말인데 곰게 짐승이나 잡지 사람을 왜 삼키나? 유다 말기의 왕들 중에 여호아하스나 여호야킨은 겨우 석 달을 왕위에 있었다. 그런 판에 무슨 악을 그렇게도 행한 걸까? 더구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을까? 사람을 삼켰다는 것이 그런 악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이런 말씨는 경고인데 여호야김이나 여호야킨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6. 7절의 '그의 궁실들을 헐고'라는 표현의 난외주에 보면 '과부를 알고'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혀 다른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이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난외주가 맞다. 문맥상으로 보아 필사자들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수정해서 읽은 탓이다(대부분의 역본들). 그 짧은 재위기간 동안에도 백성들을 학대하고 거주지를 휘파한 모양이다.

7. '이방이 둘러 있는 지방에서'라는 표현은 '사방에 둘러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다.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무슨 미운 짓을 많이 했길래 그러는가?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냥 바벨론이 치러온다는 말과 동일하다.

8. 젊은 사자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온 산을 휘젓고 다니더니 이제 철창에 갇혔다. 덕분에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니... 하긴 오늘날에도 양떼를 돌보라고 맡겨두었다니 양떼 위에 호랑이 노릇하는 목자들도 있는 모양이더라.

9. 피는 혈통을 의미한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는 물 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았다. 어느 정도로 멋진 포도나무였는가?

가지가 왕의 지팡이로 쓰일 정도: 이권 말이 안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곧고 단단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도 무지 왕의 홀이 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홀(왕의 지팡이)이 될 만하다? 말도 안 된다, 기적 같은 일이다.

10. 많은 가지 중에 하나가 뛰어나 보이다가 땅에 던짐을 당하고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렸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시드기야: 유다 말기에 그래도 11년이나 통치한 왕(뛰어난 가지)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밖에 없다. 여호야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왕이니까 내용상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후일, 포로가 되어 눈이 뵈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는 망하고 만다. 참고로 유다의 왕통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킨(여고냐)으로 이어진다.

11. 유다 왕의 혈통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불에 탐, 물이 없는 광야에 심기움, 홀이 될 만한 가지가 없음: 영원하리라던 다윗의 위는 이렇게 끊어진다. 이제는 영적인 나라로 그 혈통이 이어져 예수의 나라로 간다!

에스겔 20 장

1.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찾아왔는데 아예 묻는 것조차 용납지 않으신다? 왜 그러시지?

이스라엘의 열조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4) =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27) 지금 찾아온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8절(우상숭배), 5-26절(출애굽 시절)과 28-32절(사사 시대)이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것의 요약이 24절이며 한 마디로 줄인 것이 4절과 27절이다.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는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이 말을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2. 맹세는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한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셔야 하는가?

인간적인 표현방식을 이용한 것(신인동형론) 하나님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영원한 것이다. 굳이 이런 맹세라는 표현까지 써야 하는 것은 맹세라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3.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5)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이스라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찾아 둔 땅(6)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산악지대가 많고 황폐한 곳이라는데?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황무케 되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은 그렇게 황무케 된 땅이기 때문이 아닐까? < 신 11장이나, 2002.07.28의 설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참조 >

5.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감격스럽게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를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고 하셨는데(5-7) 왜 듣지 않았을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적은 현찰에 눈이 어두워 거액의 약속어음을 무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6.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9, 14, 22, 39, 44)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시 106:8, 23:3).

7. '너 잘 되라고 학비 대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뿐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유를 '내 이름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가?

비슷해 보인다: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점이 그렇고, 그런 자식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8. 교칙을 좋아하는 학생이 드물고 도로교통법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도 드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했을까?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야 했으니 좋아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싫어하는 이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

법을 만든 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교칙은 학생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11, 13, 레 18:5) 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 학생답기를 싫어해서 교칙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만 편리하자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살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 것이다. 그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9.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12, 20, 출 31:17) 연인, 약혼, 결혼한 표시로 커피반지를 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자신들이 특별한 사이(관계)임을 확인시키시려고 하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불편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라는 것이다. 반지를 끼고 입자 있는 몸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라는 말이다.

10. 결혼반지를 자랑스럽게 끼고 다녀야 할 신랑이 외출할 때마다 살짝, 살짝 반지를 빼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죽여야지(13, 귀여운 신부가 양증맞은 주먹을 흔들며 하는 말) 절대로 빼지 말라는 당부다. 어디 가서 총각 행세하지 말라는 경고다. 나만 사랑하는 마음 번치 말라는 사랑고백이기도 하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혹시 신랑이 말썽을 부려도 소문도 못 낸다. 누구를 비난도 못 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러셨다(13-14).

11.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낳은 죄'란다. 아무리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도 버릴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일까?

이스라엘을 사랑한(5-7) 죄 =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은 죄 = 낳은 죄: 하는 짓을 보면 당장에 멸해버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아픔이 있다(14, 17).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것이다.

12.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였다가 분노를 받아 멸망당할 뻔하였는지(13)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결과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출 32 장): 모세의 중보기도로 위기를 모면했다. 모세 덕분인가? 외견상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팔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14)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13.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광야에서 죽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인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구원역사가 지속되었음을 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14. 열조의 율례(18)와 하나님의 율례는 다른가?

열조의 율례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5. 같은 말씀(5-9, 10-17, 18-26)을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강조점이나 대상이 약간씩 다르다: 5-9(범죄함에 강조), 10-17(다 멸하지 아니함에 강조), 18-26(대상이 다르다, 출애굽 2세).

16. 불순종하는 그들을 몇 년 만에 '이방인 중에 흠뻑 열방 중에 해쳐'버렸는가(23)?

가나안에 거하던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거의 800년 동안 인내하였다.

17. 하나님께서 다른 율례도 주셨는가? 선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는 게 정말인가?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25-26)?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버려두었다는 뜻이다: 그냥 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셈이다. 당장 멸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셈인데...

18.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심판과 관계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은 복인가, 심판인가?

복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거의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드물게 예외가 있기는 하다(출 16:12, 29:46).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19. 백성들이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재물을 올리던 곳은 '높은 곳'(=히브리어로 '바마'인데 산당이라고 번역함)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다니는 높은 곳(=바마)이 무엇이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처소에 이름을 지어주셨다(29): 그래서 제사 드리던 곳을 바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참으로 허파 뒤집는 놀음이다. 시험에서 빵점 맞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게 뭐고?' 했더니 '빵이요' 하더라. '그래 니나 무~라!' 했단다.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아나 말귀를 알아듣나... 이러니까 선지자를 찾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묻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셨다.

20. 이스라엘의 헛된 꿈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가?

목석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32): 이를 수 없는 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듯,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1.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왜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는다고 하실까(33)? 매로 다스리겠다는 말인가?

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생략되어 있다. 다음 절을 보면 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열국이다. 마치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처럼!

22. 과거의 출애굽은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출애굽의 성격을 알게 한다.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처럼 앞으로 '열국 광야'에서 헤매 날이 올 것이다. 열국 광야에서 헤매게 하겠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결하게 해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해서(34)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이다. 열국 광야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열국 가운데서 흩어져 고난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3. 왜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할까? 바로 뒤이은 언약의 줄로 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텐데? 레 27:32을 참조해서 생각해 보자.

자기 소나 양을 계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 소유물을 확인하는 작업인 셈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오랏줄에 묶여 갔지만 이제는 언약의 줄로 매어 이끌겠다는 말이다. 줄도 줄 나름이지, 언약의 줄, 사랑의 줄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24. 우거하던 땅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해? 이삿짐을 꾸려서 출발했는데 들어갈 집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낭패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패역함과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않은 자신(38a):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 탓이다. 그들의 뒤를 이은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적 앞에서 모두가 할례를 행해야 했다.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25. ‘공부를 그 따위로 하려거든 학교를 때려치우라’고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갈 생각을 안 한다. ‘학교 그만 두라고 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다. 비슷한 말이 어디에 있는가?

39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 후에도 그리하려무나: 정 싫거든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40-44).

26.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반가운 표현은 무엇일까?

제물보다는 사람을 받으시겠다는 것: 40절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41절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등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40절 ‘너희 모든...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이제는 당당하게 가져오라고 하신다. 드려도 받지 않으시던 분이 이제 성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결국 사람을 받으시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천신(薦新): 그 해에 새로 난 농산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림

27.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남방 삼림(남쪽 나라 유다를 가리키는 말)에 불이 나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정대는가?

그게 무슨 소리여? 비유로 말하는 자란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가리킨다.

에스겔 21 장

1. 2-5절을 20:46-48와 비교하면 구조는 거의 같다.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이 무엇인가?

20:46-48	21:2-5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기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불 = 칼,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 = 의인과 악인,

남방 삼림 = 이스라엘 땅, 모든 나무를 사름 = 칼을 다시 꽃지 아니함: 불이 모든 나무를 사르듯 칼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2. 선지자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이 아닌가?

잘 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복이지만 잘못할 때는 혼이 날 각오를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매를 들고 바라보신다. 20장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면 21장은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셈이다.

3. 악인을 끊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의인은 왜? 18:1-4를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의인 때문에 심판이 미루어지기는 하지만 악인 때문에 끝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의인도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꺼번에 심판이 임하지만 의인은 자기 죄로만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18:1-4). 외형상 같아보여도 의인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과 다르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이다.

4. 혈기만 없으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는가(4, 5)?

피할 수 없다: 우리말의 '혈기'는 두 가지 의미, 즉 성질이라는 의미와 육체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육체를 가진 자, 즉 모든 자를 가리킨다.

5. 선지자는 연기를 잘 해야 했던 모양이다(6).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올라고? 무척 힘들었겠다. 멀쩡한 선지자를 보고 왜 올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물으면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 바벨론의 3차 침입에 대한 소문이다. 결국 이 일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외치라는 말이다.

6. 칼이 살육하는 자의 손에 딱 맞도록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다는 것(9-11)을 한 마디로 하면?

준비가 끝났다: 이제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심판받을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모든 다른 나무(나라)를 업신여기다니! 그런 뜻인가? 10절 후반부는 모르겠다.

7. 백성과 방백에게 칼이 임하니 슬피 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넓적다리를 치라고 할까(12)? 우리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넓적다리 대신 어느 부위가 가장 좋을까?

가슴: 넓적다리(렘 31:19의 '불기')를 치는 것은 몹시 슬퍼하는 행위이다.

8. 장사꾼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함이다. 선지자가 손뼉을 치고 칼을 거꾸 휘두르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공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예언 행위이다. 밀실에서 대인(=아마도 유다의 왕)을 중상계 하는 칼이라면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9. '말아 모이라 우향하라 향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이게 무슨 장면인가?

칼을 군인으로 의인화한 표현: 군인들이 대오를 이루어 행군하고 싸우듯이 칼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10. 선지자는 또 이상한 짓을 해야 한다. 땅에다 길을 그린다. 바벨론 왕의 진로다. 얼마쯤 그리다가 갈라지도록 그린다. 표지판을 세운다. 한 쪽은 암몬이고, 또 한 쪽은 예루살렘이다. 그런 다음에는 뭘 하지?

전쟁놀이: 바벨론 왕이 하게 될 전투의 흉내를 계속해야 했다. 화살을 흔들거나, 짐승의 간을 보고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놀이를 계속해야 한다(4장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목을 끌어서 결국은 공적인 심판을 선포해야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11. 바벨론 왕이 점을 쳐서 공격할 대상으로 예루살렘을 찍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 왕의 이 점괘를

헛점(헛터리 점)으로 여겼다. 점이야 믿을 것이 못되니 당연한 것 아닌가?

바벨론 왕의 점패를 안 믿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도 없는 바벨론 왕의 점패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사주팔자, 궁합, 각종 악연이 아무 것도 아니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12. 이스라엘 왕을 치는 분이 바벨론 왕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이 맹약을 어겼기 때문에 쳐들어온다. 한 놈을 잡아서 본때를 보여야겠는데 어느 놈을 칠까 하다가 점패에 따라 이스라엘을 친다. 그런데 이런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의 악, 죄과,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의 빌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다.

13. 암몬 족속은 바벨론 왕의 점패에 따라 침략을 면한 것 같은데... 아닌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암몬에게(25:3) 하나님께서 별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선언이다. 암몬은 유다가 망한 5년 뒤에 멸망했다(BC 586).

14. 암몬 족속을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면'(29) 어떻게 되나?

같은 처지가 되겠지: 유다의 멸망을 보고 좋아라 했으니 같은 꼴을 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심판이겠다.

15.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유다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죽임을 당함(30) 회복되지 아니함(32) 유다도 같은 운명이어야 할 터인데 유다는 다시 돌아야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다.

에스겔 22 장

1. 국문하려면 알게 하라(2)? 국문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 말이 될 텐데?
이왕에 조사를 시작했으니 자기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행하는 국문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국문이기 때문이다. 무슨 죄인지는 알고 매를 맞아도 맞아야 나중에 억울하다거나 탄 소리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말이다!
2.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3절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4절에서도). 3절의 요약된 죄목이 그 다음 구절(6-12)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정돈해 보자.
 피 흘린 죄(3a) = 방백들의 죄, 권력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죄(6-7)
 우상을 만들고 섬긴 죄(3b) =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다(8-12).
3. '오늘은 누구, 누구의 날이다'란 표현은 보통은 잘 나갈 때 쓰는 표현이다. 이스라엘의 날(4)은 어떤 날인가?
초상 치는 날: 능력의 날, 치욕의 날이다. 연한이 컸다는 것은 수명이 다 되었다, 즉 죽을 날이 다 됐다는 뜻이다.
4.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우가 그러한 지 본문에서 찾는다면?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4)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고통일 것이다.
5.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기초(터전)'이다.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다(느 11:1).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더러운 이름(=부정한 자), 어지러운 자(=시끄러운 자) 부정하다는 것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시끄럽다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킨다.
6. 이스라엘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데(6-12) 이렇게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12, 16) 문제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한 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두 가지로 말하면 피 흘린 죄와 우상을 섬긴 죄다.
7.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죄와 월경하는 여인과 구합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
 여자라면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개와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비의 여자, 즉 어머니나 계모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음욕에 빠져서 아비의 여인인지, 월경중인지, 이웃의 아내인지, 며느리인지, 형제인지 분간하지 않고 덤벼드는 죄라는 말이다. 정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인간을 가리켜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개는 자라면 어미와도 교미를 하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
8. 하나님도 손뼉을 치실까(13)? 좋아서 손뼉을 쳤을 리가 없다. 징계를 말하면서 손뼉이라? 이것은 좋아서 치는 손뼉이 아니라, 손으로 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 손뼉은 징계의 한 방법이다: 손으로 파리를 잡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날아다니는 파리를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이 심판을 행하겠다는 말이다. 원문도 반드시 박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손으로 치다'는 뜻이다.
9. 이스라엘의 징계를 다른 나라(25장의 암몬, 26장의 두로)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는 것: 수치를 당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열국 중에 흩어버리는 것도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지므로 훗날 복음이 온 세상에 잘 전파되는데에 일조를 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무엇을 제거하신다(15).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을 멸하신다.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셈이다.
10. 이스라엘은 풀무 가운데의 무엇과 같은가?
찌꺼기(18-19) 은을 제련하여 뽑아내고 나면 남는 것은 못, 상납, 철, 납일지라도 여기서는 찌꺼기라는 뜻이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련하여 은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왜 하필이면 은일까, 금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풀무 속에 집어넣어 녹이듯이 벌하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제련해서 은을 만들겠다는 뜻은 미루어 짐작할 뿐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다(20-22). 금이나 은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련할 때 깨끗이 녹이는 것처럼 녹이겠다는 뜻이다. 굳이 제련하는 것이 금이 아닌 것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12.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결하지 못한 땅과 같은 뜻으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시후에 맞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땅인데 비를 얻지 못한 땅이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라는 말로 결국은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3.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선지자들, 제사장, 방백들, 백성들: 결국은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지만 그래도 먼저 언급된 자들의 책임

이 더 무겁지 않을까?

14. 선지자들이 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왜 과부가 많아질까(25)?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다: 즉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정들이 많이 죽었음을 의미한다.

15. 선지자들의 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반역이다. 제사장들의 죄는 한 마디로 무엇인가?

오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더럽혔다.

16. 선지자들은 사자고(24) 방백들은 이리다(27)? 거꾸로 된 것 아냐?

아무래도 선지자들이 직접 백성들을 죽이며 재물을 탈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백들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회를 칠하는) 선지자가 더 죄가 많다는 뜻이다. 회를 칠한다는 것은 방백들의 더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권력자들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죄가 더 크다.

17.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나?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이 모양인데?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므로 백성들의 죄가 덜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힘이나 재력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18. 성을 쌓으며 성문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23-29의 악을 제거하고 역으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한 모세처럼! 그렇게 용서할 구실을 찾고 있는데...

에스겔 23 장

1. 사마리아와 유다를 왜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한 어미의 딸이라고 할까?

딸이나 어미가 동일한 죄를 지었음을 말하기 위함(16:44) 아닐까? 즉 그들의 조상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남편에게 신실치 못한 아내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를 이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녀간으로 설정한 것 같다.

2. 애굽에서 행음했다고? 애굽에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특별한 목적(이스라엘의 보호, 번성)이 있어서 가게 했는데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다. 좋은 것만 배우고 올 일이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짓을 따라 행한 것을 의미한다.

3. 어릴 때에 행음했다는 것은 구제불능이라는 말인가?

일단은 애굽에 있을 때, 즉 민족의 태동기 때부터 행음했다는 뜻이다. 이차적으로는 구제불능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4. 처녀의 가슴을 좀 만졌다고 행음했다면서 그렇게 야단인가?

좀 만진 정도나 좀 놀린 정도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좋게 말해서 그런 것이지 스스로 음란한 짓을 행했다. 그것도 남편 있는 여자가!

5. 그들이 내게 속하였다면(4) 이들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부부관계임을 의미한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편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다. 특히 사마리아는 갈라진 이후로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고 계신다.

6.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앗수르와 행음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색 옷(=고관), 인물, 말 때문이다(6, 12)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율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반면에 앗수르인들이 주는 것은 겉보기에 화려하다는 것이 차이이다!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이나 좋은 책보다 과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런 걸 하나님도 아실 텐데 과자부터 주시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이 모양이다.

7. 겉모습만 보고 연애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연애보다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점이 문제다(7)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은 것이다. 연애만 하고 나쁜 것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될까? 솔로몬이 좋은 예다. 힘이 없나, 지혜가 없나! 그럼에도 부인들의 온갖 우상을 다 따라갔다. 아차 하는 순간에 옆으로 쏠 위험은 항상 있으므로 아예 경계하는 것이 옳다.

8. 어릴 때는 애굽과 잠자리를 함께 하고, 커서는 앗수르와 음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까?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 가장 아플 것이다. 그래서 앗수르의 손에 심판을 당하게 하여 오명(누명, 웃음거리)을 뒤집어쓰게 만들었다(10). 잘난 남편과 가족을 버리고 간부를 따라가서 몸과 마음을 다 주고도 결국은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였다면 얼마나 큰 웃음거리인가?

9. 언니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면 동생은 안 그래야지?

당연히 안 그래야지! 남의 일이나,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대신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유다가 지켜보고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했겠는가! 사사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민족의 징계를 받는 일을 7 번이나 반복한 것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그런 것인가? '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란단다.

10. 오홀리바가 언니보다 더 심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앗수르 사람과 연애하면서 갈대아 사람의 그림을 보고 또 마음이 변해버렸다(16). 음란을 행하고는 또 생각이 달라져 버렸다(17).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있다(21). 친앗수르 정책에서 친바벨론으로,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던 유다의 말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11. 앗수르, 바벨론과 음행을 거듭해도 예전의 애굽과 같지가 않다. 애굽과 놀아나던 시절이 그리웠다. 왜?

애굽은 나귀와 말과 같아서(20) 나귀나 말은 성기가 크다는 점과 정욕이 센 것을 의미한다.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옛 애인과 놀아나던 장면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니(21) 그야말로!

12.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유다가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를 다 불러 모으시켰단다(23). 유다가 망하기 전에 앗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해버렸는데?

여기서는 나라보다 민족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셈이다. 앗수르가 망했다고 앗수르 사람들마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벨론 군대는 어차피 이런 잡다한 민족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3.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음란한 행실을 그치게 되는가?

죽어야 정신 차린다(25-26, 29)

14.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문권을 행사하게 되었는가? 유다보다 더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뜻이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용만 하실 뿐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도 징계를 받게 된다(사

13:19, 14:22, 렘 25:12-14)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 똑같은 매를 맞아도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 아픔이 다를 수 있다. 유다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누가 때리기 때문인가?

미워하는 자(28) 다른 놈은 몰라도 저 놈한테 맞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데 그 놈이 아예 미워하는 마음으로 (29) 때린다.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리는 것과 미워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16. 음란한 형의 길을 따라 갔으니 그 형이 마신 잔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 잔인가?

깨어진 잔을 씹는 것도 모를 정도로(34) 얼마나 아프면 깨어진 잔을 씹는지 술을 마시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할까? 유방은 왜 꼬집지? 아마도 우리말의 가슴을 쥐어뜯는다는 표현과 비슷하지 않을까?

17.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한 모든 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것(35)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은 쓰레기를 던지듯이 버렸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우상을 좇아갔으니...

18. 그렇게도 고약한 녀석들의 죄를 왜 또 언급하시는가(37-42)?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 이들이 행한 일 중(37-42)에서 가장 고약한 점을 두 가지 고른다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당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도대체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바람피우고 들어와서 태연스럽게 신랑 옆에서 애교를 부린다면?

내 향과 기름을 간부에게 내어놓은 것: 원래 이 향과 기름은 지극히 거룩하여 다른 용도로 쓰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출 30:31-33).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20. 음행으로 쇠한 여인은 음행을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다(43) 마약으로 몸을 망친 사람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를 망쳤음에도 우상숭배를 그만 두지 못하는 모양이다. 끝까지 하나님 대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려던 유다의 최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되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력을 발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되다.

21. 한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부정에 연루되어 검찰의 심문을 받았는데 그 소감을 '바위에 계란치기' 같더라고 말했다. 하물며 일반인이 검사에게 심문을 당하면 어느 정도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까? 이런 경우보다 더 험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본문에 있다면?

의인이 음부를 심문함(45) 죄인의 변명을 들으려고나 할까? 오히려 조롱하지나 않을까? 한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다. 창녀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더니 나온 대답이었던가? 유다가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22.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천사를 동원하시는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다. 물론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23.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는데 유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경성하는 여인은 누구인가?

당시의 주변 나라들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49)을 가리킨다.

에스겔 24 장

1.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접근한(=가마이 온, 압박을 가하는) 것과 선지자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기념일이라고 하기에는 뭇할지 몰라도 기억을 해야 할 날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국치일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이 날은 잊지 못할 슬픔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는 정도의 위협적인 표현이다. 유다는 시드기야 11년에 망한다(597년). 3년에 걸쳐(정확하게는 1년 반) 포위당했다가 함락되었으니 이 날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다(왕하 25:1-3).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양을 잡아서 가마솥에 넣고 뼈가 무르도록 푹 삶는다(4-5).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고기 삶듯이 할 것이라는 비유적인 행동이다. 어차피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고기와 뼈를 삶는 장면이라서 별로 잔혹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생각해 보라. 흑인 노예를 소재로 한 어느 영화에서 주인의 부인과 간통한 흑인 노예를 끓는 물에 삶아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스라엘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3. 녹슨 가마 속의 고기는 재비를 뿜을 필요도 없다. 왜?

어차피 다 버릴 것이니까: 썩은 과일 상자에서도 쓸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는 법이다. 그런 행동을 재비뿜기라고 말하는 셈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일부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는 말이다.

4. 피를 흘린 것만 해도 죽을죄인데 더 고약한 것은?

흙으로 덮지도 않았다(↔ 레 17:13): 몰래 뭇된 짓을 한 게 아니라 뭇된 짓을 하고도 자랑하듯이 떠돌고 다니는 셈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몰래 담배를 피워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언제부터인가 아예 공초를 버젓이 쏘아놓는다. 그만큼 못돼지고 있는 셈이다.

5. 피를 땅에 쏟지 않고 말간(땀) 반석 위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8)?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셨다는 뜻이다. 일종의 포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할 때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6.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것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을 비유하는 것이라면 나무를 많이 쌓는 것과 고기를 삶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는 것과 가마가 비는 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나무를 많이 쌓는 것: 바벨론 군대가 강력해지는 것

고기를 삶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는 것: 바벨론 군대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것

가마가 비는 것: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비는 것

7. 빈 가마솥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결과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다(12). 녹슨 가마는 다른 얘기다. 끓는 가마는 이스라엘의 징계에 관한 얘기고, 녹슨 가마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설명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 녹처럼 재하여지지 않는 악이다.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피곤하다'는 말은 성읍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는 뜻이다.

8.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도 정하여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악,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그런 경우가 사람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려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느라고 힘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과 같다.

9. 음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사람들끼리 하는 짓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까?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것도 다 음란이 그 바탕인 것을 보면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일이다. 우상숭배의 한 방편이었기에 우상숭배와 동일시된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10.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되지 않았단다(13).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셔야 된다 =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신 후에야 정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정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험한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버림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진작에 돌이키지...

11. 절대로 돌이키거나 아끼거나 뉘우치지 않으시겠단다(14). 전에는 잘 그러셨는가?

그렇다: 아담의 범죄 후에 '정녕 죽으리라'는 선고 속에도 회복의 길을 숨겨두셨고, 홍수 심판 후에도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앗겠다'고 하셨다. 모세의 간청에 못 이긴 채 돌이키셨다(출 32:14, 32-34). 기타 (삿 2:18, 대하 12:12). 쉽게 마음을 돌이키시던 분이 단단히 결심을 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악했다는 말일까?

12. 가장 좋아하는 누군가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란다(16).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반항하지 말라는 뜻인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비극에 대한 예시이다: 고통스런 일을 당해서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것조차 호사다.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임을 당해도 울지도 내색도 못한다. 그런 끔찍한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13.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본문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에스겔은 아내를 정말 사랑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심지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를 치셨다.

제멋대로 성경을 읽고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하는 셈이다: 이 본문이 에스겔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계를 말씀하시느라고 죄 없는 에스겔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에스겔은 살아 있는 순교자지 징계를 받아야 할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14. 아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15-18)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해가는 사람들 속에 이런 선지자는 어디서 났나?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은혜를 베푸셨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재미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다.

아내가 죽을 것을 미리 귀땀하시는 것은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행하신 적도 있나? 그만큼 어려운 부탁을 하는 셈이다. 에스겔은 자신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았다. 호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다.

15.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나님의 성소(21):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듯 하나님에게 소중한 성소가 있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듯이 성소가 더럽혀질 것이다. 에스겔이 슬픔을 전혀 표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도 전혀 슬픔을 표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도 없다. 섬기는 것보다 은혜 받는 일이 먼저다.

16. 예루살렘의 멸망을 고하는 자가 오기까지 선지자는 잠잠히 있어야 하나(27)?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뜻: 확실한 심판을 선언한 이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할 말이 없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난 후에 다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에스겔 25 장

1. 앞 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다니, 겁이 난다. 휴 다행이다. 왜?

에스겔이나 예루살렘에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암몬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2) 파짓 거 암몬 족속이야 족든지 말든지! 유다 백성들과 자신에게 임한 메시지가 하도 고통스러우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2. 암몬 족속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좋아하는 죄(3, 6)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 비록 옆집 아이일랑 정 깨소금 맛이랑면서 방청을 떨면 야단맞는 것이 당연하다.

3. 암몬 족속을 동방 사람의 기업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완전히 멸망당함: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듯이 암몬 족속은 사라지게 된다(7, 10절 참조). 암몬 족속은 동방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지만 유다는 일부를 남겨서 돌아오게 하신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완전하게 바벨론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4. 동방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찢을 마실 것이라?

바로 앞의 '네 열매를 먹으며'와 같은 표현이다: 네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뜻이다. 굳이 암몬 족속을 찢을 내는 짐승에 비유한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별반 다르지도 않겠지만.

5. 시 23편의 '실란한 물가'란 '잔잔한 물가'를 뜻한다. 랍바를 낙타의 우리나라 양떼가 늙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데 낙타의 우리나라 양떼가 늙는 곳이란 어떤 뜻일까?

쫓발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사람이 없는 곳'이란 의미 아닐까?

6. 암몬은 롯의 둘째 딸에게서 유래한 민족이고, 모압은 첫째 딸에서 유래했다. 세일은 에서가 주로 활동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다 족속은 모든 족속과 일반이라고 하는 모압과 세일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임금님의 아들을 보고 '자기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

7. 모압 족속이 받을 벌을 얘기하다가 암몬 족속이 받을 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일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 이들이 받을 벌의 중요한 점은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방 중에 기억됨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다. 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동일하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8. 에돔이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은 것이 곧 범죄함이라고? 에돔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있는가?

아비멜렉이나 바로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아마 에돔 족속이 조상 때부터 품었던 이런 원한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이스라엘을 친 것 아닐까? 에돔은 이런 저런 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일진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나름대로 원수를 갚겠다고 야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형제를 돌본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에돔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9. 우리나라 전역을 가리킬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란 표현이 있다. 암몬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은?

데만에서 드단까지

10.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암몬 족속의 땅은 양떼가 늙는 곳이 되리라고 했는데 에돔 족속의 땅에는 짐승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더 심하게 벌을 받는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암몬 족속의 땅에는 거대한 성읍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무너져 별판이 된다는 뜻이고, 에돔 족속이 거하던 땅은 산지이므로 애초에 양떼는 없었고 짐승들이 출몰하던 곳이므로 표현 양식이 좀 다를 뿐 내용은 같은 셈이다. 에돔 족속이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했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결국은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 이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11.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운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 중에 일파인 그렛 사람들은 한때 다윗의 충실한 부대이기도 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한 것: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대한 죄란다. 그리스도인들이 결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12.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본 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번(5, 7, 11, 14, 17): 징계를 보고서야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귀한 선물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다.

에스겔 26 장

1. 에스겔에게 11년이 어떤 해인가?

유다가 완전히 망한 바로 그 해(2):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왔다. 11년 뒤에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되었다. 하필이면 어느 달인지를 말하지 않는가? 아마도 함락되기 직전 아닐까?

2.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그 역할을 자신이 하게 될 것: 만민의 문, 충만함이 그것이다. 두로는 부와 명성에 대하여 예루살렘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모양인데 말하자면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하는 셈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그 역할이 두로에게 갈까? 남의 불행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지어다(잠 17:5).

3. 두로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3-6)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다와 관련됨(참고 17): 파도(해일)처럼 깨끗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고기 잡듯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릴 것이다. 바다를 주 무대로 삼는 해양국가이므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4. 말간(鰐) 반석이란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바위 윗부분처럼 깨끗하게 쓸어버린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바위는 어디에 쓸까?

그를 말리는 데에(5, 14: 원어상 같은 단어): 바다 가운데 그물(을 펼)치는 곳(5)이란 고기를 잡기보다는 그물을 말리기 위한 곳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거대한 성읍 두로가 바다 가운데 조그마하게 솟아 있는 매끄러운 바위 정도만 남도록 쓸어버리겠다는 뜻이다.

5. 열국이 두로를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까?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비록 바벨론이 침입해서 나라를 집어삼켜도 그 배후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미리 알리라고 이 메시지를 주셨다.

6. 들에 있는 너의 딸들(8)? 외적이 침입했는데 딸들이 왜 들에 있나? 미리 피하지 않고?

두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변 성읍들을 가리킨다. 두로를 함락시키기 전에 주변을 먼저 점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7. 두로가 점령당할 때 땅에 엎드러지는 견고한 석상(11)은 무엇일까?

두로의 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 신이 무너지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

8. 두로가 엎드러지는 데 왜 섬들이 진동할까(15)?

일반적으로 섬은 가장 먼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두로의 심판이 바다와 관련된 것이기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멸망당하여 엎어진 두로의 바로 이웃이 섬들이다. 놀랄 수밖에!

9. 옛날 우리 예법에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두 번 했단다. 멸절한 사람에게 두 번 절하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아직은 두로가 멸절한데도 이미 망한 것처럼 애가를 부른다. 애가가 어디에 있는가?

17-18절 항해자의 거한 ~ 놀라리라! 전형적인 애가는 칭송과 슬픔으로 구성된다. 17절이 칭송이고 18절이 슬픔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 부분은 시가체이다.

10. 옛적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이겠다: 옛적 사람들이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 거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이다. 큰 물로 덮는 것,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구렁이에 내려가는 것도 다 같은 의미이다.

11. 압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장황할까?

그만큼 강성한 나라일 뿐 아니라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당대의 주인공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이어지는 27, 28장도 여전히 두로에 관한 예언이다.

12.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하실까? 더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는 상관없는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른 피조물이 함께 벌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나라에 대한 심판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방 나라들이 함께 언급된다. 대부분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였거나 유다의 멸망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에 장자인 유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유다가 잘 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방 나라들도 그만큼 징계가 가벼웠거나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왕자가 임금에게 칭찬을 듣는 상황이라면 왕자의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들을 가능성이 높지만 왕자가 벌을 받는 형편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극히 조심해야 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경성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에스겔 27 장

1. 앞장에 애가가 있었는데 또 애가를 부르라고?

다른 측면에서 멸망을 말하기 때문이다: 26장이 왕국 자체가 멸망할 것을 노래했다면 여기서는 과거의 화려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있다.

2. 두로의 자람에 대한 묘사는 3-25절에 이른다. 왜 이렇게 길게 늘어놓을까?

어려운 때에 과거의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그것이 화려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제와 무역도 비극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3. 두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닷가에 거주하면서 여러 나라와 무역하는 자였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암시하는 것은?

스스로 이르기를 온전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 너를 지은 자(者)는 원문에는 복수형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두로의 건축자나 조선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로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였다고 생각했다(4). 물질적인 풍요가 항상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풍요로움이나 성공은 복이 아니다.

4. 두로가 자랑하는 무역선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스닐<헤르몬산의 아모리식 이름>의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柏香木)

5. 무역선의 부재료는?

노: 바산 상수리나무, **갑판:** 잇딤섬 향양목(黃楊木)과 상아(象牙), **돛:** 애굽의 수놓은 가는 베, **차일(아마도 갑판 위의 천막)** 엘리사 섬의 청색(靑色) 자색(紫色) 베

6. 무역선의 사공은?

시돈과 아르왓 거민(居民)들: 선장은 두로의 지혜자들이다.

7. 무역선의 수리공은 그발의 노인과 지혜자(박사)들이다(9). 젊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노인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인과 박사가 나란히 기술된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박사(전문가)와 견주어 경륜과 지식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8. 두로가 자국민이 아닌 바사(페르시아)와 룻(셈이 후손)과 붓(함의 후손) 사람들을 병정(兵丁)으로 쓰는 이유는?

이들을 용병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뜻이다.

9. 11절은 NIV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Men of Arvad and Helech manned your walls on every side: men of Gammad were in your towers. They hung their shields around your walls: they brought your beauty to perfection.* 왜 번역이 이렇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개역은 의미를 살린 반면에 NIV는 '네 군대', '용사'라고 번역한 말을 고유명사(헬레크와 감마딤)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문맥은 두로가 용병을 고용한 내용이므로 NIV의 번역이 옳아 보인다.

10. 두로의 무역 대상자(대상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12-23절이다. 이걸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 세계: 당시로서는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스(요나가 도망가려던 곳, 아마도 스페인 지역), 야완과 두발과 메섹, 도갈마 족속, 드단 사람, 아람,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 다메섹, 워단과 야완, 아라비아와 게달, 스바와 라아마, 하란과 갠네와 에텐과 스바와 앓수르와 길앗.

11. 무역품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사람(13): 사람을 사고파는 것이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모르고 짓는 죄에 해당하는 셈이다. 오늘날 사람을 사고파는 것이 큰 죄가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변형된 형태의 인신매매는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다.

12. 각 지역과 자세한 무역 품목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스 - 은(銀)과 철과 상납(=주석)과 납

야완과 두발과 메섹 - 사람과 돛그릇

도갈마 족속(族屬) - 말과 전마(戰馬)와 노새

드단 사람 - 상아(象牙)와 오목(烏木: 검은 색 대나무를 오죽이라고 하듯이 검정색 나무인가?)

아람 - 남보석(藍寶石)과 자색(紫色) 베와 수놓은 것과 가는 베와 산호(珊瑚)와 홍보석(紅寶石)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 - 민넛 밀과 과자(菓子)와 꿀과 기름과 유향(乳香)

다메섹 - 헬본 포도주(葡萄酒)와 흰 양(羊)털

워단과 야완 - 길쌈하는 실 백철(白鐵)과 육계(肉桂)와 창포(菖蒲)

드단 - 말 때 파는 담(담요)

아라비아와 게달 - 어린 양(羊)과 수양(羊)과 염소들

스바와 라아마 - 향재료와 각종(各種) 보석(寶石)과 황금(黃金)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앓수르와 길맛 - 청색(靑色)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

13. 두로가 무역했던 나라들과 교역품들을 장황하게 나열한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바다 중심(中心)에서 풍부(豊富)하여 영화(榮華)가 극하였도다(25) 이렇게 영화롭던 두로가 망하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슬픔은 더 크다는 뜻이다.

14. 두로의 멸망은 거대한 무역선이 바다에 침몰하는 것과 같다(26-27). 누가 배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는가?

네 사공(沙工) 믿었던 사람이며, 부를 가져다준 사람이다.

15. 배에 탄 자가 다 물에 빠졌다고 하고선(26-27)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냐?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이다. 즉 두로와 통상하던 자들이다. 애곡하는 내용도 그런 느낌을 준다 (32b-36).

16. 두로의 운명을 배에 비유하여 삼단계로 묘사하는 셈이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각 단계에 할애한 분량을 영화 타이타닉과 비교해 보자.

배의 건조(5-11), 활동(12-25), 그리고 침몰(26-28) 아름다운 배를 건조하는 과정이나 무역활동에 대해서 장황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선 멸망은 간단하게 끝내버린다.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묘사하는 좋은 방식이다. 반면에 타이타닉에서는 침몰하는 과정이 가장 자세하고 길게 그려져 있다. 반면에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는 자들의 애가를 더 자세하게 말한다(29-36).

에스겔 28 장

1. 두로의 멸망에 대한 3장의 예언(2-28) 중에서 26장은 주로 왕국 자체가 멸망할 것을 노래했다면 27장은 과거의 화려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 28장은 멸망의 어떤 점에 초점이 있는가?

멸망의 원인(=두로 왕의 교만): 왕의 교만이 두로 왕국이 멸망당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잡 16:18).

2. 두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27장에서는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었다(27:3).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교만(2:5): 스스로 하나님인양 여겼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항상 경계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신 8:17-18).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 부요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더 어렵다. 믿음이 좋은 부자를 배나 존경해야 한다.

3. 바다의 중심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거만을 떨었을까?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자부심: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자신이 있다. 육지로 와서는 절대로 두로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지정학적인 유리함 때문에 이런 거만을 떨고 있다.

4.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변화산 사건을 참고하여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야 할 것이다(마 17:3).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엘리야는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인 셈이다. 다니엘은 그런 데에 끼일 자격이 없을까?

지혜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격이 있을 것(3):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인 셈인데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라서 격이 좀 달라 보인다. 만약 의로움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아, 다니엘, 욥 아닐까(14:1, 20)?

5. 두로 왕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니엘보다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했는가?

재물(4, 5)을 더하는 데에만 열중: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온 세상을 주름잡는 능력을 지녔더라도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잡 9:10).

6. 두로가 외국의 침입을 받고 점령을 당한다는 것(7-8)은 국방력이 약한 탓 아닌가?

외교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시대에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한 군대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자기가 잘 나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거만을 떨다가 두로와 같은 꼴이 되고 만다(사 14:12).

7.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죽는 게(8)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건가? 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는 것(10)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하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뿐 아니라 고기밥이 되는 것으로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죽음이란 짐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죽음을 즐길지도 모른다.

8. 두로 왕이 바다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인가, 구렁이에 빠져 죽는다는 말인가?

같은 말: 구렁이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스올(=음부, 무저갱) 곧 지옥이다. 바다에서 살육을 당해도 결국은 스올로 가니까.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죽는 장소와 죽음의 형태)로 쓰였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장소에서 빠져 죽는다는 의미와 문자 그대로 바다 한 가운데서 살육을 당하여 버려진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9. 하나님께서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는 이유는 두로의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9).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0. 두로의 교만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에덴의 배신자: 원래는 완전한 인(=도장)처럼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녔다(12).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뉘는 그룹처럼 완전하고 영화로운 존재였다(17). 두로 왕의 영화와 지위가 비유컨대 그러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을 저지른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천사가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처럼! 훗날 느부갓네살이 13년에 걸쳐 두로를 공격해서 점령했다.

11. 두로의 무역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16-18)?

강포가 가득(16), 마음이 교만, 지혜를 더럽힘(17), 종교적 타락(18):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이렇게 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당부다(신 8:16-18, 9:5).

12. 두로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엄청 길었는데(26:1-28:20), 시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간단할까?

시돈은 두로와 30km 정도 떨어진 자매도시이다. 함께 번영했던 도시였으므로 죄악상도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

13.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22)은 복인가, 화인가?

복 받을 짓을 한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요, 영광이지만(24-26) 심판 받을 짓을 한 자에게는 엄청난 화다(21-23).

14.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가?

시돈에 엄병과 칼에 상한 자가 넘칠 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가시가 없음을 보고서(24, 26) 자신들을 이방 나

라와 달리 대우하시는 것을 보고서: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고센 지방에서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화려한 두로도 영화를 잃어버리는 판에 유다는 다시 회복하여 평화를 누린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감안하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에스겔 29 장

1. 에스겔에게 10년은 어떤 해인가?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바로 한 해 전(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된 상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11년에 있었으니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한 해 먼저 주어졌다. 그런데 왜 순서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바벨론의 침공 순서가 아닐까? 역사상으로는 두로가 먼저 망하고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다.

2. 비유권대 애굽이 강이라면 바로는?

강에 누운 큰 악어(3): 백성들은 고기다(4) 나일 강은 애굽의 심장이라고 불렀다. 그 강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느긋하게 엮드려 있는 악어를 바로에 비유한 것은 탁월한 문학적 감각이다. 그런데 그 악어가 좀 심한 말을 하는 셈이다.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3. 악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설마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말까지 할까?

악어는 안 그렇겠지만 사람은 권력이나 부가 막강해지면 그러더라: 한 분야에서 뛰어나더라도 그 분야를 벗어났으면 힘이 없는 법인데도 범사에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런 망상을 예방하려면 하나님의 존재와 심을 인정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인데 신처럼 여겨지나 보더라.

4. 들과 지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이 말이 왜 나쁜 게 되는가(5)?

육지 생물에게는 들과 지면이 삶의 근거지만 물에 사는 악어나 물고기에게 들과 지면은 강과 대조적인 황폐한 곳이요, 목숨을 이어가기 어려운 곳이다.

5.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자주 있었다. 앗수르가 침입했을 때(사 36:1, 6)나 바벨론의 침공 때(렘 37:5-6)에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갈대 지팡이: 겉모양은 그럴 듯하지만 속이 빈 갈대를 지팡이로 쓸 수는 없다. 잘못 짚었다가 부러지면 껍질에 찢리거나 넘어져 더 크게 다친다.

6. 우리나라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표현이나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란 표현처럼 애굽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다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10): 므딴은 애굽의 최북단의 성읍(나일강의 하류)이고 수에네는 에디오피아의 한 성읍(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최남단, 나일강의 상류)이다.

7. 거접이란 잠시 몸을 맡겨 거함이란 뜻이다. 잠시 거하는 짐승도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이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두로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뒤에 회복이 된다는 점: 40년이란 표현은 대체로 상징적인 기간으로 본다. 애굽이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지는 않겠지만(15) 그렇다고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지지도 않는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고레스의 정책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8. 애굽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의 교만이겠지만 장래에 무엇을 방지하기 위함일까?

이스라엘이 다시는 의뢰하지 못하도록(16):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고생하는 셈인가? 말쑥부리는 왕자가 있다면 죽여내는 것은 주변의 신하들이다.

9. 17절부터는 시기가 전혀 다르다. 17년 뒤의 예언이다. 30:20, 31:1, 32:1, 17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나중의 일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말하려는 의도: 두로를 공략한 느부갓네살에게 보수를 지불하느라고 애굽을 그에게 주셨으므로 애굽이 끔찍한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10.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협을 메우고, 운제와 토성을 쌓느라고(26:8):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략하는데 13년이 걸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반면에 소득이 별로 없었다. 두로의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 함락되기 전에 아마도 중요한 것을 다 빼돌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값을 애굽에서 찾으라는 말이니 애굽이 얼마나 노략을 당했겠는가!

11.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위하여(20) 두로를 함락시켰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뿐!

12. 애굽이 바벨론에 점령되는 날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유다가 의지하려면 애굽이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난 후에 유다는 다시 회복된다: 뿔은 권세를 뜻한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애굽과 메시아로 대표되는 뿔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킨다.

에스겔 30 장

1. 여호와와 날이 어떻게 이렇게 슬픈 날인가?

심판 받는 자에게는 그렇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심판 아니면 복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아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한다.

2. 구름의 날이란 구름이 하늘을 덮어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날이란 뜻이다. 열국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

동일한 의미: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이 열국이 망하는(심판받는) 날이다. 여기서는 애굽과 모든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가리킨다.

3. 애굽에 칼이 임할 때 왜 구스(지금의 에디오피아)에 심한 근심이 있을까?

같은 운명에 처할 것에 대한 근심: 지정학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를 침공하려면 애굽을 거쳐야 한다. 구스가 애굽과 동맹관계이거나 속국의 지위에 있다면 애굽의 멸망이 곧 자신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굽의 멸망은 근심거리다.

4.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부요함'을 포함하는 말이며, '기지'도 특정한 지역만을 뜻하는 것 외에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 '우리가 옮기우며 기지가 헐릴 것'이란 단순한 사람과 지역에 관한 의미를 넘어선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애굽의 부리가 뿔칠 것: 바벨론에 대패하고 지역의 패권을 넘긴 후, 본토까지 침공을 받은 이후 애굽은 더 이상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알렉산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5. '훗, 훗, 굶'이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른다(훗=리비아, 훗=리디아). 병렬 관계를 이루는 '모든 섞인 백성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과 비슷한 위치이면서 조금 다르다고 본다면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걸까?

용병부대(27:10 참고): 어쨌든 애굽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6. 애굽은 물론이고 그들과 동맹한 나라들도 그 날에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8). 한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얻어터지고서야 여호야를 알면 뭣 하나? 얻어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45세에 신대원에 입학했더니 젊은 동기생들이 가끔 물었다. '집사님은 어떻게 말짱하게 왔어요?' 그 나이에 신대원 올 때는 어딘가 얻어터지고 오는 법이라는 뜻이다. 농담 삼아 '집사로 있으면서도 목회자 못지않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다가 왔거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얻어터지기 전에 알아서 움직이는 것도 큰 복이다.

7. 애굽에 재앙이 임할 때 무슨 여유가 있어서 사자를 구스에게 보냈을까(9)? 도움을 요청?

사자라기보다는 피난자: 결과적으로 구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만 했다(9). 말하자면 애굽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소문만 전한 셈이다. '내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서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일 테고, 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나일강을 배를 타고 도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8. 느부갓네살을 동원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강은 왜 말리우실까?

강이 마르는 것은 전쟁을 용이하게 한다는 뜻이다: 팔레스틴에서는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 있으면 전쟁도 중지했다. 강이 마르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때 군대의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는 식량과 식수의 공급이 어려워진다.

9. 늪은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틀리지 않는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애굽 땅에서'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직접 왕을 수식하는 말이다. 즉 애굽 땅의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토착인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그 땅에 두려움이 있는 것: 훗날 애굽은 바사, 알렉산더 = 톨레미 왕조, 로마의 속주로 이어짐), 고대 제정일치 시대 때의 왕은 곧 신과 동등하게 여겨졌으므로 우상을 멸하는 것(13-15)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10.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언급되는 성읍은 몇 개인가(13-18)?

8개(훗=멤피스, 바르소스, 소안=고센 지역의 성읍, 노=테베, 신=헬루시움, 아웬=헬리오폴리스, 비베셋=부바스티스, 드합느헤스=다바네스): 거의 애굽 전역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앞에서 언급된 '구스, 훗, 훗, 굶'은 성읍이 아니라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6절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란 말은 '날마다 대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11. 멍에를 푸는다는 것은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사 58:6). 애굽에 심판을 베푸시는 문맥에서 어떻게 애굽 멍에를 푸는다는 말인가(18)?

이어서 반복되는 구절을 참고하면 애굽의 권세를 푸는다는 뜻은 분명하다. 다만 멍에가 권세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구약에는 그런 예가 전혀 없고, 신약에서 드물게 멍에를 메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가 있다(마 11:29, 고후 6:14, 빌 4:3). 멍에가 풀리면 소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애굽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12. 제 십일년 정월 칠일은 어떤 날일지 29:1절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애굽의 멸망에 관한 첫 예언을 한 지 석 달 뒤.

13.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펴었다는 것(21)은 무엇을 의미할까?(렘 37:7-8)

바로가 예루살렘을 도와줄 능력이 없게 하신 일: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도와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 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22-23).

14. 바벨론 왕이 온 세상을 점령하여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왕의 팔을 권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칼을 그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24-26): 바벨론이 득세한 이유를 역사책에서 찾아보면 위대한 왕의 등장이나 무기의 발달.... 이라고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고국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과 그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을 도와 주기를 바라는 애굽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는 주된 목적이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8, 25, 26).

에스겔 31 장

1. 애굽에 관한 말씀이 계속된다. 좀 많아 보인다. 이것이 네 번째인데 다음 () 속의 본문들을 시간대 별로 정리를 해보자(29:1, 29:17-30:19, 30:20-26, 31:1)

29:1절에서 애굽의 멸망에 관한 첫 예언을 한 지 석 달 뒤에 다시 예언을 했고(30:20-26) 두 달 만에 또 예언을 하는 셈인데(31:1) 제 십일년 삼월초 일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된다. 중간에 훨씬 나중의 일이 하나 끼어있다(29:17-30:19).

2.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의 큰 위엄을 뉘게 비하랴? 마치 무엇처럼?

앗수르처럼: 앗수르가 물가의 레바논 백향목처럼,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도 부러워할 정도로 위엄을 떨친 것처럼 애굽 왕 바로나 백성들이 그렇다는 말이다. 잘 났어 정말!

3.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앗수르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물가의 레바논 백향목: 다른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였다. 가지, 그늘, 키...

4. 앗수르의 번영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3-9)?

앗수르가 교만을 떨다가 깨끗이 사라진 것처럼 애굽도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내 뒤에 뛰는 녀석이 정말 잘 뛰더라'고 열심히 자랑해봐야 결국은 자기 자랑이다. 앗수르가 잘 났다고 아무리 자랑해 봐야 결국은 망했다는 얘기다. 애굽도 결국에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볼 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3)는 것은 지금은 없다는 말이다.

5.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앗수르가 가장 부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이 풍부한 것(4-5, 7)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강은 대체로 우기에 급격히 쏟아져 내리고 말라 버리는 와디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시류에 맞춰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농사를 짓는다. 큰 강이 흐르고 언제나 물이 흐르는 앗수르 땅이 몹시 부러웠을 것이다.

6. 물에도 깊은 물, 강물, 보의 물이 있으며(4) 가지도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있다(5). 당연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깊은 물, 강물과 굵은 가지는 앗수르를 가리키고, 보의 물과 가는 가지는 앗수르를 의지하는 민족과 국가를 의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앗수르가 번성했었다는 말이다.

7. 큰 나무에 의지하고 사는 짐승이 많듯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앗수르의 그늘에서 살았다(6).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그렇게 번성하던 앗수르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라는 말이다. 애굽도 그러할 것이다.

8.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가 투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가 있을 수 있나? 아무래도 이걸 너무 심한 과장 아닌가?

현실적으로 앗수르나 바벨론이 선민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하였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냐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렇게 잘났던 앗수르나 바벨론은 결국은 사라지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지는 듯싶어도 결국은 다시 회복시킨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함락되기 직전이었으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회의를 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9. 너무 잘 난 것도 죄인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교만이 문제다(10, 14). 잘 나고 부유하면서도 겸손하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신앙인은 배로 존경해야 한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부러지는 법이다. 앗수르라는 나무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빼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다. 교만이 문제다!

10. 역사적으로 앗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은 나보폴라살(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앗수르를 그의 손에 붙인 것은 바로 나다(11, 15) 외견상(=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뒤에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11. 16절의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는 8, 9절의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와 달리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뒤이은 '레바논의 뛰어난 아름다운 나무들과 동격이다.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17)이기도 하다. 내용상으로도 이스라엘이 먼저 음부에 떨어져서 교만하여 멸망당한 앗수르를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2. 앗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더니 느닷없이 '너'라니(18)?

2절에서 언급했던 애굽을 가리킨다: 앗수르의 멸망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너 애굽아! 너도 앗수르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내려가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 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에스겔 32 장

1.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십일년 4월경이니까, 십이년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일년여 후이다. 이런 시점에 애굽이나 바로에 대해 애가를 부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참고 렘 42:1-43:7)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도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탓이다. 그게 소용없는 짓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고집 센 자식들이다. 애굽에 관한 예언이 상당히 긴(29-32장) 이유이기도 하다.

2. 바로를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바로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뜻이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는 무슨 뜻인가?

이유없이 강을 더럽힌 죄인: 바다에 악어가 있나? 나일 강을 흔히 바다로 표현했었으므로 여기서도 바다(=원어상으로 된 강도 포함)는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다(29:3). 사자나 악어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왕 노릇 하기는 일반이지만 잘 다스려야 했다. 탁월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었다.

3. 하나님께서 언제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물을 들고 애굽에 가셨나?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가리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혹은 우연이나 필연으로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4. 거대한 악어를 잡아서 물에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공중의 새와 온 땅의 짐승이 배부르게 됨(4):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던 주변 민족들이 많은 유익을 보게 될 것이다.

시체가 골짜기를 메우고 피가 강을 이룰 것이라는 것(5-6): '헤엄치는 땅'이란 '물이 흘러넘치는 땅'이란 뜻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 같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온 땅을 뒤덮듯이 피가 흘러넘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5. 악어를 잡아서 물에 버렸는데 또 해와 달을 가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 성경에서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에 대한 심판을 악어사냥에 비유한 다음 또 다른 비유를 든 것이다. 아무리 찬란한 바로의 영광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가려진 태양일뿐이다.

6. 9-10절의 말씀은 '바로의 패망이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4)과 다르지 않는가?

4절은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던 민족의 입장이고 9-10절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민족들의 입장에서 본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인지는 잘 모르지만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7. 심판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다(11-12). 13절의 '모든 짐승'은 누구, 무엇을 가리킬까?

이전에 물을 흐리던 자, 곧 애굽의 교만한 왕과 지도자들: 바벨론을 동원해서 폐하려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8. 애굽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13-14 ↔ 15-16)?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다: 어차피 애굽의 회복은 미미하다(29:13-15). 정치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맑은 강은 기름같이 흐를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신약시대에 주어지는 기름 같은 영적인 복(신 32:13)을 가리킬 것이다.

9. 1-16절의 애가가 바로 왕에 대한 애가라면 17절 이하에 나오는 애가는 누구에 대한 애가인가?

애굽의 무리에 대한 애가: 애굽의 무리를 지하에 던져 먼저 지하에 간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란다.

10. 애굽의 무리들은 스스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19). 그러나 실상은 누구와 가장 닮았는가?

구렁이에 내려가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살육 당한 자나 칼에 붙인 바 된 자나 다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자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11. 20절의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고가는 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살육 당한 자이다. 이들이 애굽의 무리를 끌고 어디로 갈까?

자기들이 당한 것, 즉 칼에 엮으러질 곳으로! 가봐야 어디로 가겠는가? 자기들이 아는 곳밖에 갈 곳이 없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수준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없다.

12. 21절의 '용사 중에 강한 자'는 음부의 신참자를 교육시키는 고참이다. 뭐라고 외치는가?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도둑질하다가 먼저 잡혀 와서 고참이 된 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놈들이 온 것을 보고 '야 이 도둑놈들이 교방지게 누웠어?' 하는 격이다.

13. 애굽의 무리가 음부에 갔을 때 먼저 온 고참들은 누구 누구인가?

앗수르의 무리들, 엘람의 무리들, 메섹과 두발의 무리들, 에돔과 시돈의 무리들: 온갖 잡놈들이 다 모인 곳이라는 느낌이다. 한때 잘 나간다고 빠기던 무리들이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곳이다. 동창생 모임 같다. 지옥 동창생 명부다!

14.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나라 앗수르는 지하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아니다. 가장 깊은 곳(23)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이 구렁이 깊은 곳에 베풀렸다는 말은 가장 낮고 후미진 곳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그 동네에도 높낮이가 있을까마는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악한

모숨으로 떨어져 있다. 한 때에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인데... 지하에서는 가장 깊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말라!

15.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할례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할례'를 무슨 단어로 대체시키면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구원: 할례 받았다는 것은 구원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

16.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한다'는 표현도 괜찮은데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베개 삼을 것이다(27). 그러면 백골이 고생을 한단다. 멋진 표현이다.

17. 음부에 내려간 바로와 그 무리가 뭘 잘 했다고 위로를 받을까?

먼저 음부에 와 있는 자들을 보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며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당한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에스겔 33 장

1. 사로 잡힌 지 12년이면(21절)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때이다. 이 때 선지자를 보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끝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독청을 높였다(4-24, 25-32장).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끝이 아니다. 선지자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외쳐야 한다. 심판을 외칠 때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있었지만(14:22, 20:40-44)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한다.

2.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죽은 사람의 죄(6, 8의 자기 죄): 죽음은 범죄한 인생의 쫓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쫓김을 파수꾼에게 물었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쫓김을 묻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탓이라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3. 선지자의 역할은 파수꾼이다. 들든지 안 들든지(3:11) 위험이 있다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말씀인 딤후 4:2, 고전 9:16을 참고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전도: 오늘날 성도는 이런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 성도가 어떻게든 때를 잘 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다만 '들든지 아니 들든지'라는 표현에 너무 집중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4.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했으면 반드시 죽는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산다(8+11):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사약을 받고 죽는 것처럼 죽지는 않았다. 우리보다 열 배나 더 오래 살았다. 죽어야 할 인생에게 오히려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창 3:15).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11):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렵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쉽게 알 수 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셨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렘 5:1).

6. 선지자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에 일침을 가하는 셈이다(12). 범죄하면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이런 구원관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긴 생각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만으로 구원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생각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18:19-20). 구원은 조상 덕분도 아니요 과거에 행한 의 덕분도 아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7.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13)?

변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변하여 자기 의가 된 셈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만 의지하면서 교만하여진 상태(=스스로 믿고)를 가리킨다. 그러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잊은 자체가 죄다.

8. 하나님께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고 해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가?

돌이키면 된다(14-16): 돌이켜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리라고 하신다. 노름판에도 일수불퇴, 낙장불입이란 말이 있고 일국의 법도 한번 공포되면 변개치 못하는데(단 6:8)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9.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개인의 행위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가?

공평치 않다(17): 특별대우를 받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공평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우나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나 아비멜렉이었던 것이 좋은 예다. 그랬는데(=사랑 모드)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고, 법과 의를 행한 대로 살리겠다(=공의 모드)니 자신의 행한 바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처사만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10.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18개월 뒤) 도망한 자가 선지자에게 나아왔을 때 입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21-22)? 그 동안 선지자는 입을 열지 못했다는 말인가?

한동안 방어리로 지낸 모양이다(참고 3:26-27, 24:25-27, 눅 1:20):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선지자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쉬지 않고 외쳤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힘을 보탤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면서(겔 24:27).

11. 말을 못하던 선지자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인가?

외견상,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22):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나 모세가 팔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타난 현상과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해야 한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 때문에 옥터가 흔들렸을까? 그렇다면 찬송할 때마다 그랬을까?

12. 젓과 꿀이 흐르던 땅이 이제 황무한 땅이 되었다. 다 빼앗겨 버렸다.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아브라함보다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다함(2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 그만큼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숫자로 밀어붙여? 간 큰 인간인지, 머리가 나쁜 인간인지... 원.

13.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다 빼앗긴 셈인데도 여전히 이런 비극이 왜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 비극의 원인을 본문에 있는 간단한 말로 하면 무엇인가?

여호와를 몰라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14.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철저한가?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신다.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지하 깊은 곳으로 피하면 어떻게 될까? 물로 덮어버린다(사 28:17).

15.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할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16. 백성들이 선지자에게로 몰려왔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회개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 재미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거나 하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과 비슷하다.

17. 왜 선지자를 보고 '음악을 잘 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라고 하는 걸까? 선지자가 사랑노래를 부르고 다녔나?

아마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처럼 읊조렸기 때문 아닐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전부가 시다. 선지자를 선지자라기보다는 노래 잘 하는 자로 여겼다는 것은 결국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재미로 들었다는 것이다. 찬양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리듬과 분위기에 흥분하면 그것은 찬양이 아닐 수도 있다.

18. 매를 드는 아버지도 자식이 죽으라고 매를 드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는 듯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문득 드러나는 구절이 있다면 어느 구절인가?

11절: 이것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다.

에스겔 34 장

1.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결국은 양떼를 유리방황케 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유다가 망해가던 시절의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유력한 대상 아닐까?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될 것
이고.
2.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배만 불리느라고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3, 8). 그런데도 살
진 양이 있었을까?
자기 먹을 양은 따로 챙겼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도 자기 먹을 것은 챙기는 것이 부패한 지도자의 부
패한 모습 아닌가!
3. 목자가 당연히 돌보아야 할 대상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이다. 이들을 돌볼
생각은 않고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강포로 다스림(4): 권력을 휘둘렀다는 말이다. 공부 잘 하는 학생과 지지리도 못 하는 학생 중에서 누구를 선
생님이 더 잘 돌보아야 할까?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 누구에게 더 사랑을 쏟아야 할까? 누구를 더
좋아할까?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더 사랑을 쏟으셨다.
4. 자기 배만 채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자가 있기는 있는데 왜 없다(5)고 하시는가?
있으나마나 하나(4, 8):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흩어지고(내적 분열 상태를
의미함) 나라는 약해진다. 그러니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하는 것이다.
5. 양떼가 다 흩어졌는데도 흩어진 양떼를 찾는 목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셔야 했다. 어
떤 목자를 보내주셨을까?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선한 목자(마 18:12, 눅 15:4)
6.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누구의 죄인가?
목자(8): 나라가 넘어가는 책임도 대부분 지도자의 잘못이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17-22) 그래도 말을 듣게 할 책임이 목자에게 있다.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7.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무엇을 빼앗으시는가?
양 무리뿐 아니라 자기의 양식(10):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던 자들은 자기 배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배마
저 굶게 만드는 법이다.
8. 있으나마나한 목자들은 쫓겨날 것이다(10). 쫓겨날 목자들에게 양들의 장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11-14)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일종의 간접화법이다: 목자들을 간단하게 책망하면서 양들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어차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양들이다.
9. 무능한 목자를 쫓아내 버리면 목자 없는 양떼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됨(12-16): 본토로 데려와서(13), 좋은 풀을 먹이고(14), 평안케 하리라(15), 혹시 병든 양은
건강하게 돌볼 것이다(16).
10. 하나님은 살진 자와 강한 자에게 무슨 유감이 그리 많으신가(16)?
**대부분의 양이 파리한데 살진 양이 있다는 것은 이 양이 거짓 지도자에게 빌붙어 다른 양을 착취한 중간 지
도자층을 가리키는 말이란 뜻이다:** 나쁜 목자가 살지거나 강한 것은 이해가 된다, 나쁜 목자니까. 양떼 중에
서 파리한 양이 있고 살진 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양을 압제한 양이 있었다는 말이다.
11. 살진 양이나 염소의 잘못이 무엇인가?
좋은 풀 먹은 것과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18): 자기들의 배가 부르니 먹고 마시는 것에 대
한 감사가 전혀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남의 양식과 물을 발로
밟아버렸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면 우리가 맡은 일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랴?
일상적이라고 가볍게 여겼던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자.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려두라(레 23:22)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밭주인도 떨어진 이삭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물며 수고함도 없
이 거저 주어진 것들(공기, 물, 생명,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12. 이스라엘은 국력이 쇠하여 결국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백성들은 끌려갔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
지 않은 것이 국력을 약화시킨 주원인이겠지만 지도자들에게서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약한 자, 병든 자를 염소가 뿔로 받듯이 우리 밖으로 흩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하나되지 못하니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13.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더니(15)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고(23) 다윗은 죽은 지 오랜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그림자 노릇
을 한 그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
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요 14:6, 행 4:12).
14.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친히 목자가 되시면 양떼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평안함(25): 저수지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복된 장맛비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때를 따라 내리는 비, 복된 장맛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땅이 소산을 내야 하고 그것을 노리는 자들
이 없어야 한다(2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 평안함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도대

체 왜 그럴까?

15. 빈들이나 수풀은 본래 양들에게 그렇게 평안한 곳인가?

어림도 없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그런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맹수를 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25).

16.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면 그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다: 부유한 것이 자칫 잘못되면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생선이나 마찬가지다. 생선을 빼앗기 위해서 짐승들이 아이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거한 땅은 모든 열강들이 세력을 뻗칠 때 지나가는 길목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17.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말일까?

언약의 확실성 아닐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하신 약속(출 6:7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약속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사람인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에게 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 같다.

유명한 종식(種植)할 땅 = 파종하기에 좋은 땅

에스겔 35 장

1. 왜 세일산을 치라고 하시는가? 세일산이 누구를 의인화시킨 표현인가?

에돔(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결국은 회복을 말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의 결과는 완전한 사라짐이다.

2.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가?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황무지와 놀라움은 어근이 같다. 놀라울 정도로 황폐화됨을 의미한다.

3. 세일산이 한을 품은 옛날이란 언제인가?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 이후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지냈다.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에돔의 영지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통과할 때는 밭의 곡식은 물론 우물물에도 손을 대지 않고, 다만 왕의 대로로만 통과할 것을 약속했지만, 에돔은 이를 거부하고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대항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리를 하여 그들의 영지를 통과할 것을 원치 않아 다른 길을 택하여 갔다(민 20:14-21). 이와 같은 적대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로서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손은 3대째는 여호와와 동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하여졌다(신 23:7, 8).

사울은 에돔과 싸웠다(삼상 14:47). 다윗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민 24:17-19) 에돔 수비대를 두고 이를 통치하였다(대상 18:13, 시 60:1, 삼하 8:13, 14).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에돔에 6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남자를 모두 죽였으므로(왕상 11:15, 16) 하닷은 에돔 사람 몇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후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왕상 11:14-22).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에돔 자손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과 더불어 유다를 공격했으나(대하 20:1, 2) 여호와께서 유다를 도우셨으므로 실패하였다(대하 20:22, 23). 그 당시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왕상 22:47, 왕하 3:9에서 '에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가담했으나(왕하 3:4-27),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치세에 배반하였다. 여호람은 에돔 왕을 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에돔은 유대의 지배를 벗어났다(왕하 8:20-22, 대하 21:8-10).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염곡(鹽谷)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도성 셀라를 점령하였다. 또, 에돔 사람 1만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였다(왕하 14:7, 대하 25:11, 12). 그러나 아하스 왕 치세에 베가와 르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왕하 16:5)에는 에돔 사람도 유다에 침입하여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대하 28:17).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에돔 사람은 크게 기뻐하였다(시 137:7). 선지자들은 이 뿌리 깊은 적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겔 35:5, 6). 그러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렘 49:7-22, 애 4:21, 22, 겔 25:12-14, 35:15, 욥 3:19, 암 9:12, 욥 1:1-21). 에돔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의 증오감은 더욱 심해졌다. 유대의 포로 후 에돔 사람은 유대 남부에 침입하여 후에 이두매인으로 되었다.

4.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의 구약적 표현이 본문에 있다면?

죄악의 끝은 환난(5) 이스라엘이 끝없이 지은 죄는 결국 환난으로 막을 내린다.

5.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세일의 한 때문인가(5)? 괜히 분풀이 하시는 것 아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망을 들어도 달리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일단 죄인이 되면 좀 덮어써도 할 말이 별로 없다! 칼의 권능이란 칼을 잡은 손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긴 것을 의미한다.

6. 세일이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형제의 피 흘림을 즐거워했다. 그러므로 피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너도 한번 맛을 보라는 것이다.

7. 세일이 말하기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좋아했던 두 민족과 두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스라엘과 유다: 세일은 아예 이 두 나라를 다른 민족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고약한 발상이다.

8.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가져와서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경찰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

죽었지 머(11): 세일이 주인이 사라진 땅을 기뻐하며 접수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기절할 노릇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 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희망의 말씀이지만 그 민족과 그 땅을 탐내는 자들에게는 경악할 일이다.

9. 에돔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뻐하고 바벨론과 연합하여 그 땅을 노리는 따위의 행동은 단순한 욕심 정도의 죄가 아니다. 무슨 죄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13)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10. 에돔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즐거워할 때에 홀로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14). 다윗의 노래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때 상을 받는 사람이야 즐거움의 극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원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때 원수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즐겼는데...' 라면서(15).

에스겔 36 장

1. 왜 산을 보고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기 때문: 34장에서 새로운 목자가 출현할 것을 예고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땅의 회복을 말하려는 의도에서 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

2. 이스라엘 산을 가리켜 대적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옛적 높은 곳: 산을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옛적 높은 곳이라고 할까? 한때는 쳐다보지도 못하던 곳인가?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다.

3.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하면 안 되나?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면 분실물 무단점유, 횡령이던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목은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5). 그렇게 하나님의 투기심을 유발했다.

4. 황무케 된 이스라엘은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 조롱거리'를 술 마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네 글자)로 줄여보자.

안주거리: 면전에서 마주하고 말은 못하지만 뒷사람의 실책을 씹는 재미는 보통이 아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을 씹는 맛이랄까?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씹고 즐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는 않겠단다.

5. 이스라엘이 떠난 땅을 차지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한 투기를 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5):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차지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땅이었다. 그들이 멸시한 것은 하나님이였다.

6. 이스라엘 산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된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열매를 맺지 않던 나무들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단다(8):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갈고 심는 것도 효력을 얻게 된다(9). 어쩌면 오늘날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 아닐까?

7.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과실(8), 농산물(9), 사람(10), 집(10), 짐승(11), 평화(12): 목숨만 건지는 식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대체로 전쟁과 질병 탓이다. 이런 위험도 없어야(=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8.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산을 보고 하는 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는 말(13)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터가 나쁘다: 사람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터를 잘못 잡아서? 한국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참 많다. 날씨, 때, 운수, 조상, 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결코 그 땅 때문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 다시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겠단다. 땅을 고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신다는 뜻이다.

9. 정결례에 따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레 15:19). 이스라엘이 이런 여인과 닮은 점이 무엇인가?

땅 위에 피를 쏟았다(18): 살인은 물론이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흘린 짐승의 피도 해당될 것이며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굶게 만든 모든 죄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에 닮은 점이 있는가?

쏟는 행동: 이스라엘은 피를 쏟았고, 하나님은 분노를 쏟았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풍을 던지시자(=내리시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서로 닮았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이 유머러스하게 담겼 듯하다.

11.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땅에서 떠난 자'라고 조롱당하는 것은 결국 누가 피해를 입는 것인가?

하나님: 고대 이방인들의 신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신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꼈노라(21)고 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22): 굳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 하면서도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심정과 비교해 보자.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신 7:7과 시 23:3 삼상 12:22 출 32:12를 참고하자. 그렇게 해서 열국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단다.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누구의 복인가?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취하여 고토에 데리고 가서(24),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25, 레 14:8, 민 8:7),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26)과 하나님의 신을 주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할 것이며(27) 곡식을 풍성케 할 것이다(29-30). 반면에 이스라엘이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결과적으로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와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31).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특히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신은 신약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민족적인 회복을 넘어서 메시아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14.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33-36)?

모든 사람의 눈에 확실히 보일 만큼(명약관화) 풍성함: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주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보는 자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손이 크신 하나님이다.

15.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기도하는 하라고(37)?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일 뿐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은 기도 때문이 아니다. '기도했더니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다. 거지가 밥을 얻어 와서 밥을 많이 얻은 비결을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긴 그것도 거지들끼리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 그래 잘난 거지다!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은 포도원 비유에서 주어지는 품삯처럼(마 20:1-16) 주인이 베푸는 은혜일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에스겔 37 장

1.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라빠진 뼈다귀다. 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서 흩어졌는 데다 정신적 지주였던 예루살렘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므로: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고(11), 무덤에 갇힌 자였다(12).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것은 다 죽었고, 죽은 지 오래 되었다는 뜻이다.

2. 어떻게 말라빠진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주께서 아시나이다(3, 계 7:14) 참 좋은 답이다. 나는 모른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된 말이다. 이 말이 의미가 약간 변질된 채 영어에 남아있다. 그래서 *God only knows* 하면 *Nobody knows*란 뜻으로 쓰인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신 것(창 22:8)도 마찬가지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못 한다' 하지 말고 '주께서 하시리이다' 하자. 주님께서 하시려면 바깥 다른 해골도 살아날 수 있다.

3. 바깥 다른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근육이 붙고 살이 올라 생기를 찾고 일어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마디로 ()이다.

기적, 불가사의: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더 멀리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범죄하여 죽은 인생을 독생자를 희생시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일 뿐이다.

4.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6, 13).

5. 다른 뼈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느라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혀도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생기(10): 곧 성령을 가리킨다.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는 제자로되 온전한 제자는 아니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생기가 들어가서야 생령이 되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생기에 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에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다(14).

6.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선포했더니 해골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 맞는 말인가?

위험한 생각이다. 해골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선포했더니 해골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는 표현은 놀라운 회복의 원인이 선지자인 것처럼 이해되기 쉽다. 주의해야 한다. 이 놀라운 기적의 근본원인은 선지자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7. 해골이 살아서 군대가 되려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자기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옳은 말인가?

위험한 대답이다. 해골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골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기적의 근본원인은 해골에게도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8. 이스라엘은 단순히 회복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력적인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10절의 '큰 군대'). 훗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역사적으로 강력한 적은 없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현대에 와서 비록 무시 못할 민족이 되고 했지만 본문이 현재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다(롬 2:27-28, 9:6-8).

9. 11-14절은 환상의 구체적인 해설이다. 뼈들은 골짜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가?

무덤(12-13):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것이 무덤에 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고토로 인도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고토귀환은 전혀 이스라엘 자신의 공로가 아니다.

10. 해골이 뼈가 맞춰지고 살과 가죽이 붙었지만 생기가 들어가서야 군대가 되었다. 무덤 속의 이스라엘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성령):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인간은 동물이나 다름없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11. 하나님께서 왜 다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가?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13, 14) 무엇이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안달이 나셨는가? 언제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알 것도 같은데...

12.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란 표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복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인지 애매해진다. 후자가 복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자의 '유다의 짝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홀어진 북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아마도 남쪽 유다로 온 사람들 아닐까? 대하 11:13, 15:9에 따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특히 대하 30:1-27에 따르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유다의 통치력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뻗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왜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할까? 자그마치 열 지파가 뭉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그 중에서도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더 중심에 있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호세아, 민 13:8)가 이 지파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여 후일에 종교적 중심지가 된 실로도 에브라임의 경내에 있었다. 이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여 다른 지파와 종종 마찰을 일으켰다(삿 8장, 12장).

14.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 이제 와서 하나로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일이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탓이다.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창 1장: 나누어진 것을 보고는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았음).

15. 그냥 선포하듯이 말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이상한 막대기를 들고 설명을 해야 하는가?

시청과 교재를 활용하는 것: 어른들에게도 이런 시청각 교재를 쓰는 것이 더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된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이다. 하긴 나라마저 깨끗이 망해버렸는데 오래 전에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겠다.

16.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헬라제국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 세운 나라와 왕의 이름은? 다윗 왕조인가(24-25)?

하스몬 왕조(BC 142-63)의 요한 힐카누스: 역사적으로는 마카비 가문의 맛다디아 → 유다 마카비우스 → 시몬 → 요한 힐카누스(BC 135년에 왕으로 즉위함)로 지도력이 이양되었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 나라와 임금이란 영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24, 25-26).

17. 이스라엘이 다시는 더럽히지 않을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23)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기 전에 행한 죄악들: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에는 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여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시겠다. 옛날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홍수로 징계하신 후에 다시는 징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차피 버릴 수 없는 자식이니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18.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최초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왜 야곱에게 준 땅이라 할까(25)?

잘 모르겠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이 더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에 대한 애정 때문 아닐까?

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땅, 자손, 왕(25) 화평, 권고, 번성, 성소(26) 등인데 핵심은 하나님이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영원함에 있다.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훗날 세워졌다가 허물어지는 성전이기는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서의 집이다.

20.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셨을까? 아니면 어디서 하셨을까?

출애굽 때 이미 하셨다(출 20:2): 800여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신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출애굽 때 처음 하셨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루시지 못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셔야 했을까?

에스겔 38 장

1. 선지자는 몇 명의 왕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1명(곡): 2, 3절을 보면 한 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마곡(마케도니아? 스구디아?)이 어디를 가리키는 곳인지는 몰라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란 것은 문맥으로 알 수 있다(3). 온통 모르는 지명이니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정도로 넘어가자.

2. 이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지는 접어두고 왜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여 돌이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지 추측해 보자.

곡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징계하시려는 것이다. '돌이켜'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원래는 곡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는데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께 대적한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3. 온 세상의 모든 군대, 심지어 바사까지 거느리는 연합군의 대장(7) 곡은 누구일까? 계 20:8을 참고하자.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곡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사실 겔 38-39장은 묵시문학이다.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대적자들은 사탄의 하수인을 가리킨다. 아담을 꼬드겨 하나님의 사역을 훼방한 사탄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바사(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동쪽, 구스(에디오피아)와 붓(북아프리카의 키레나이카)은 이스라엘의 남쪽, 고멜(김메르, 즉 게르만)은 서쪽, 도갈마(아르메니아)는 북쪽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연합군이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이스라엘의 사방, 즉 온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영적 사건임을 의미한다.

4. '스스로 예비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영어로 말하면 재귀대명사가 동사에 붙어 있는 꼴이다. 즉 강조의 의미다. 그래서 어떤 역본은 '한반의 준비를 갖추고'라고 번역했다.

5.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표현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말세에: 먼 훗날, 곧 마지막 때에'라는 뜻이다.

6. 곡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백성을 광풍같이 몰아치는 것은 누구 탓인가?

악한 죄를 부린 자기 탓(10-13):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4-6)?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일에 관한한 사람의 의지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이용하도록 자신을 내어준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사람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7. 곡이 어디를 치는가?

한때 황무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어 평안한 이스라엘, 세상의 중앙(12): 이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치겠다는 것이다. 죽을라꼬? 세상의 중앙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특별히 골라서 준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땅을 치겠다고?

8. 평원의 고을(11)이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는 고을과 동격이다. 고대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란 어떤 경우일까?

전쟁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백성: 국방이 완벽한 경우를 가리킨다. 국경선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을 때 백성들은 성벽이 없는 평원에서 살지만 국경이 불안해지면 산성이 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고 평원은 용도가 떨어진다.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외적을 막아주는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9. 곡이 온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칠 때 등장하는 또 다른 무리는 '상고와 부자들'이다. 이들은 누구의 편일까?

상고와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 편이다.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나 곡이냐가 아니라 은과 금이요 짐승과 재물이다: 결국은 곡의 편에 서게 된다.

10. 선지자는 곡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14-17)? 곡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까?

곡에게 핑계거리는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대적자 곡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겠는가?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니 하는 것이지. 더구나 일이 잘못되면 핑계거리도 있겠다.

11. 온 세상의 능한 군대(15)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함(16): 그게 그렇게 소원이신가? (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12. 하나님께서 언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곡에 대해서 말씀하셨나(17)?

구체적으로 곡을 상대로 하신 말씀은 없다: 그것은 곡이 구체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모든 선언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13.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 그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20, 참고: 계 11:13, 16:18). 지진 뿐 아니라 온갖

자연재해가 총동원될 모양이다(20, 22).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왜 곡이 이끄는 연합군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23):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14.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 온갖 자연재해가 들이닥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 온갖 자연재해를 동원해서 치는 것은 대적자들이다. 고센지방에 거하던 이스라엘처럼 이런 재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모습처럼!

에스겔 39 장

1. 이왕지사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면 무엇을 하려고 먼 북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시나?
곡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처절하게 심판당하는 곡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7).
2. 활을 못 쓰게 하려면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한쪽만 못 쓰게 하면 된다.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을 다 떨어뜨리는(2) 이유는 무엇일까?
철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로잡은 병거의 말을 힘줄만 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곡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다.
3. 곡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가?
매장되지 못함: 고대 근동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로 여겨졌다.
4. 곡의 군대가 어디에 엎드려진다고?
이스라엘 산(2, 4) 빈 돌(5) 산이야 돌이야? 아마도 곡이 쳐들어 온 곳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혹은 그들의 본거지와 비교하면 산이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을 세운 산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 산을 다 점령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산성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뜻 같다.
5.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직접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마곡과 밋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6)는 어떤 자들일까?
본토에 있는 군사와 멀리서 지원하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치는 곡의 군대는 과장되게 말하면 세계적인 연합군이다. 섬이란 멀리 떨어진 곳이며 전쟁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곳인데 그곳마저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6. 노획한 병기를 7년간이나 떨감으로 쓴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가?
무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죽은 군사의 숫자가 많을 것을 의미한다.
7. 11절의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는 사해 앞 쪽의 요단 골짜기인 셈이다. 애굽에서 갈대아로 통하는 무역로다. 이 넓은 골짜기를 온통 매장지로 쓰겠다는 말이다. 그것도 7달이나 걸려서! 결국은 골짜기의 이름마저 바뀔 것이다.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인가?
죽은 군사의 숫자가 많을 것: 노획한 무기의 양이 많은 만큼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문(=무리)곡의 골짜기는 곡의 군대 골짜기라고 할 수도 있다. 짐승들이 뜯어먹고 남은 시체가 계곡을 메우는 셈이다.
8. 사람을 택하여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장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땅을 정결케 함(14, 16): 심판으로 인한 주검을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것도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9. 하문곡에 7달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들짐승들의 잔치는 언제 열린다는 말인가?
4절과 연관된 내용이다. 장례를 치르는 얘기는 장례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죽은 자가 그렇게 많다는 점과 땅을 정결케 하는 얘기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짐승의 밥이 된다는 말이다.
10. 그 날 이후에 열국의 오해가 풀려질 것이다. 열국이 무슨 오해를 했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줄로 아는 것: 고대 전쟁의 결과는 곧 신들의 우열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탓이란 것을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열방도 알게 되리라. 동일한 사실을 알게 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11.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1:1-39:24)과 먼 땅 곡의 연합군을 불러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가하시는(38:1-39:24)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기 백성의 구원(25):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지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2.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회개함(26):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앞으로 가 능하다.
13.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신을 쏟았기 때문(29):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다. 후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한번 마음먹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랄 수 없다. 마치 '내가 하겠다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딴여?' 하시는 듯하다.

에스겔 40 장

1. '사로잡힌 해'와 '성이 함락된 해' 사이에는 11년의 간격이 있다. 이 11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바벨론의 2차 침공(BC 597)과 3차 침공(BC 586)의 간격, 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사로잡혀 왔다. 그후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비록 속국의 왕이나 마찬가지로 했지만 그래도 유다의 왕으로 간재했다. 백성의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판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도 벌써 20년째다.

2. 이스라엘 땅에 극히 높은 산이 있나?

예루살렘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가리켜 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회복될 것에 대한 비유다(사 2:2-3).

3. 성음이면 성음이지 성음형상 같은 것은 또 뭐야?

현재는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이기 때문에 하는 말: 장차 선명하게 드러날 날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흐릿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4. 눈같이 빛난 사람은 천사일까, 하나님일까?

굳이 분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에스겔을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나게 된 분이 눈같이 빛난 사람이다. 데리고 간 분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신 데도 '내가 너를 데려왔다'고 하신다(4). 결국 우리로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5. 삼줄은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줄자다. 삼줄과 척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뭘 하지?

길을 잴: 건물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도구이다. 반면에 건물을 허물 때는 먹그릇이 요긴하다. 가위표를 그려두면 끝장이다(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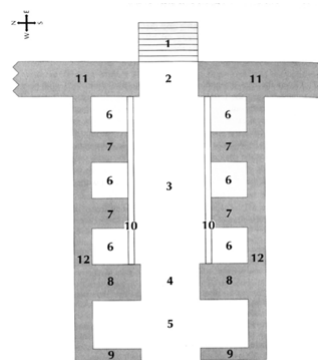
6.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다 깨달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4): 성경을 무조건 읽기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읽으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베드로가 같은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도 듣는 즉시 모두가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바로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지만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

7. 척량하는 장대의 길이는 얼마인가?

장이 ...육 척이라: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면 한 규빗(약 45cm)인데 여기에다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길이의 자(53cm 정도? 왕실 규빗이란)로 육척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3.2m로 번역했다.

※ 다음 그림은 동문의 평면도이다(출처, *Daniel I, Block, Ezekiel. Eerdmans*). 성전 바깥쪽의 동쪽 문에 관한 설명(6-16)에 참고하자.



The Outer East Gate of Ezekiel's Temple (40:5-16)

8. 담의 두께가 높이와 같다면 굉장히 튼튼한 담이다. 이 집은 나중에 보면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의 담을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는 외부의 침입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세속과 거룩함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함을 보여준다. 성전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성도는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9. 새 성전의 이야기를 동향한 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정문인가보다. 하나님께서도 이 문으로 들어오신다(43:1-2). 문통<그림의 2>이란 문지방을 가리킨다. 이 문지방의 장(+길이)은 무엇과 같은가? (참고로 6절의 문 안통이란 내부에 있는(=현관 앞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문지방<4>이다.)

담<11>의 두께: 문지방의 장이 담의 두께와 같다는 것은 문지방이 담의 일부라는 말이다. 원문상으로 층계는 담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이다.

10. 문통을 넘어서면 좌우에 문지방의 방이 있다. 문지방의 방은 전부 몇 개인가?

6개(10절) <6>: 치수는 다 같이 6×6척이다.

11. 안 문지방<4>을 넘어서면 현관<5>이 있다. 이 현관의 장은 한 장대라고 하더니(8), 또 척량하니 팔 척이더

란다(9). 왜 말이 다르지?

아마도 순수하게 현관<5>은 육 척이고, 문벽<9>까지 포함하면 8척이라는 뜻 아닐까?

12. 문지방의 장은 6척이라고 했는데(땅은 십 척) 여기서는 십삼 척이란다(11).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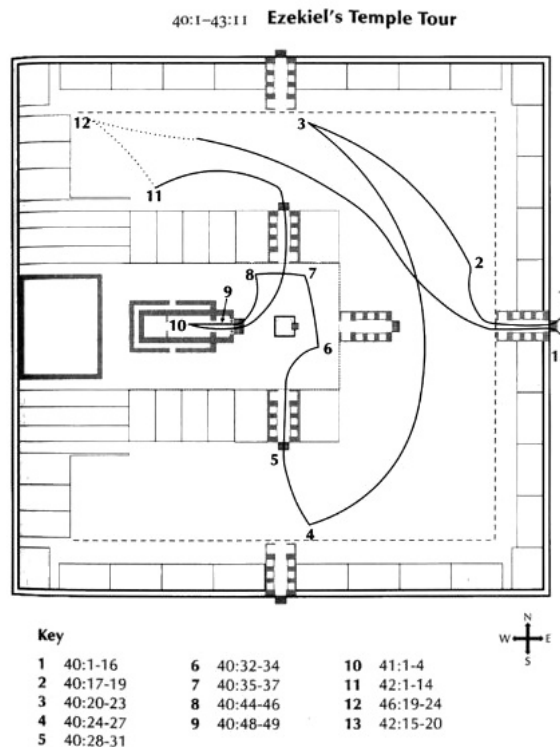
13. '방 앞의 퇴'<10>는 경계를 짓는 '안막이 벽' 혹은 '울타리, 난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방과의 거리를 뜻하는지 분명치 않다. 문간이란 문지기 방을 포함한 동문의 쪽을 말한다. 이게 어떻게 이 십오 척이 되는가(13)?

좌우의 문지기 방이 12척이고 문통이 10척이다(11). 나머지 3척은 문지기 방에서 조금 더 뻗어있는 지붕의 끝 부분으로 보면 되겠다. 이것은 문지기방과 뒷쪽의 벽 사이의 공간일 수도 있다. 이 넓이를 한 지붕으로 다 덮었던 모양이다. 뒷벽<12> + 문지기 방 + 문통 + 문지기 방 + 뒷벽을 가리킨다. 뒷벽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14.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오십 척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바깥 문통 6척(6) + 문지기 방 28척(6×3, 방 사이의 공간 5×2) + 안 문통 6척 + 현관 8척 + 현관 문벽 2척 <2+6×3+7×2+8+5+9>: 이렇게 계산하면 11번 질문의 답이 틀려진다. 모르겠다!

※ 다음 그림은 새 성전의 평면도와 에스겔의 이동 과정이다(출처, *Daniel I, Block, Ezekiel. Eerdmans*). 43:11절까지 이 평면도를 보면서 읽어가자.



15. 바깥 뜰에 들어가니 (17)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성소에서 보면 바깥 뜰인데 에스겔은 바깥 문에서 들어오면서 설명을 듣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바깥 뜰은 고 유명사인 셈이다.

16. 담을 끼고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방은 포장된 돌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가?

아래 박석 땅: 그림의 점선 바깥 부분이다.

17.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세 개(동, 남, 북)가 있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쪽 문과 가장 가까울까?

다 똑같다: 모든 바깥 문에서 가장 가까운 안쪽 문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게 일백 척(약 53m)이다. 어디로 들어가도 같은 거리에 안쪽 문이 있다.

18. 20-23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북문도 동문과 동일하더라. 같은 이치로 24-27절의 내용은 남문도 북문이나 동문과 동일하더라는 말이다.

19. 28-31절은 안뜰의 남문에 대한 설명이다. 바깥 문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계단의 수가 하나 더 많은 8개다(31절 ↔ 22, 26절).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한 점(↔ 바깥 문의 현관은 안으로 향해 있었다): 그러면 바깥 문과 안 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셈이다. 30절은 해석이 불가하단다.

20. 32-34는 안쪽 동문, 35-37은 안쪽 북문에 대한 설명인데 모두 동일하다. 결국 6개의 문이 크거나 모양이 같은 셈인데 그냥 '갈더라'고 하지 이렇게 일일이 다시 설명하니 읽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에스겔이 전해주는 말씀에 대한 감격의 유무차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성전이 불에 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주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다. 계단 하나하나를 즈려밟고 지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힘 드는 일이 아니라 감격을 맛보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전에 이르는 사람은 15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야 하는데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15편이다(120-134). 한 계단 오르면서 한 편씩 부르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서에도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있다. 수 12장에는 죽은 왕들의 이름만 잔뜩 기록되어 정말 재미없다. 그 부분도 즐거움으로 읽으려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맨몸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을 상상해 보자. 지면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 이긴 감동을 느끼면서 읽는 자에게 엄청난 감격일 것이다. 그렇게 노력해 보자.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고 따분하면 그냥 넘어가자.

21. 안 문을 들어서면 옆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 현관 이편저편, 입구의 이편, 저편, 번제에 쓰는 상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상이 몇 개인가?

12개: 39절은 현관 안쪽, 40절은 입구의 바깥 쪽, 41절은 다시 정리하는 셈이다. 그래서 희생물을 잡기 위한 8개의 상과 도구를 놓아두는 상이 4개가 더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문 하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른 문도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제사를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갖추어진 셈이다.

22. 일반적으로는 성전이란 건물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장식이 많이 보인다. 에스겔의 성전 내부에 들어서면 무엇이 가장 인상적일까?

벽의 사면에 갈고리가 걸린 것: 푸줏간에 걸려 있는 갈고리와 같은 것이 사면 벽에 잔뜩 박혀 있다면? 피 흘림이 없는 사합도 없다(히 9:2)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장면이다.

23. 성전에서 수종 드는 제사장을 왜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사독의 자손이라고 할까?

다윗시대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아비아달과 사독)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사독이었다. 그 후 사독이 혼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엘리에게 하신 말씀(삼상 2장)의 성취이기도 하다(2:27). < 엘리 → 아히둡 → 아히멜렉 → 아비아달 >

24. 안쪽 문을 통과하면 또 뜰이 있다. 이 뜰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성소 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단: 성소와 비교하면 물두멍이 없다. 제물을 씻는 방이 있었으니 물두멍이 따로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25. 드디어 성전 현관에 도착했다. 성전 현관의 전체 폭이 얼마인가?

현관의 광은 20척(실제 고물의 폭?) 문과 문 벽은 16척인데 아마 전체 폭보다는 조금 좁은 말하자면 현관의 불쑥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다(왕상 6:3의 '당실' 같은 것?)

26. 40-4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성전의 모습이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심: 사라진 정신적 고향, 성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 성전의 모습은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과는 전혀 다르다. 후일에 세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과도 다르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한 상징이다.

에스겔 41 장

1. 성소 문 벽의 두께는 육 척, 문통의 광은 십 척이다(성소의 입구가 폭이 십 척, 깊이가 육 척인 셈이다). 벽이 굉장히 두터운 집이다. 지성소를 제외한 성소의 장은 사십 척, 광은 이십 척이다. 그러면 원래 성소와 크기나 비율이 어떤가?

비율은 같지만 크기는 배로 크다.

2. 내전 문통의 벽은 왜 이렇게 얇을까(육 척 → 이 척)?

일반 건물에서도 내벽은 외벽보다 얇은 것이 정상이다. 같은 이치로 내전의 문도 더 좁아진다(10척 → 6척).

3. 에스겔이 성전을 보게 된 것은 천사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이다(40:1, 4, 17, 28, 32, 35, 48, 41:1, 42:1). 자신을 잘 데리고 다니던 천사가 혼자 들어간 곳은 어디인가?

지성소(3):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갔던 곳이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 속에서도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친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히 10:19-22).

4. 골방은 전부 몇 개인가?

90개: 성전 전체의 장은 60척이므로 골방이 붙어 있는 삼면의 길이는 140척이다. 그 바깥에 4척짜리 골방이 있다면 한 층에 30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의 삼면에 골방이 3층으로 있다. 웬 방이 이렇게 많을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요 14:2).

5. 벽을 따라 골방을 붙여지었는데 어떻게 전의 벽을 침범하지 않았을까? 윗층일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점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왜 그런 식으로 골방을 만들었을까?

돌보를 성전 벽에 걸치지 않으려고 아래 쪽 벽을 두껍게 해서 위로 가면서 조금씩 줄였을 것이다. 가령, 한 쪽의 1층 벽은 두께가 1.5규빗으로 하고 2층 벽은 1규빗, 3층은 0.5규빗하는 식으로 벽의 두께를 줄이고 동시에 내부 면적은 1규빗씩 늘어났을 것이다. 외벽은 수직이고 내부 벽의 두께가 돌보를 얹을 턱의 넓이만큼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데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서 침범당하지 않아야 함을 상징한다.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나 악한 영에 의해서 결코 침범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6. 성소와 골방은 지대가 육 척이나 높았다(8).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표현을 40장 끝부분에서 찾아보자.

성소 앞 쪽에도 또 계단이 있었다(4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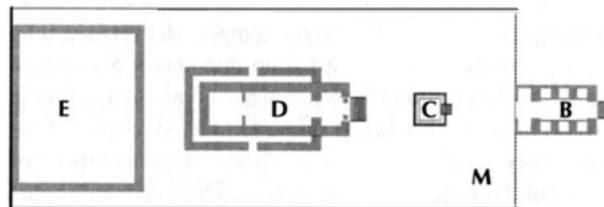
7. 골방 바깥 벽 두께는 오 척이란단. 성전 벽두께는 얼마더라?

6척(5):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골방은 제사장이나 성전에 수종 드는 사람의 방이라서!

8. 골방은 성소에 붙어 있는 방이다. 그러면 골방에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해야 하나?

빈 터로 나와서 돌을 따라 가서 성소의 현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그림을 참조하면 빈 터로 나오는 출입구는 남, 북에 하나씩 있다). 골방에서 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없다.

(다음 그림은 40장 성전 평면도의 핵심부분만 떼어낸 그림이다. 9-10번 질문에 참고하세요)



9.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이라면(12, 아래 그림의 E) 성전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인데 외견상 성전보다 훨씬 크다(폭이 뜰과 같다. 벽의 두께까지 포함하면 80×100 ↔ 32×74<내전의 벽 2척 포함>). 용도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추측만 할 수밖에 없다. 본체보다 더 큰 부속건물이 왜 필요했을까?

폐기물이나 오물을 처리하고 보관했다가 성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일종의 창고로 추정한다.

10. 윗 그림에서 B 부분을 제외한 사각형의 대지는 가로 세로가 얼마인가(13-15a)?

300 × 100척: 길이만 따지면 13절의 100척 전(D) +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E+ 앞 뜰) 100척 + 14절의 동향한 뜰 100척이다.

11. 솔로몬 성전의 내벽은 전부 순금으로 덮었다. 에스겔 성전의 내벽은 무엇을 덮었는가?

닐판으로! 에스겔 성전은 일종의 상징일 뿐인데 왜 실재보다 못한 닐판으로 덮었을까? 단순한 환상일 바에야 더 좋은 것으로 덮지? 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아무래도 말씀을 받는 대상자의 능력이나 형편의 차이를 고려한 것 아닐까? 솔로몬은 그런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에스겔이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뻐할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것을 고려한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니 그럴 수 있겠다.

11. 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 갯수는 종려나무의 몇 배인가?

4배: 종려나무는 승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한다. 그룹은 하늘의 존재며 종려나무는 땅의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상을 염원하는

것 아닐까?

12. 21절의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란 표현은 '내전 앞의 형태가 그것의 형태와 같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우리말 성경과 영어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우리말 성경은 이 말이 나무제단을 가리키지만 영어성경은 대체로 '내전 전면이 외전 문설주의 식양과 같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그러면 22절의 '곧'은 불필요하다)

13. 내전 앞에는 나무 제단이 있다. 솔로몬 성전에는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분향단(금단) 이전 성소에는 다른 여러 가지 기물이 있었다. 떡상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나무 제단을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떡상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모양이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기보다는 떡을 나누는 떡상으로 기능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제사대신 성찬예식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4. 24절의 '접치는'이란 말의 원문은 '회전하는'이란 뜻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돌쩌귀'라고 번역했다. 어떤 형태의 문일까?

여닫이: 회전을 의미하는 말도 있고, 접는 의미도 있는 모양이다. 반으로 접어서 회전시키는 형태 아닐까?
(참고, 왕상 7:50)

에스겔 42-43 장

1. 다시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간다. 여태 어디 있다가?

천사가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깥 뜰로 나왔다(40장 평면도의 12번 위치).

2. 북편 뜰에 두 방이 있고(1) 남쪽에도 동일한 방이 있다(10-12). 위치나 모양의 정확한 형태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모양이다(자세한 내용은 생략). 이 방들의 용도는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1) 지성물을 먹거나, 2) 보관하거나, 3) 옷을 갈아입는 곳: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물이나 의복조차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속건물을 지었다. 사방이 500척이나 되는 담의 역할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20).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까? 복장, 음식, 건물? 진짜 중요한 거룩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3. 만약 이 부속건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둘 수도 없고, 제사장이 예복을 어디서 어떻게 갈아입겠는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을 허락하신 것이 참으로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의 바깥 뜰에 이런 중립적인 장소(평상복을 입고 와서 예복으로 갈아입는 다는 점에서)를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4. 성전 내부 척량하는 일을 마치고(40:3-42:14) 사면 담을 척량했다. 모세가 만든 성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원래 성소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이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도 장방형으로 나온다. 아마도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43 장]

1. 선지자는 동향한 문에 처음 왔는가(1)?

아니다. 이 계시의 초반에(40:6) 왔었다. 척량을 시작할 때 동향한 문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출발지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결국 다시 동향한 문에 왔다는 것은 척량이 다 끝났다는 뜻이다.

2.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 오시는 걸까(2)?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떠나셨다가(10:18-22, 11:22-24)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 집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기쁨일 텐데, 집나간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른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임금님이 궁을 버리고 남의 나라 대사관으로 피해버린 아관파천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지금까지 말한 성전이 소용이 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 가곡에 '강이 풀리면'이 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오겠지, 님이 오시면...

3.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2)고 말하는 이유는?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 14:9).

4.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3)이 벌써 몇 번째인가?

4번 제(3): 그날 하수관에서(1:4-28), 들에서(3:23-24), 성읍을 멸하러 올 때(9:3-11:25) 전에는 성읍을 멸하려고 임하셨지만 이제는 영광으로 임하셨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멸할 수밖에 없는 고약한 백성들이어서 징계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이들을 회복시키려 하신다. 철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는 어렵다. 결국은 어른이 회생을 각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이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

5. 에스겔도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는데(5) 웬 사람이 곁에 서 있는가(6)?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므로 천사로 봐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실제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든 천사도 사람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뿐, 실제 모습이 아니다.

6. 성전의 특징은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으로 세 가지다(7). 각각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자.

보좌의 처소: 보좌는 왕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 통치를 의미한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지다.

발을 두는 처소: 발을 쉬게 한다는 뜻으로 성전은 안식의 처소다(사 66:1의 발등상).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 원수나 다름없던 골칫덩어리 이스라엘과 변함없는 교제를 나누게 됨을 의미한다.

7.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7-9절에서 두 가지 지적한다면?

음란과 시체로 성전을 더럽혔음(76-9): 여기서 음란이란 우상숭배다. 또, 시체를 성전에 두었을 가능성은 없다. 부정한 시체를 곁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바로 곁에 우상의 전을 두었다(8)는 책망이다. 그렇게 보면 죽은 자들의 시체도 결국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8. 새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까(10)? 성전의 형상을 척량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일까? 새 성전을 보는 것과 척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는 것: '보여서'라는 말은 '알게 하다'란 뜻이다. 척량한다는 것은 잘 알게 됨을 의미한다(=아담의 이름짓기, 김춘수의 꽃).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의미와 의도를 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라는 명을 받았다.

9. 느닷없이 웬 '산꼭대기 지점'인가? 어디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 산 꼭대기 지점은 성전 터를 가리킨다. 지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위가 다 거룩하다고 하신다. 거룩의 범위가 많이 확장되었다. 제사장의 구역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는 백성들의 지역까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 아닐까?

10. 한 자(=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즉 일 규빗)면 한 자지, 한 자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은 뭐야?

왕실 규빗이다(40:5): 왕실에서 쓰는 자는 좀 커야 백성들에게 권위가 서는 모양이다. 아예 자를 더 크게 함으로 모든 것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컸다.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배나 컸고, 성전 세겔도 아예 1/5이 더 크도록 만들었다. 제사장에게 내야 하는 속전으로 1/5 세겔을 더 내야 했으니까 아예 속전이 첨부된 세겔을 만든 셈이다.

11. 제단은 밀받침을 제외하고 몇 층인가?

3층:

① **아랫층(1층):** 고가 이 척,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

② **이층:** 고가 사 척,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 장이 십사 척이요 광이 십사 척이니 네모반듯하고(17절), 밀받침에 돌린 턱의 광이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17절),

③ **그 번째단 윗층(3층):** 고가 사 척, 솟은 뿔이 넷, 바닥의 장이 십이 척, 광이 십이 척(네모).

12. 번째단의 전체 높이는 얼마인가?

11척(1+2+4+4): 거의 6m 높다. 그러니 계단이 있어야 한다.

13. 번째단의 받침은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추정해 보자.

17 × 17척: 3층이 12×12, 2층은 14×14+(가장자리의 광), 1층은 가장자리에 일 척짜리 광이 있으므로 16×16척이어야 한다. 밀받침은 거기에 또 일 척짜리 광이 있으므로.

14.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다른 기물은 없고 번째단만 엄청나게 크다. 왜 그럴까?

속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다. 구제불능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단 하나, 속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인데...

15.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것을 흔히 우리가 쓰는 다른 말로 하면?

봉헌식(26):

16. 제사장을 일컬어 아론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왜 사독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44:15을 보자.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옳게 하나님을 섬겼단다. 사독이 단독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긴 것에서 비롯되었다(왕상 2:26-27).

17.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는 칠 일이 걸렸다(26). 제물도 많이 드려졌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모세 때에도 그랬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일곱 번 뿌리고 발랐으며(레 8:10-11),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았으며(레 8:15). 이것을 칠 일 동안 계속했다(출 29:36-37).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속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의미한다.

18. 요약하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속죄제(7일간): 속죄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한 후에 번제와 감사제가 소용이 있다.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이런 저런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밀받침: 고가 일 척,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 가장자리의 턱의 광은 한 뼘

아랫층(1층): 고가 이 척,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

이층: 고가 사 척,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 장이 십사 척이요 광이 십사 척이니 네모반듯하고(17절), 밀받침에 돌린 턱의 광이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 척(17절),

그 번째단 윗층(3층): 고가 사 척, 솟은 뿔이 넷, 바닥의 장이 십이 척, 광이 십이 척(네모).

에스겔 44 장

1.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후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동문을 닫아두라는 것은 동문이 하나님 전용이라는 말인가?

성전출입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의미와 다시 열지 못하게 한 것은(2) '다시는 떠나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2. 그러면 왕은 어느 문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안 길(남문이나 북문)로 와서 이 문(동문) 현관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 일반인은 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왕은 백성의 대표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3. 전의 규례와 율례 중에서 특히 입구와 출구(에 관한 규례)를 주의하라는 것(5)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일까?

성전 출입자의 자격을 말하려는 것이다(6-9).

4.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증한 일이 족하단다(6) 무얼 하기에 족한 걸까?

성전을 더럽히기에(7-8):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다.

5.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랑스러워한 사람도 많았던 모양이다. 왜 교회 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무엇이 예배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먼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7):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다.

6.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방인에게 맡겼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전을 맡겼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기강해이: 적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휴전선 철책선에서 보초가 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긴장해서 전혀 잠이 오지 않지만 얼마쯤 지나면 졸게 된단다. 제사장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의 습관처럼 여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요소가 가미되었을 수도: 이방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0, 12절 참고).

7. 레위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벌을 주겠다는 말인가, 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수종들리라(11) 해놓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13)고 하고선 또 맡긴다(14)?

지위를 격하시키겠다는 말: 전문(殿門)을 말한다. 백성 앞에 서서(하나님 앞이 아니라, 15절 참고) 수종들게 된다(11 =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한다(13) 전을 수직하게 한다(14) 종합하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의 직분에서 강등되어 일반 레위인들이 하던 일을 맡게 된다는 뜻이다.

8. 레위 사람들 중에서 사독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 실제로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다윗 왕가)에게 충성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것이다.

9. 양털과 베옷의 차이는 무엇일까?

땀 나게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양털로 된 옷은 대단히 따뜻하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땀이 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10.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합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19)?

아무 백성이나 합부로 거룩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 옷이 더러워지는 탓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결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를 만졌더니 반대로 예수의 정함이 이 여자를 정하게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합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다(마 7:6). 거룩히 여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합부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하셨다.

11. 머리털을 미는 것도 안 되고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럴까?

머리털을 미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이방인의 풍습이며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는 버려둔다(일종의 방치)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돌보고 원형을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12. 제사장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근무 중에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안 뜰에 들어갈 때에는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아마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호니와 비느하스 사건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13. 제사장에게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가정도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의 과부는 처녀와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제사장의 아내로 거룩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

14.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있는가?

교육(영속의 구분)과 재판: 절기를 주관하는 것은 행사 담당이라기보다는 예배 담당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제사장의 본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15. 제사장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때에는 제사장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다. 당연한가? 레 21:11과 비교해보자.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완화된 셈이다(에스겔서는 대제사장을 굳이 다른 제사장과 구별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규정을 고쳐주시기도 했다(참고 마 19:8의 '본래는'). 반면에 성소에 수종들려면 속죄제를 따로 드려야 했다(27).

16.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다면 다시 임무에 복귀하는데 며칠이 걸리는가?

14일: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민 19:11). 그렇게 정결례를 행하고도 7일을 더 지내라고 하셨다. 이 규정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17. 제사장에게는 땅이나 재산(기업,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 뭘 먹고 살라고?

하나님(28절의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것이라는 의미다.

18.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에게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번제와 화목제(29절 참고): 번제는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렸기 때문이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19.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사장에게 많은 것을 드림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분이 목사를 먹여 살리고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가 보자? 스스로 복을 끌어차는 행위다.

에스겔 45 장

1. 하나님도 땅이 필요하시나(1)?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성소, 제사장의 집, 레위인들의 촌락, 왕의 기업을 위한 땅이다. 우리가 번 돈에서 십분의 일을 드리라는 것도 알고 보면 자신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애를 썼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졌음을 알게 된다.

2. 이스라엘이 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것: 처음 열매(태, 농산물, 땅, 전리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출 23:19, 출 13:13, 민 18:12, 수 6:19)은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왕의 순서로 땅을 나누었다.

3. 하나님의 집인 성소는 500 × 500(척)이니 그리 크지 않다. 그 사방을 50척 폭의 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드린 땅과 비교하면 아주 좁은 지역이다.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넓은 땅을 달라실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쓰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땅에서 성전과 부속된 풀의 넓이를 계산하면 25,000 × 10,000(척) - 600 × 600(척)(성소와 풀을 합친 넓이)가 된다. 성소가 차지한 땅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다.

4. 땅도 다 같은 땅이 아니다. 다음 표현들은 각각 어떤 곳을 지칭하는가? 거룩한 땅(1), 지극히 거룩한 곳(3), 거룩한 구역(4), 거룩한 구역의 옆 지역(6, 여긴 댈 거룩?)

거룩한 땅(1)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땅 전체,

지극히 거룩한 곳(3) 성소에 속한 땅(아마 뜰도 포함),

거룩한 구역(4) 1절과 동일한 땅의 일부분이다(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나누어 준 지역),

거룩한 구역의 옆 지역(6)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땅과 붙어 있는 지역이다.

5. 5절의 땅은 1절의 땅과 별도인가?

아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땅을 적량해서 가운데 성소를 두고(3), 또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적량하는 것이다. 3절과 5절의 '장 이만오천 척과 광 일만 척'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6. 성읍의 기지를 삼은 땅은 거룩한 구역과 장이 같고 광은 절반이다. 나란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왕에게 주어진 땅은 이들 지역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동서로 분리되어 국경까지 뻗어 있다: 왕이 좌우에서 거룩한 땅을 지키는 형태다.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는 말은(7) 이 구역(제사장, 레위, 왕의 땅 전체)의 동서길이가 다른 지파가 차지한 동서길이와 같다는 뜻이다.

7. 왕이 전국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 소유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8)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려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8. 치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공평과 정의(9) 수재들만 모인 학교에서도 실력 있는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선생님이 더 존경받는단다! 가르치는 실력이야 조금 떨어져도 학생들 스스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위기의 때에는 아무래도 능력이 더 중요하겠지만 평소에는 공평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맞는 것 같다.

9. 경제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공평해야 하는가?

도량형: 에바는 고체 22ℓ, 액체 22ℓ다. 호멜(220ℓ = 고르)은 이들의 10배에 해당한다.

10. 1마네의 크기는 왕상 10:17과 대하 9:16을 비교해 보면 금 100세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도량형 환산표에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확한 크기를 모르기 때문: 대체적으로는 1 마네는 20 세겔 더하기 25 세겔 더하기 15 세겔로, 그래서 60세겔로 생각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11.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양은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 힘에 겨울까? 가벼울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성의껏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가볍다: 1/10이 아니라 1/60이다. 한 호멜은 십 에바, 그러므로 에바 육분의 일은 60분의 1 호멜이다. 기름 밧 십분의 일은 한 고르의 100분의 1이다. 양은 200분의 1이다. 재산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가는 법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거꾸로 비싼 것일수록 적은 비율로 요구하신다.

12. 왕이 제물만 드리나, 제사를 집행하나?

아무리 왕이라도 해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한다(19): 17절 끝에 '제물을 갖출지니라'는 말이 왕의 역할이다.

13. 정월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했는데(18) 7일에 또 성전을 속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그릇 범죄한 자(=실수, 고의성 없는)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20): 이들의 실수로 인해서 성전이 부

정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정결케 함이다. 정월 초하룻날 드린 제사가 그 정도의 효력이 없을까? 아마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별처럼 속죄해야 할 이유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14. 개인이 범죄했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제는 부정기적인 것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도 다르다(레 4 장). 본문의 속죄제는 일정한 절기에 드리는 것이다. 이전의 이런 속죄제(민 28:15, 29:5)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두 가지만 찾아보자.

수염소가 아닌 수송아지, 피 뿌림이 추가된 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의나 절기가 다스관의 변화가 생겼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나보다.

참고로 부정기적이고 개인적인 속죄제의 경우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온 회중도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이었다(레 4:3-35). 이들 가족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레 5:7-13). 극빈자는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드려야 했다(레 5:11-13). 이는 속죄제의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도록 하시려는 깊은 자비의 배려에서였다.

15. 유월절은 하루뿐이었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7일간이었는데 여기서는 7일간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도 약간의 변경된 점이다. 각설하고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양의 피로 죽음을 이긴 기념일: 유월에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 발음이 비슷할 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음의 천사가 집을 넘어갔다(Pass over)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므로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해방된 구약식 표현이다.

16. 정월 십사일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이다. 그러면 칠월 십오일에는 무슨 절기를 지켰는가(레 23:33-43)? 날짜로는 장막절이다. 그럼에도 장막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새로운 절기로 내용이 바뀌는 셈이다.

에스겔 46 장

1. 1-12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6번: 1-12절의 핵심은 제사방식이나 성전출입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일들과 관련된 왕의 역할이다. 반면에 13-15는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상번제에 대한 규정이지 사족처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2. 월삭이란 그 달의 첫날을 가리킨다. 나팔을 불고(민 10:10),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민 28:11-14, 대상 23:31, 스 3:5) 안 뜰 동문을 안식일이나 월삭에 열었지만 바깥 뜰 동문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후로 열지 말라고 하셨다(44:3). 일반적으로 보면 대문을 개방하더라도 안방문은 개방하지 않는 법인데 성전에서는 왜 반대일까?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두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바깥 뜰 동문을 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가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옆문을 통해서 들어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3. 왕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전제군주가 아니다.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다. 더구나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안 뜰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더 엄격해졌다.

4. 왕이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네! 둘 다 문통에서 경배하고 나가야 한다(2, 3: ↔개정성경은 '문통로'와 '문입구'라고 달리 번역하였음) 영어 성경과 대조해 보자.

왕이 경배하는 곳은 *at the threshold of the gate*, 백성이 경배하는 곳은 *at the entrance to this gateway*로 다르다. 우리 말(개역)은 둘 다 '문통'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5. 원래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흙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민 28:9) 이제는 수양이 하나 쥔 대신에 어린 양이 여섯으로 늘었다. 반면에 민 28:11-15절과 비교하면 월삭에 드린 제물은 송아지 한 마리가 줄었고, 소제의 양도 다소 줄었다. 한번 주신 율법의 내용을 왜 조금씩 바꾸실까?

율법이나 제도가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히 9:10)?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제는 왕이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된 변화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주어진 다른 규례들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 많은 곳에서 차이를 보인다.

6. 성전 출입에 있어서 왕과 백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왕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고(8), 백성들은 다른 문으로 나가야 한다(9).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라면 이런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7. 8절의 '이 문'은 어느 문을 가리키는가?

북문(44:4): 현재 에스겔이 북문을 통해서 전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8. 왕은 백성 가운데 있어야 하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 함께 해야 한다면(10), 8절과 말이 다른데?

2, 8절은 안식일과 월삭에 관한 것이고 9-10절은 다른 절기(*the appointed feast days*) 때의 성전출입 규례다. 왕이 백성과 다른 점도 있어야 하지만 같은 점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백성의 대표로서는 좀 다르다는 이런 이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9.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으니(13-15) 한국식 새벽기도는 성경적이네?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한국의 새벽기도는 한국인들의 심성에 부합한 새로운 방식일 뿐이다. 원래 번제는 아침저녁으로 드렸으므로(민 28:3-4) 이것도 변화된 규례다.

10. 왕의 기업이라고(16-18) 특별히 백성의 기업과 다른 점이 있는가?

없다: 왕이라고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고, 남의 기업을 빼앗을 수도 없다. 이것은 백성과 동일하다.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하는 이유와 같다. 이런 규정은 결과적으로 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1. 제사장이 삶은 속죄제와 속죄제 희생나 구운 소제 제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레 7:21, 민 19:20).

12. 부엌이 몇 군데에 있는가(42:10-12절도 참고로 할 것)?

6군데: 제사장의 방이 북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도 있으므로 제사장의 부엌이 두 군데, 수종드는 자의 부엌이 4군데에 있다.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수종드는 자도 먹어야지! 그런 부엌이 4군데나 있다는 것이 팬스레 기분이 좋네!

에스겔 47 장

1. 성전이 회복되고(40-42장), 예배가 회복되더니(43-46) 이제는 무엇이 회복되는가(47-48장)?

생명과 땅의 회복! 포로된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하게 될 땅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전에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2.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면 이 물이 어디서 발원되었을까?

성소 내부가 발원지라면 발원지는 하나님이다. 흘러내리더라(1)는 표현은 물이 양이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바깥 동문에서 솟구쳐 나왔다(대역의 '스미어'라는 표현은 좀 약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성전 내부는 물바다인 셈인데? 비유나 환상에는 비약이 있기 마련이므로 전달하려는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3. 물이 흐르는 방향은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이다. 제단 남편을 통과해서 바깥 동문으로 흘러나갔다. 그런데 선지자는 왜 북문으로 나가서 동문으로 갔을까? 동문으로 나가지 않고?

동문은 닫힌 채 열지 않기 때문이다(44:1-2).

4. 전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강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법인데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에덴의 강도 그랬다. 동산 중에서(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는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면서 강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사 53장)에게서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랬다.

5. 우리나라의 강이라면 일천 척(약 500m)을 흘렀다고 물의 깊이가 몇 십 cm씩 깊어지는 일은 없다. 이스라엘은 경사가 심한 땅이라서 그럴까? 아무래도 현실적이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 같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순식간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었다는 것은 무얼 상징하는 걸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6. 이 강에 적당한 이름을 붙인다면?

생명수의 강: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황무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꾼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것이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참으로 감동적인 그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다(요 4:10, 7:38).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7).

7. 동편으로 흐른 물이 강이 되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사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에서 바다에 이르렀다. 아라바는 팔레스틴을 남북으로 가른 요단유역의 저지대(남쪽 끝은 아카바만)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는 사해의 북쪽 요단지역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소성케 한다.

8.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본래는 절감나무이던 이방인들이 좋은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롬 11:24). 접을 붙일 때는 품질이 좋은 가지를 대목에 붙이는 법인데 바울은 접붙이기의 기본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랴 복음이 이렇게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부정한 손으로 예수를 만진 경우(눅 8:44)에서 보듯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거꾸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질이 낮은 것을 질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을 찾는다면?

강물이 사해로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것: 실제로는 요단강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생명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발원한 생명수는 가는 곳마다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준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다.

9.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성읍이다. 에네글라임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반대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는 아마도 사해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 일 것이다. 이곳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온갖 종류의 고기들을 잡게 될 것이다. 처음 창조 때 많은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모습이 연상되는 것 외에 또 어떤 다른 모습이 연상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이 온 세상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뒤를 이은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모습!!

10. 죽음의 바다가 생명력을 회복할 때에도 소성되지 못하는 곳이 있네(11)? 왜 그럴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끝내 심판을 자초하는 무리가 있을 것: 사해 주변에는 진흙 웅덩이나 수렁이 많이 있단다. 가령 우기에 물이 넘쳐 흘러들었다가 줄어들면 이런 웅덩이의 물은 자연히 짙은 소금물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도 이런 곳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만인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11. 다음 구절은 계 22:1-2절이다. 본문 12절과 어떤 점이 동일한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과 나무: 구체적으로 본다면, 1) 발원지(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 성소), 2) 강가의 나무(생명나무 - 실과나무), 3) 열매(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실과 - 달마다 새 실과), 4) 잎사귀(만국을 소성케 함 - 약재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다.

12.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에덴의 회복이라면,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일 텐데 그런 곳에서도 먹어야 하고 치료해야 할까?

(2번 대답 참고) 비유나 환상에서는 전달하려는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에덴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에 비유하려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13. 여호수아 시절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대로 차지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새로 땅을 나누어주는가?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땅을 나누는 방법도 달라진 탓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땅의 분배는 실제적 상황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14. 왜 요셉에게는 두 분깃인가? 다른 지파보다 배로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므낫세,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양자들인 셈) 두 아들이 각각 독립된 지파를 이룬 탓이다.

15.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땅의 회복도 절대적이다. 땅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약속하셨기 때문: 성경 전체의 내용도, 구원역사도 그 이유를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원인이 사람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16. ‘피차없이... 기업을 삼으라’는 말씀은 모두가 회사를 차리라는 말인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는 말이다: 성경에서 기업이란 물려받은 유산을 의미한다. 대규모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17. 지파별로 땅을 나눈 얘기가 아니네(15-20)! 그럼 뭐야?

전 지파가 나눌 땅의 전체, 전 국토의 동서남북 경계: 그 안에서 지파별 경계는 다음 장에서 언급된다.

18. 민 34장에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남서북동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는 어떤 순서인가?

북동남서: 출발점이 반대로 된 셈인데 출애굽 시절에는 남쪽에서 올라왔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일 것이다.

19. 모르는 지명이 너무 많아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사방 경계 중에서 알 만한 지명을 하나씩만 찾아보자.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질 것이다.

북 - 다메섹, 동 - 요단강, 남 - 가데스, 서 - 대해(지중해): 이스라엘의 최대 판도와 같지만 않지만 요단강 동편을 제외한 것이라고 보면 최대 판도라고 할 수 있겠다.

20. 어느 나라든 이방인에게 함부로 땅을 내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족속과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 그가 우거하는 그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에스겔 48 장

1. '북쪽에서'라는 말은 어느 말을 수식하는 걸까? 참고로 바로 뒤의 '하살에논파지'는 아니다.

앞의 '이 같을지니라'가 좋다: 북에서 남의 순서로 땅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즉, 수직선상의 출발점이다. 반면에 '해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논파지'는 가장 북부 지역의 '동편에서 서편까지'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지? 개역성경을 탓할 일은 아니다. 알아듣기 쉽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표현이 어려운 것은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여호수아가 나누어준 땅과 비교해 보면 여기 땅의 분배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이유가 무엇인가?

지형에 대한 고려없이 수평으로 직선을 그어 나누었다: 따라서 지파별 경계는 휴전선 스타일이 아니고 38선 스타일이다.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도 이 땅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3. 원래 단지파가 얻은 땅(수 19:40-48)은 북쪽이 아니었다. 북쪽 가장자리는 외적의 침입을 먼저 받는 곳이라서 좋은 땅이 아니다. 이들이 왜 북쪽 땅을 얻게 되었는지 사 1:34-36을 찾아보자. 그래서 회복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제비뿔아 얻은 땅은 지중해 연안이었으나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만한 라이스를 점령한 탓이다. 그 일과 여기서 북쪽을 차지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12지파가 예전에 차지하던 지역과 여기서 새롭게 차지하는 지역의 상관관계가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서편으로 건너온 것과 북부의 스불론과 잇사갈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가장 남쪽이던 유다가 중부지역으로 옮기는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전에 차지한 지역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4. 단부터 유다 지파까지는 7지파다. 그 다음의 땅은 이스라엘의 가운데 부분이다. 꼭 가운데 부분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로 복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어른이 달라고 해서 드린다는 생각과 어른을 기쁘게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이고 그 땅의 가운데 땅은 제사장의 땅이고 그 가운데에 성소가 위치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계시겠다는 말이다.

5. 유다 지파의 땅을 언급하고서는 잠시 다른 얘기가 길게 이어진다(9-22). 하나님께 드릴 땅의 얘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다의 복이다. 왜 그런가?

중양에, 그것도 하나님의 땅에 인접해 있는 것은 특별한 복이다: 군대에서는 계급보다는 보직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중요한 일을 맡았을 경우에는 계급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권력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힘이 더 세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다.

6.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어떤 순서로 언급되는가?

제사장(10-11), 레위인(13), 왕(21): 이스라엘의 왕은 찬밥이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다음이라는 것을 아는 왕은 복되다. 별을 몇 개씩이나 단 장군이 계급이 한참 아래인 군목을 팍팍이 대우하는 군대교회는 얼마나 복될까?

7. 8절의 예물과 9절의 예물은 내용상 어떻게 다른가?

크기가 다르다: 8절의 예물은 광(남북)이 이만오천 척, 장(동서)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이만오천 척보다 훨씬 더 길다,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을 쳐도 십만 척을 훨씬 넘는다)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 반면에 9절의 예물(=10, 사독의 자손의 땅, 11)은 장이 이만 오천척이요 광이 일만 척이다. 더구나 이 땅의 가운데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이 8절 예물의 가운데 일부라는 말이다(이만오천 × 일만 척).

8. 사독의 자손, 곧 제사장(11절은 동격으로 수정해야 함)에게 줄 땅(9-12)의 크기는?

이만오천 × 일만 척(10): 레위의 지계와 연접하여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릇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한 상이다(참고 44:11-15).

9. 레위의 분깃은 제사장의 지계와 연접해 있고 크기도 동일하다. 레위와 제사장의 땅을 합치면 광이 이만 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땅이 아직도 광 오천 척 장 이만오천 척이 남는데?

15절의 '이 이만오천 척 다음으로 광 오천 척'은 이만오천 척 중에서 나머지 오천 척이란 뜻이다. 45:6에 보면 이 나머지 땅(광 오천 척과 장 이만오천 척)을 성읍의 기지를 삼으라고 했다. 그 땅의 가운데에 사방이 사천 오백 척인 성읍과 그 바깥에 폭이 이백오십 척인 돌이 있다(15).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이 반듯해야 하려면 (20) 그 바깥 양쪽으로 장이 일만 척, 광이 오천 척인 땅 두 조각이 성읍 기지가 되어야 한다.

10.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땅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땅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팔지 못하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지만 땅을 생산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듯이 특히 레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를 잊지 말자.

11.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8절)은 거룩할 텐데 제사장이나 레위의 몫만 거룩하고 성읍은 속되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도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사장이나 레위의 역할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일(18절의 양식을 삼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지만

먹고 싸는 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처럼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속된 부분(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다)을 인정해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한다.

12.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는(21)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장 이만오천 척, 광도 이만오천 척(20): 8절의 예물 중 가운데 부분이다. 이 부분을 삼분하여 제사장, 레위, 성읍의 기지로 사용하였다. 순서는 어떻게 될까? 가장 위 부분이 레위, 가운데가 제사장, 아래쪽이 성읍 기지이다. 땅의 가운데에 성소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땅이 가운데 부분이다. 그 바깥의 양쪽 부분(서로 분리된 상태)이 왕에게 주는 땅이다.

13. 왕이 차지하는 땅은 동서로 분리된 상태이다. 그 중간에는 무슨 땅이 있는가(21-22)?

제사장의 땅과 레위 사람의 땅과 성읍의 기지: 거룩히 구별할 땅(21)이란 제사장의 땅(12)과 레위 사람의 땅(14)을 가리키는 말이다.

14. 다음 표현이 왕이 차지할 땅의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말인가? 1)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2)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22)

1)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 = 동서, 2)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 = 남북

15. 1절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논까지'는 북방경계선이다. 그러면 남방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은?

28절의 '다말에서부터 므리바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16. 각 지파별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는데 왜 제비 뽑아 나누어줄 땅이라고 하실까(29)?

제비뽑는 중요한 이유는 공평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도 이렇게 될 것!' 그럼에도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가 성전 가까운 지역을 얻었다. 아마도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평일 것!

17. 성읍의 출입구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30-35) 내용상으로는 15절에 이어질 내용이다. 성문은 몇 개이며 위치는, 그리고 이름은?

12개, 사방에 3개씩, 각 지파의 이름을 딴 것이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문과 같다(21장). 요한이 에스겔을 표절한 것 아냐?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써야 할 내용이 이렇다면 틀림없는 표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동일한 일을 묘사하면 같을 수밖에 없다.

18.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바램직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본문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구속사의 최종 목표도 이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삼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에스겔의 멋진 마무리다.